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립불상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0090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2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은함을 원한다. 무병장수를 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크게 탓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가피와 외호를 바라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의 궁극은 계달음에 있다. 선의 등장은 가피와 외호가 만연하는 풍토에 대한 질타에 다름아니었다.

복을 기원함을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기원의 내용이 재화의 풍요만을 바라거나, 의타적일 때는 곤란하다. 소수의 사람에게 재화가 편중되면, 편중된만큼 재화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눔이 없는 기원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나눔이 없는 기원은 아상(我相)을 버리지 못한, 신앙의 껍데기로 가린 이기주의일 뿐이다.

아상 못버린 이기주의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

복전(福田)이라는 말이 있다. 〈우바새계경〉에 의하면 복전은 세 가지가 있다. 경전(敬田)은 불·법·승 3보에 대한 봉사, 보은전(報恩田)은 부모에 대한 봉사, 빈궁전(貧窮田)은 빈곤한 사람과 병든 사람에 대한 봉사를 가리킨다. 고려시대 사찰에서 운영했던 대비원(大悲院) 같은 경우가 빈궁전의 좋은 보기이다.

불교의 기복은 이 세 가지 복전을 일구는 데서 비롯된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소출을 내듯, 복을 지을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는 이치이다. 복의 근원이 3보와 부모, 이웃에 대한 보시에 있음을 당부한 가르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빈궁전을 요즘 말로 바꾼다면 자비실천, 사회봉사이다. 물질을 내어 봉사할 수도 있겠고, 공업(公業)의 업보를 조금이라도 덜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사회를 맑히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불교시민사회단체에 회원이나 자원봉사, 후원인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외환은행 : 189-13-03929-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남-북 불교학술 세미나 내년 4월 북경서 연다

불추위-조불련 평양서 합의서 교환

2000년 4월 북경에서 남북한 최초의 불교사상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방북대표단(단장 명진)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11월 29일 평양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남한의 불교철학과 북한의 주체철학에 입각한 불교사상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불교계 대표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입각하여 △불교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해 상호 노력 △2000년 초파일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평양방문실현 △불교추진위와 조선불교도연맹 지원 등의 4개항에 합의했다.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방북대표단장 명진스님은 "학술세미나와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의 북한방문 등에 조불련이 큰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며 "합의서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명진스님은 또 "남북대표단은 불교학술세미나 개최와 종단협 대표단의 조속한 방북을 논의하기 위해 1월말이나 2월초 북경에서 실무회담을 갖는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초파일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에 맞춰 방북할 예정인 종단협방북단은 10여명 규모로 종단협에 가입한 여러 종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북대표단은 11월 25일 평양 광법사에서 남북 사부대중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북대표단을 통해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대선사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불교계 연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희망하시는 스님의 의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원로의원 일타스님 원적

5일 은해사서 다비식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조실인 동곡당 일타(東谷堂 日陀) 대선사 영결다비식이 5일 오전11시 은해사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일타스님은 11월 29일 오후9시39분 미국 하와이 와불산 사자봉 금강굴에서 승랍 58세, 세수 71세를 일기로 입적했으며, 일타스님의 법구는 2일 김포공항을 통해 은해사로 운구됐다.

〈관련기사 3면〉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면담했다. 김대통령은 조계종의 사면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정대스님 "종단화합 최선노력"
김대통령 "사회안정 불교협력"

2일 청와대서 면담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일 김대중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갖고 "종단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대스님은 또 종단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하고 "더이상 불교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불교계도 사면을 실시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며 사면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불교문화재는 불교인은 물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대북햇볕정책과 사회의 안정에 불교계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정대스님과 김 대통령의 면담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등, 호계원장 월서, 총무부장 원택스님, 조규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이 배석했으며, 오찬을 함께 하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날의 면담과 관련, "조계종의 안정을 바라는 김 대통령의 관심의 표명"이라고 풀이했다.

정성운 기자

"평화문화 건설"

WCRP총회서 선언

분쟁의 화약고인 코소보, 인도네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 100여 국가의 종교지도자 340여명 등 종교인 1200여명이 지난 인류역사에 있어 종교로 인한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참회하고, 새로운 천년의 도래와 함께 희망과 사랑이 함께 하는 세계를 위해 헌신하자는 결의를 다진 최대 규모의 종교인회의가 열렸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열린 '종교와 평화에 관한 세계회의(WCRP)' 제7차 총회에서 종교인 대표들은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계는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간의 긴요한 대화와 공동의 실천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7개의 실천항목을 선언했다. 〈2면으로 이어짐〉

조불련에 월동품 기증서 전달

종단협, 새회장에 정대스님 추대

종단협의회는 11월26일 중국 북경 해당화식당에서 조선불교도연맹 황병준 부위원장을 만나 조불련이 요청한 월동용품(방한복 4천벌, 신발 4천켤레) 기증서를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종단협 이사)을 단장으로 한 종단협 대표단은 월동용품 기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남북불교지도자 상호 초청 교환방문 추진 △남북통일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향후 남북불교교류는 종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창구는 종단협 사무처를 경유해서 각 종단에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불련측은 "통일을 위해 불교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이 전했다.

종단협-조불련 회동에 앞서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진각종 지현정사는 조불련 대표단과 별도로 만나 대북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태고종은 광화통일 기원 수륙영산대재의 남북공동 봉행과 북한사찰의 단청불사 지원을 제안했으나, 조불련은 거절했다.

한편 종단협은 9일 서울시내 하림각에서 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11월 30일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스님,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등 종단 대표 30여명은 관문점을 시찰하고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부대와 통일대교 경비부대에 라면 1백상자씩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정성운 기자

제5회 신행수기 공모 12월 18일 마감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상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신문 관리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불문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불문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 (순금 불문의 열쇠)
· 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 (순금 불문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 (순금 불문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불문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訃 告

東谷堂 日陀 大宗師 世緣 已盡 佛紀 2543年 11月 29日(陰 10.22) 午後 9時 39分
於 미국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 入寂 慈以 訃告 - 佛紀 2543年 11月 29日 大韓佛教 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 永訣日時 : 佛紀 2543年 12月 5日(陰 10月 28日) 午前 11時 -. 永訣場所 : 八公山 銀海寺 道場 -. 茶 毘 : 八公山 銀海寺 茶毘場

證 明: 혜암, 월하, 서옹
葬儀委員長: 탄성 副委員長: 종산, 도원
委 員: 관응, 고송, 탄성, 원담, 도견, 지종, 청하, 성수, 승산, 보성, 정천, 비룡, 응담, 운경, 도천, 석주, 법전, 녹원, 송담, 범룡, 정영, 진제, 지유(무순)
護 喪: 도견 指導委員長: 정대 副委員長: 법등, 일면, 정련, 무비
委 員: (중진) 능가 화엄 고산 천운 정관 무진장 도성 법정 월운 월주 초우 혜정 법안 덕명
법흥 벽파 봉주 철웅 고봉 월탄 인환 능혜 학능 현호 명선 설정 지성 월파 무공 철형 지선 현고 도후 혜총 천재 거해 (선원대표) 동춘 적명 무여 무문 인각 지환 (본사주지) 정락 법장 현해 혜광 진허 성덕 성타 성주 통광 성우 현문 법조 도엄 다정 종걸 현지 보선 중원 법현 부림 (중회의원) 종하 근일 지하 정휴 성관 종림 현각 새영 청화 마근 도환 정념 지명 진각 장곡 지운 법보 유광 혜정 장주 즉상 능관 도각 수완 영담 정인 석호 정각 지광 원행 성오 화법 진만 종삼 범종 영조 몽산 월우 탄우 대원 진원 태공 경훈 동욱 지광 명진 현봉 지욱 현응 법안 학담 혜창 정우 여연 영배 광조 장윤 원우 지홍 원명 (비구니) 제호 견륜 상륜 광우 명성 묘엄 태경 쾌성 자민 수현 법성 육문 운달 일법 해주 본각 지형 일초 (무순)
(신도대표)고은 김종서 김향란 백욱기 서돈각 손현수 양인석 윤철상 박완일 황수영 김태호 엄상호 송재건 주영운 한갑진 백창기 공종원 권지홍 김두원 김병조 김용립 김재영 남강수 민병천 경국환 박권흠 박봉석 박윤흔 송석구 신광식 유상종 이순규 한명숙 명호근 안동일 김노연 최동원 안종학 변영우 김동기 이중환 류진수 권세목 이상무 최종대 곽종형 김제현 강창식 이상현 김병관 명을식 신기악 윤소년 이상번 성낙승 정인악 진민자 황석동 권익현 박구일 박준규 주양자 추미애 박범진 조성준 정한용 이상현 김기재 서석재 김복동 박철언 김석원 이인제 함종한 박상규 박헌기 강선영 이용택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임직원 일동 · 조계종 중앙신도회 일동 · 군종법사단 일동 ·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 전국 포교사단 일동 · 제10교구 본말사 신도회장 일동 · 경북 도청 경불회(무순)
집행위원장: 법타 부위원장: 법의, 향적, 선혜, 돈명,
총 무 부 장: 종성 도 감: 원택, 원응, 도각, 여연, 법종, 현소, 설송, 법일, 불필, 육문
병 원 장: 금담, 도설, 현일, 부용, 철호, 한우, 성안, 백홍암 선원 대중 일동
의 료 진: 돈기, 돈무, 지상, 돈조, 재윤, 천은, 성덕, 현관, 덕진, 대오, 혜오, 반야, 기기암 대중 일동
지 원 부: 도선, 관후, 무관, 돈각, 향공, 천은, 불산, 선조, 성광, 법성, 일권, 도일 운부암 선원 대중 일동
재 무: 돈오, 장적, 무이, 육문
홍 보: 돈관, 태경, 박치민, 박원구, 영천 시청 미타회 대중 일동

설 립 위 원: 응각, 법장, 능허, 원타, 도각
접 수: 각원, 덕진, 도일, 대지, 선재, 법등, 돈조, 동광, 청암, 종림 승가대학원 대중일동
법 주: 금담, 현일, 정일
만 장: 지상, 각림
경 호: 법정, 동승, 무이, 혜봉, 성관, 현진
영 선: 김병반, 이현식, 김창식, 김상화, 김규대, 김순자, 김추지, 전순태, 윤석환
다 비 장: 김기남, 배문정, 최병철
매 표 소: 김근식, 장완식
주차통제: 영천경찰서, 경산 경찰서, 운불련 회원 일동
다 각: 중안, 유곡, 본말사 비구니 스님 일동, 운문사 학인스님 일동
시 자: 혜해, 혜관, 성민, 혜우
원 주: 혜안, 일정, 혜철 별좌 : 승가대학 학인 일동
門中代表: 화산 門徒代表 : 혜인 山中代表 : 성진
上 佐: 혜인 성진 해규 혜국 자혜 자명 향적 도범 도응 돈수 돈명 선본 선혜 선견 선일 혜륜 돈각 돈기 혜웅 돈오 돈견 혜해 돈중 돈문 돈관 돈무 돈종 돈여 돈연 돈우 돈광 돈공 적광 적음 적조 적정 적상 적영 적인 돈성 돈일 돈조 혜진 혜등 혜우 혜휴 혜명 혜광 혜경 혜봉 혜안 혜철 혜정 혜능 혜월 혜공 혜도 혜일 혜심 혜찬 혜담 혜룡 혜상 혜종 철호 부용 한우 해우 성안 도봉 환봉 구봉 성우 인욱 향음 혜원 해천 혜선 돈응 돈운 법성 혜민 혜산 돈유 돈현 혜각 정수 정원 정인 정호 도해 혜성 정행 해광 인호 혜관 정암 돈초 돈원 선종 (무순)
法 上 佐: 법룡 법타 법의 설송 현소 법일 향공 중봉 무이 법산 도설(무순)
孫 上 佐: 장선 선조 정혜 각문 선광 동광 정광 태경 성우 서광 표광 반광 은광 도광 향광 신광 성묵 성조 원조 덕조 보급 진화 진성 성운 성담 성광 성범 성월 성해 성공 성전 금모 성본 선관 성원 성상 장명 장적 장일 장효 청암 선광 효광 원광 지광 법광 자광 태광 성광 무연 서광 정광 세등 심향 정수 성정 중원 불각 성륜 인달 성혜 성현 성천 성산 향광 화광 성문 성재 성로 성구 성효 성돈 인암 인묵 인산 성민 임정 수산 성안 각전 각문 각훈 성중 성종 구암 성각 나옹 정혜 불산 원민 우전 동원 세일 선오 초중 수암 성정 지공 법공 성오 정각 각진 혜담 종일 선일 덕일 서일 미륵 각오 성초 세광 (무순)
曾孫上佐: 덕림, 대림, 선림, 정림, 세림, 도림, 대응, 수민
在家佛子: 이인제, 김현준, 김시남, 노성원, 배기수, 김창록, 우삼보

문의 및 연락처 : ☎ (0563)335-3318~9, 335-5220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은해사

東谷堂 日陀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 委員會

사 설

사면, 원칙에 따라

사면이 조계종 최대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나긴 분규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어 종단의 대화합을 도모해야 할 마당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가 사면이라는 점에 대하여, 또 그것이 새 총무원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안에 급급하여 고식적인 처방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역사의 재발을 초래하는 더 큰 화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사면을 통한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계종 역사의 긴 흐름을 보는 안목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끊임없이 일어났던 분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눈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그에 의거하여 미래의 청정 화합 승단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외적인 규정은 그러한 큰 원칙이 선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결국 이리 저리 짜맞추기 식의 무원칙한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은 어떤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사면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면이 다시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면에 임하는 총무원측이 당당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당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옳고 저쪽은 그르다고 하는 아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의 백년대계를 세워간다는 대의명분을 확고히 하라는 뜻이다. 그러한 큰 입장에 설 때 그 동안의 사태 진행과정에 있었던 우리 쪽의 잘못까지도 겸허하게 반성할 수 있으며, 소아적인 편견으로 극한적인 대립으로 갔던 저간의 상황을 평등심으로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면의 원칙이 정해질 때 비로소 사면의 대상이 되는 측도 소아적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면의 강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사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분규가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졸속하게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화회의 측도 은근히 이러한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총무원도 지나치게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면이 실시될 근본적인 바탕이 이루어지 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좋다. 사면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조계종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공평무사한 원칙을 통해 조계종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만약 진정한 참회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분규를 불모로 하여 사면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가장 먼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이 서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총무원은 공평무사한 사면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은 원칙에 의한 일반적인 사면을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상 시국을 헤쳐가는 초법적 조치인 사면이 너무 조그만 것들에 구애되어서는 안되지만, 초법적인 조치가 함부로 발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한도 필요하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융변의 방편을 적절히 구사해 대사면을 통해 조계종 분규의 역사를 청산하는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전통사찰 주변 건축규제

전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조계종등 "환영"

☞1면 'WCRP'서 계속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함으로써 전통사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이 확실시된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1월 30일 현행 전사법으로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규정을 전사법 6조 2항에 신설했다.

신설된 전사법 6조 2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8조 1항의 허가권자(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관광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전사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조계종총무원은 1일 전사법 개정안의 문화관광위 통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사찰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사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인 유정길씨(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평소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여법한 수행의 모습을 보여줄 때 수행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조했다.

또 이미 음식점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직지사 석남사 등 전국 10여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2월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되자 곧바로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전사법 개정 활동을 벌여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민회의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은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정치인 잇달아 조계종 방문

걷은 정대스님 취임축하
속은 내년총선 표밭갈이

정치권 인사들의 조계종총무원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표밭갈이로 보는 시각도 많다.

자민련 불자회장 박철언의원은 11월 29일 정대스님을 예방했다. 박의원은 "전통사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자민련불자회가 앞장서서 불교일을 뒷받침하고 심부름도 마다않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불교중흥을 위해 통일한글경전의 발간, 사찰이 보유한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수련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어 1일에는 국민회의 연등회 박상규 회장과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정대스님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전통사찰보존법과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연등회 의원들이 애써줘서 고맙다"며 "연등회 일이라면 힘껏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규의원은 "신당 정책본부장이 연등회원인 장재식의원이 불교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제 국민회의 상임고문도 이날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스님을 만났다. 이 고문 방문 때는 기자들에게 사진촬영만 허용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성운 기자

불교인터넷TV 개국

뉴스·사이버 법회 가능

인터넷을 통한 포교 매체인 불교인터넷텔레비전(www.buddhatv.com)이 1일 개국,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

사이버 부처님 세상을 모토로 출발한 불교인터넷TV는 뉴스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포맷으로 시청자곁으로 다가갔다. 개국 특집으로 인도 다람살라에서 현지 촬영한 '달라이 라마에게 듣는다'를 내보냈고, 불교뉴스는 불교TV 뉴스를 방송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신행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법당은 사이버 대웅전을 조성하고, 예불과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오디오서비스해 컴퓨터를 통한 법회의식도 가능하다.

7일 오후5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 축하리셉션을 가진 임동민 불교인터넷TV사장은 "교양강좌와 주간 뉴스, 뉴스속의 뉴스 등 산뜻한 프로그램도 추가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통합방송법 국회통과
종교채널 활성화 전망

통합방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교TV 등 종교채널이 크게 활성화 되고 종합유선방송국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중복소유도 가능케돼 방송채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문광위가 11월30일 5년여 끌어온 통합방송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통합방송법 70조 3항에 의거해 종교채널 등 공익성이 높은 공공 채널에 대해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에서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위영란 기자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재 발간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은 9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종합교재〉를 발간했다.

포교론, 포교실무, 계층포교론, 보살행교육, 타종교 포교 사례 등 모두 20회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410쪽 분량으로 △포교론 △포교실무 △설법론, 신도조직론, 지도자론, 스피치교육, 신도 조직운영론, 계층 포교론 △보살행 교육, 자원봉사자 운영론, 방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간병교육과 호스피스, 불교상담의 길 △타종교 포교사례 △정보화 교육 등이 수록돼 있어 포교관련 기본교재로 손색이 없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20세기 고승메달 2차분 출시

조폐공사 - 현대불교 제작 보급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와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 곁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지름 8cm)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두고 친견할 수 있습니다. 고승기념메달은 20세기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자성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8분 제작에 이어 이번에 2차 8분을 제작 완료하고 일반에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이 소장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스님:
1차: 만공 용성 만해 한암 경봉 청담 고암 성철
2차: 영호 동산 금오 효봉 묵담 탄허 자운 월산
◇ 보급: 낱개 각 5만원·8분 1세트 40만원(500개 한정)
◇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722-4162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깨달음 줘서 보내자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말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보원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신비한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제조원: 만복당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사업부 혜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97년 9월 2일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거행된 일타스님(왼쪽 첫번째)의 저서 〈기도〉 일어판 출판기념법회. 원로·중진스님 5백여명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계·정·혜 섭렵한 선승

'동곡의 큰해 서산에 지다'…일타스님 행장

192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일타스님은 42년 통도사에서 고경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49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조계종 1~3대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주지, 은해사주지, 해인총림 율원장과 율주 등을 역임했으며 93년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위촉되어 계율을 진작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스님은 계정혜 삼학을 두루 섭렵한 보기드문 선승이었다.

1949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53년 통도사 천화율원(千華律院)에서 자운율사로부터 율장을 전수받았으며 이어 〈범망경보살계〉〈계율과 수행〉 등 계율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해인총림 율주 등을 역임하면서 율사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일타스님은 또 46년 송광사 삼일암에서 수선안거를 시작한 이래 전국의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며 화두일념으로 참선정진과 중생교화에 매진해 온 선승으로 더욱 유명하다.

특히 지난 54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매일 3천배씩 7일간 기도끝에 오른손 네손가락 12마디를 연비한 후 태백산 도솔암에 들어가 6년 동안 용맹정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일타스님의 속가제자 김현준씨(불교신행연구원장)는 "스님은 평소 '참선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다 보면 계율은 저절로 청정해지는 것"이라며 불자들에게 참선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60년대 중반부터 해인사 지족암에 주석해 온 일타스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다음 생에는 불법이 미약한 서양,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마치고 한국의 해인사나 송광사에서 수도한 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싶다"며 미국에서 환생할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서 20세 가량의 비구승이 찾아오면 나인줄 알아라"고 했다고 한다. 일타스님은 이와 관련, '死生出沒 月轉空中 東谷日陀 西岸月明'(삶과 죽음은 달의 공전과 같네. 동쪽 계곡에 해 저물면 서쪽 해안에 달 밝으리)라는 의미 심장한 게송을 남긴 바 있다.(현대불교 186호 수행한담)

친·외가를 포함해 41명의 친척이 출가할 정도로 불연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문하에 성진, 혜인, 혜국, 향적, 돈관스님 등 1백여명의 상좌와 고목 선조 태경 장적 성공스님 등 1백여명의 손상좌를 두었으며, 〈생활속의 기도법〉〈기도〉〈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시작도 끝도 없는 길〉 등 10여권의 신행안내서를 남겼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일타스님 열반송

一天白日露眞心
萬里淸風彈古琴
生死涅槃曾是夢
山高海闊不相侵

하늘에 밝은 해가 진심을 드러내니 만리에 맑은 바람 거문고를 타는구나. 생사와 열반이 일찌기 꿈이려니 산은 높고 바다 넓어 방해롭지 않구나.

네손가락 12마디 연비

친·외가 41명 출가

조계종 사면원칙 놓고 설왕설래

정대스님 기자회견서 밝힌 '재산 관련자 제외' 해석 분분 일부대상자 집단 대응 움직임

조계종의 사면과 관련, 미묘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칫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11월 30일 사면원칙에 대해 "종헌 9조 3항(사설사암 및 법인의 종단 등록)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처자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면대상자인 한 스님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 "결정적인 신상의 문제가 있어 사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11월 24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재산관련 징계자의 사면제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아직까지 사면 원칙에 대한 총무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종단재산과 관련된 징계자의 경우, 사면 이전에 사찰 및 법인의 종단 등록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요 징계자의 '부활'을 경계해 몇 스님을 사면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부분이 자칫 불화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자를 먼저 염두에 두기보다는 종단의 화합과 기강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앞서의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사면 방법은 종헌 개정을 통한 한시적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멸빈자의 사면은 종헌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헌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사면·복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화회의에 참여했던 한 스님은 "종헌이 율장의 상위에 설 수 없다"고 전제하고 "궐석심판에 의한 징계이므로 율장에 어긋나고, 따라서 당시의 징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정화회의에 남아 있는 스님들이 사면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된다. 사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매우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정화회의에 남아 있는 스님들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며, 더구나 사면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화회의에는 대부분 94년과 그 이전 징계자들이 남아 있다.

대다수 불자들도 지난 10월의 조계종사태가 화합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 축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면 실시 이전에 사태 당사자들의 참회가 선행되기를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사면이 또다른 불화의 불씨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자들의 바람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정화회의 소속 스님들.

한편 94년 이후 제적 및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은 각각 20여명 안팎이다. 94년 이전 중징계자까지 합치면 40여명에 이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내년예산 미승인 신규사업등 진행 차질예상

12월중 임시종회 불투명

"가야 할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중앙종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계종 종무원들의 요즘 심정이다.

중앙종회는 계획대로라면 11월 첫 주 개회하는 정기종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정기종회는 총무원장선거 후유증으로 휴회를 거듭하다 폐회돼 예산안을 심의조차 못했다. 임시종회를 열어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나 재정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월중 소집도 불투명하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재정분과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 후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임시종회 소집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예산만이라도 다룰 임시종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11월 정기종회서 예산 승인을 받고, 12월에는 중앙종무기관의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1월중에 총무원장 신년회견을 통해 종무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는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 2차 연도로 신규사업이 가장 많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예산회계법 24조에 따라 신규사업은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4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월중에 착수 또는 시행을 마쳐야 하는 사업도 선원 안거성만자 전산입력, 강원교과과정 표준화 연구, 불교시민단체연석회의 및 불교사회교육원 설립 등 11개 사업이나 된다. 또 불교관련 사료(일제시대 총독부 관보) 정리와 통계프로그램 개발은 유실재산의 파악과 불교현대사의 1차 자료정리, 종단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예년 같으면 사업담당자들이 실행계획서를 세우느라 바쁜 연말을 보낼테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삭제되거나 예산에 변동이 생기면 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하므로 일손이 잡힐 리 없다.

문화부가 불교문화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 발굴조사단 구성 사업의 경우, 문화재 분야의 권위자를 단장으로 내정해놓고도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을 미뤄놓고 있다. 인권·환경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불교밖의 단체와 연계하는 사업이어서 차질을 빚을 경우 불교의 대외적인 신뢰의 추락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난 해에도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사태로 2월에 가서야 예산을 승인했다. 지난 해에는 종단사태 때문이었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총무원장선거 후유증이라는 이유외에는 없다. 또 한 달이 되도록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 국회의원 세비인상

국회의원이 의탁받은 한 표는 국민의 귀중한 권리요, 그들이 받는 세비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마음이 되고 손발이 되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그토록 귀중한 정성어린 권리와 피땀어린 세금을 제대로 행세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정당 패거리나 짓고 서로간의 허물이나 꼬집고 온갖 추태를 부리며 국민의 혈세와 정치자금만 탕진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가득 차고 있다. 그런데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모든 국정은 뒤로 물리면서 의원세비 인상 예산통과를 하고 있으니…. 중산층이 60%대에서 30%대로 붕괴되면서 빈곤층의 증가로 국민 대다수의 고충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설사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금년 경제성장률 8%와 물가안정 0.8%를 감안하더라도 의원세비를 14.3%로 인상하고,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1명씩을 신설키로 하는 예산 126억7000만원까지 별도로 편성했다는 보도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IMF 이후, 오늘에 이르는 2년간 얼마나 많은 회사가 퇴출되고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 아직도 2백만을 헤아리는 실업자가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안만은 지지부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은혜를 아는 것은 대비(大悲)의 근본이며, 선업(善業)을 여는 첫 문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멀리까지 명예가 들리며, 죽은 뒤에도 천상에 태어나 마침내 불도(佛道)를 성취하기에 이를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축생(畜生)보다 못하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있는 말이다.

권리를 부촉하여 밀어 주고 세금 내어 정치자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잘 보고 분명히 듣고 살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훗날 복(福)받을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국민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시지요. 자꾸 축생보(畜生報)를 받을까 걱정스럽소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논설위원)

새 천년 새 아침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을 맞이합시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일출을 관하던 기도도량
—낙산사 의상대



염불만일회 서른 한 분 스님의 등공부도탑
—건봉사 등공탑

새천년 해맞이(낙산사)와 건봉사(등공대)순례 안내

◆일 시 : 1999년 12월 31일~2000년 1월 1일
◆순례코스 : 서울 출발~속초낙산사 새벽예불~의상대 일출~건봉사 등공대
◆출발일시 : 1999년 12월 31일(금)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앞
◆동 참 금 : 4만원(아침, 점심식사 제공) 미리 접수바랍니다.
◆접 수 처 : 전화(02)732-1215~7 팩스(02)732-1207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새 천년 아미타불 호신불을 드립니다.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 원 자 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분
◆회 원 대 상 : 개인, 단체, 사찰
◆가 입 방 법 : 전화 및 우편

全國念佛萬日會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한국 역사인물 100人에 원효·서산등 스님 8명

새천년준비위 선정…해맞이·타종행사 실시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가 1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선정, 발표한 한국의 역사 인물 100인 명단에 스님 8명이 포함됐다. 선정된 스님은 △남북국시대 이전=원효·의상스님 △고려시대=의천·지눌·일연 스님 △조선시대=서산·사명스님 △대한민국=한용운 스님이다.

한편 새천년 맞이 불교관련 행사는 1월1일 △포항 해맞이 축전 중 만파식적 공연 및 6대종교 지도자 메시지 발표 △강릉 정동진 매향비 제막식 및 동해용왕 향목배 띄우기 △새즈믄해 종소리 전파 등이 있다. 타종은 12월15일부터 1월5일까지 매일 아침8시 사찰, 교회 등에서 각 종교별로 자율 시행되며, 새천년준비위 홈페이지(www.kmc.go.kr)에 종소리를 선보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네팔 카투만두에서 JGO지부 설립 및 현판식후 기념촬영한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진당정사.

진각복지재단 네팔등 지부 설립

(사)진각복지재단 성초 이사장(진각종 통리원장)과 진당 이사는 11월 25일과 28일 네팔과 스리랑카를 차례로 방문, 카투만두와 콜롬보에서 각각 국제지부인 JGO(Jin-Gak Order, The Joy of Genuine Oneness) 지부 설립식과 현판식을 봉행했다. 25일 네팔을 방문한 성초이사장은 네팔전통불교회와 함께 지부 설립식을 갖고 지부장에 나레쉬만박사를 위촉했으며 28일 스리랑카에서는 야팔라마테 와나타나스님을 지부장으로 위촉했다. 진각종은 이들 지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 지원, 빈곤해소,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등 국제구호사업에 적극 나서고 종교교류 및 민간교류를 통해 포교활동과 종단홍보를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본지 246호 23면 기사 참조) 이경숙 기자



◇1일 열린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 사진 오른쪽부터 유정길, 이하우씨.

자랑스런 불자상 이하우·유정길씨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과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사)불국토(이사장 정관)에서 선정하는 제7회 자랑스런 불자상을 수상했다.

이하우 학장은 해동중학교 교법사 및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을 각 10년씩 역임하는 동안 1000여명의 포교사를 양성한 공로로, 유정길 국장은 환경단체 워크샵을 지속 개최하는 등 불교환경사상 홍포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1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불국토의 밤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과 함께 제7회 보리방송문화상(본지 248호 19면 참조)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교차로

난치병 가정에 600만원 전달



현성 승가원 이사장은 3일 강북구청장실에서 강북구 관내 난치병 가정 3세대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돈은 월간 '소쩍새 마을' 신문이 후원자들로부터 모은 성금.

관음사 성역화추진위 창립



중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3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한라산 관음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창립대회를 봉행했다.

'21세기 불자의 자세' 법문



진철스님(통도사 주석)은 4일 우리는선우 토요 가족법회에서 '21세기를 맞는 불자들의 마음자세'를 주제르 법문했다.

선무도 홈페이지 개설



적운 세계선무도진흥회 회주 스님(경주 골굴사 주지)은 최근 불교 전통무술인 선무도(禪武道)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소=www.sunmudo.com

실직자 지원 일일찻집



영담 덕유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0일 부천시 원미구 상1동 403-1 서진프라자 지하 1층에서 실직자 가정 지원을 위한 일일찻집을 연다.(032)325-2161

무의탁 노인돕기 바자



지홍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장스님은 11월 25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무의탁 노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알뜰 바자'를 개최했다.

4천기 규모 납골당 기공



학운 대한불교불이종 총본산 용국사 주지는 10일 4천2백구의 유골을 안치하는 법당식 납골당 기공식을 봉행한다.

법장사 가족 송년법회



법장 서울 중계동 무진법장사 주지는 19일 오전 11시 사찰 전 신도를 대상으로 가족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동대 불교대학원 15기 정총



능화 동국대 불교대학원 15기 회장 스님은 6일 교내 상록원 3층 교수식당 별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방송 단합전진대회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4~5일 부곡온천 체육관에서 본사를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지방사 전체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단합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제4회 고창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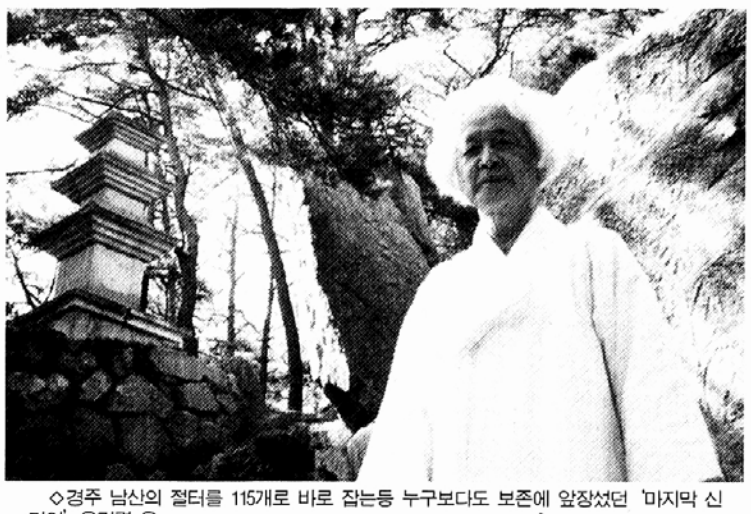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은 4일 전북 고창읍 늘봄가든에서 한국문협 고창지부가 주관한 제4회 고창문학상을 수상(수상작 〈국민화합은 남북분단 극복의 중심축〉) 했다.

'우파니샤드와 선' 특강



김호성 동국대교수는 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 무불선원에서 '우파니샤드와 선'을 주제로 특강한다.



◇경주 남산의 절터를 115개로 바로 잡는등 누구보다도 보존에 앞장섰던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 옹.

신라문화 보존에 평생헌신

향토사학자 윤경렬翁 별세

하얀 두루마기에 신선처럼 눈부신 백발로 경주 곳곳을 안방처럼 누비며 신라문화 탐구에 헌신해온 향토사학자 고청(古靑) 윤경렬(尹京烈) 선생이 11월30일 오후10시 15분 경주시 인왕동 자택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16년 함북 주을에서 태어난 윤옹은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민족'에 눈을 떠 우리 고유의 미(美)를 찾는 일에 몰두해왔다.

1935년 풍속 토우를 배우러 일본에 건너간 윤옹은 가식적인 일본 토우에 한계를 느껴 당시 개성박물관장이던 고유섭선생을 찾았다.

"참된 아름다움은 원래 있던 곳에서 싹이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라는 선생의 가르침에 자극을 받은 윤옹은 49년 경주에 정착, 1천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신라스러움'을 탐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윤옹은 평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며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아낙네나 익살맞은 이웃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라고 말해왔다. 또한 "석굴암에 삼천대천세계가 표현되어 있듯 작은 것에 큰 것을 담을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문화의 자랑이며 장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옹은 일본인에 의해 55개로 조사된 경주 남산의 절터를 직접 답사해115개로 바로잡았고 고속철도 경주노선의 도심통과를 반대하는데도 앞장서 경주의 훼손을 막았다.

또한 20여년전 아들이 차려주는 환갑잔치를 마다하고 그 경비를 남산 성역조사에 사용할 정도로 남산보호에 남다른 공을 들여온 '남산 수호신' 이었다.

윤옹은 경주어린이박물관을 개설하고 신라문화동인회를 만들었으며 〈불교동화집〉〈신라이야기〉〈신라의 전설〉〈신라의 아름다움〉〈경주남산〉〈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등 왕성한 저술활동으로 신라문화를 재조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1949년 경주에 한국풍속인형연구소인 고청사를 설립하기도 한 윤옹은 한국문화예술상(문화부문), 금복문화예술상(특별상), 조선미술전람회 입선,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특선 등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다.

한편 윤경렬옹의 영결식은 3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문화동인회장으로 엄수됐으며 시신은 화장돼 흥륜사에 봉안됐다.

영결식에는 성타 불국사 주지, 김일윤 한나라당 의원,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중 신라문화동인회장은 조사를 통해 "선생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면서 결코 한눈 파는 일이 없었던 신라연구의 선도자"라며 애도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청소년 성상담 사이트 떴다

이근후박사 '아! 섹스' 개설
전문가 20인 성지식등 보급



이화여대부속병원 정신과 이근후 박사(본지 논설위원·사진)가 11월 24일 청소년 성문제 상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아!섹스'를 개설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아래 98년부터 준비해 문을 연 이 홈페이지는 이박사를 비롯 이화여대 사회학과 김동일교수와 이화의대 신경정신과 박영숙 교수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박사는 "단순히 성에 대한 호기심뿐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성교육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닌다"면서 "3백여가지의 성관련 용어와 지식들을 통해 무분별한 성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터넷홈페이지는 성심리검사, 집중토론코너, 성칼럼, 부모교실, 성지식 등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소는 www.asex.org

이은자 기자

재생불량 빈혈 대학생 치료비 막막

호소 어촌마을인 경남 사천에 사는 이경훈군(25)은 지난 97년 '재생불량성빈혈증' 판정을 받고 2년6개월여동안 투병생활을 해왔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골수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 지난 8월 마침내 골수제공자를 찾게 됐다. 경훈군 아버지 이용기씨는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작은 논밭과 재산을 몽땅 처분했고 어렵사리 서울대학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후 쌓여가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도움주실 분은 새생명광명회 김기원교수(진주산업대학교)에게 연락하면 된다. (0591)758-6611, 017-580-2388. 계좌번호 : 농협(803-01-344384), 우체국(611376-0061216)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새천년맞이 특별수련 프로그램

TIBET불교 수련체험 안내

내 마음의 태양을 맞이합시다.

마음의 본성은 푸른 하늘과 같고 자성의 본질은 밝은 태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집착의 먹구름을 떨쳐버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태양과 자성의 푸른 하늘을 만나봅시다.
매주 주말을 이용한 "1박2일의 출가생활"을 경험하는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TIBET의 지혜와 명상"을 주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겨울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겨울 수련 일정표

차 수	대 상	기간(3박4일)	모집인원	회 비
제1차	일반인 대학생	1999년 12월 30일 ~2000년 1월 2일	50명	7만원 (교재비포함)
제2차	일반인 대학생	2000년 1월 6일 ~2000년 1월 9일	50명	5만원
제3차	가족단위	2000년 1월 13일 ~2000년 1월 16일	50명	5만원
제4차	불자교사 및 불교지도자	2000년 1월 20일 ~2000년 1월 23일	50명	5만원
제5차	일반인 대학생	2000년 1월 27일 ~2000년 1월 30일	50명	7만원 (교재비포함)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입산등록하고 일요일 오후 2시에 회향 하산합니다.
♣ 제5차 수련은 24시간 동안 단식, 단수, 묵언, 불면, 불와의 TIBET 특별수련 〈융뇌:NUNG-NEY〉이 함께 진행됩니다.

● 수련지도<Ⅰ> 쵸펠스님

쵸펠스님은 티벳밀교의 양대학파인 규메 밀교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불교와 영적인 교류를 위해 현재 대원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송광사 강원에 주1회 특강을 나가고 있으며 티베트불교 수행지침서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강의 ① TIBET 불교의 기초수행법
강의 ② TIBET의 정신문화
강의 ③ 바르도 세계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 수련지도<Ⅱ> 현장스님

대원사의 주지이며 염불선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와 중음신제도법
"죽음을 준비합시다"의 저자이다.
학습 ① 좌선 기공법, 육근참회법, 기공염불법,
학습 ② TIBET 절수행법·만트라학습
학습 ③ TIBET 불교 슬라이드 (사자의 서 비디오)

● 수련지도<Ⅲ> 혜진법사 (대원사 기도법사)

① 사찰예법
② 천봉산 등산(백제절터):용서와 축복의 산책길
③ 사경,사불지도

접수 방법

A4용지에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직업 ⑤전화번호 ⑥종교 ⑦희망차수 ⑧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 1999년 12월28일까지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손전등 담요1장

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여시아문)
2. 티베트의 지혜 (민음사)
3. 티베트 예술과 자연 (연지문)
4. 나를 보게 하소서 (민족사)
5. 죽음을 준비합시다 (우리출판사)

※위의 책을 수련참가전에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 대원사 교통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시내버스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혹은 군내버스이용
광주에서 1시간 부산·대구 3시간 30분
서울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됨

⊙ 접수처 : 전남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전 화 (0694)852-1755/853-1755
팩 스 (0694)853-0009
온라인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백제고찰·수련도량 천봉산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직장단체 세밑 자비행 '봇물'

성훈따주기 공덕회 군부대 진료…염주 · 음료등 보시

서울시청 심월회 노숙자 시설에 의류 · 침구 제공

전국 금융단불교회 소년가장에 생필품 · 성금 전달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내기가 절실해지는 계절. 세밑 한파를 녹이는 직장직능 불교단체의 자비행이 분주하다. 얇은 월급봉투를 털어 이웃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단체는 심우회, 수원교도소불심회, 수원구치소불심회,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서울시청 심월회, 국토연구원 국불회, 성훈따주기공덕회, 국민체육진흥공단무량회 등이다.

성훈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는 12일 화천 사창리 27사단을 방문, 혹한기에 감기를 비롯 근육통 및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장병들에게 따주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음료수, 빵, 합장주 등을 각각 1백개씩 보시한다.

군장병 불자 지원모임인 심우회(회장 이청정행)도 19일 양구 21사단과 2사단을 찾아 7백명 분의 합장주를 비롯 염주와 떡, 보온물통을 전달한다. 2사단에서는 2백5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도 봉행한다. 심우회는 또 12월 말에 양로원과 고아원도 방문할 계획이다.

수원교도소불심회(회장 고왕식)는 연말연시에 회원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모아온 기금으로 가족들에게 안부전화조차 할 수 없었던 불우재소자들에게 전화카드를 보시한다. 수원구치소불심회(회장 심재환) 역시 20일 천안 부처님마을에 불우이웃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청 심월회는 불자회원들 뿐 아니라 서울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밀레니엄 이웃돕기 운동'을 벌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7개 노숙자특별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숙자들에게 의류와 침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심월회 지도법사 조정봉씨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와 국토연구원 국불회도 오는 말일 경에 장애인들의 모임인 연화회와 소쩍새마을을 각각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한다

한편 전국금융단불교회는 5일 연꽃마을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의 보금자리인 '행복한 집'을 방문해 휴지등의 생필품과 옷가지, 성금 등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벌었다. 금융단불교회 산하 서울은행, 한국은행불자회도 각각 불우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보시했다.

각 단체의 이같은 자비행은 IMF의 터널을 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직능 불교단체 회원들에게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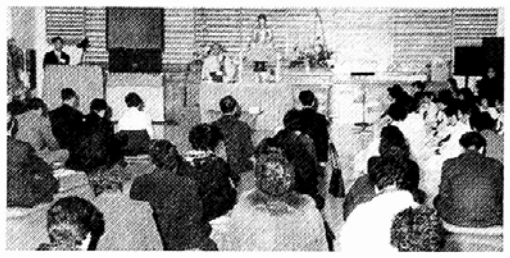


◇성훈 따주기 공덕회는 훈련에 지쳐있는 장병들에게 따주기 자원봉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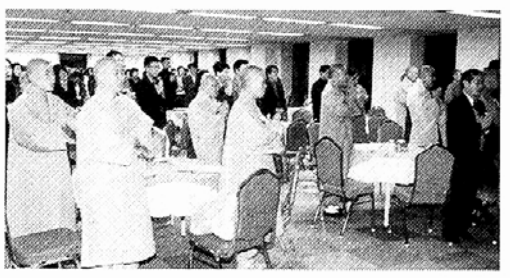
동국학원 녹원이사장 취임 축하연

제19대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취임 축하연이 11월 29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파계사 조실 도원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황수영 · 신국주 · 민병천 전 동국대 총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회 대경지부 창립3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대경지부(지부장 심업)는 11월27일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 대경지부 지도법사 득도스님,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장, 이재용 남구청장,고경순 자비의전화 회장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경불련 창립 8돌 기념식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흔)은 8주년 기념식 및 기금마련 만찬을 11월26일 세안프라자 2층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 포교국장 법경스님, 광명선원장 초격스님, 서강대 박광서 교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하기 위한 재 창립의 의지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복지관 합동연수회

부천 덕유 ·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부천스포피아는 11월27일 ~28일 이틀간 경기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합동으로 직원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60여 명의 복지종사자들은 한 해동안 시행해 온 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복지사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암 재가 선우회 창립

지난달 15일 무위정사서
서암스님 가르침 따라
부산등 지회도 잇단 출범

서암스님과 인연있는 재가자들의 모임인 서암재가선우회(회장 하만경)가 11월 15일 경북 무위정사에서 창립됐다.

중앙회 창립이후 서울, 대구, 경북, 경기지역에서 이미 지회 창립에 뜻을 모았으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지회가 창립총회를 겸한 기념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실천에 들어간다.

서암재가선우회 부산지회(회장 박영병)는 12월 12일 정각사에서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서암스님의 가르침과 선수행을 따르며 생활속 불법을 실천하는 참된 신행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하만경 중앙회 회장은 "경북의 조용한 토굴에서 시자도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서암스님의 수행력과 실천은 혼탁해진 현 불교에 반드시 받들어 널리 전해져야 한다"는 말로 서암재가선우회의 창립 목적에 대한 설명을 대신했다. 서암재가선우회는 지회별로 스님의 선수행을 따라 정진하고 내년쯤 각 지역별로 서암스님 초청 순회 법회를 개최해 선수행을 통한 상호교류와 포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속 서암선원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있으며 포교 및 교화사업을 위한 장학사업과 불우 이웃돕기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지회 박영병 회장은 "부산지역의 뜻 있는 재가불자들의 생활속 수행과 실천의 힘이 모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0일 불교산악인련 송년법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은현수)는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새 천년을 앞서 맞기 위해 20일 오후 5시 타워호텔에서 전국 39개 지회 1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대현그룹 창립 23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리는 이날 송년법회는 회원들과 환담하면서 지난 1년간 불교산악인들의 활동을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에 앞서 오후3시 본회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경과보고 및 예결산 심의, 신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02)2232-6948

강원 불교지도자와 대화

한화갑 총장…의견 국정에 반영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한화갑 고문(국민회의 사무총장)이 부산 · 대구에 이어 11월26일 강릉 현대호텔에서 강원지역 증진스님 및 재가 불교지도자와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흥사 주지 도후, 월정사 주지 현해, 낙산사 주지 지홍 스님을 비롯 각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 사찰 신도회장 등 55명이 참석했다.

한 고문은 "그동안 부산과 대구 불교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불교계와 많은 대화를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대 상 윤완수 기자
사진부문 고영배 기자

제3회 한국불교기자상 수상





제3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주간불교신문 윤완수 기자〈사진 왼쪽〉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대상에 '장묘문화 변해야 한다'를 기획연재한 윤완수 기자(주간불교신문)를, 취재보도부문에 '안동 봉정사 벽화훼손 방치' 건을 밀착 취재한 여태동 기자(불교신문)를, 기획보도부문에 '사찰과 자연'을 연재한 남배현 기자(법보신문)를 각각 선정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네팔불교를 영상으로 담은 본사 고영배 기자〈사진 오른쪽〉가 영예를 안았다.

불기협은 13일 오후6시30분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제3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갖는다.
02)734-0777

우리 모임에선

천불동 차기회장 선거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이경재)는 새 천년 네티즌을 이끌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온라인 상에서 11월 22일부터 회장 후보 추천 및 등록,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거쳐 5~11일 7일간의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후보는 25세 이상, 가입한 지 만 6개월 이상이 되는 회원 중에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금강회 北동포에 성금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인 금강회(회장 김형식)는 11월26일 한국불교언론인회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죽염 세수비누 120 박스와 성금 1백만원을 전달, 동참했다. 기탁물 및 성금은 7일 평불협 방북 대표단을 통해 전달된다. 02)719-4083

국불회 '절수행' 특강



국토연구원 국불회(회장 김의식 · 사진)는 11월26일 연구원 내 법당에서 명상아카데미 원장 혜봉법사를 초청, '절 수행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불동 부경모임 법회

하이텔불교등호회 부산 · 경남모임은 5일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법회를 열어 네티즌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회원간 유대를 강화했다. 이에앞서 충청모임은 11월30일 ID 백도령님의 집에서 〈아함경〉 강독법회를 가졌다.

경불회 교리공부

경희의료원 불자들의 모임 경불회(회장 황보추)는 21일 오후6시30분 연화사에서 12월 두번째 법회를 연다.

"연기관 바탕 생명 중시하는 시대온다"

도법스님 울산경불련 법문

울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한종식)은 1일 정토사 삼천불전에서 창립4주년 도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법스님은 울산신행단체연합회 조동환 회장, 조계종 울산신도회 김운철 회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인드라망 세계관과 삶의 철학'이라는 법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이 중심이 되어 모든 만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경불련 한종식 회장은 법회에 앞서 불교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지난 4년간의 살피고 "앞으로 환경운동을 비롯, 불교시민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모임이 되도록 한층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취 지 문

- 수행자의 귀감으로 중생의 빛으로 -

역사는 기록과 문헌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1600여년의 한국불교사에서 비구니 승가는 수행과 교화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으며, 그러한 전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방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즈음에서 우리 시대의 초상들은 기록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본각스님과 97학번 비구니들은 후대에 수행자의 표상을 전하고, 새 천년 불법홍포의 지침을 삼기 위해 비구니사를 편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비구니사」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로, 이의 편찬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대 비구니 승가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또한 한평생 수행으로 일관하여 훌륭한 경지를 이룬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행적을 널리 현창함으로써 불법을 선양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윤리적인 혼돈과 가치관의 변동이 극심한 이때 수행자와 성직자의 행동규범은 사회일반을 계도하는 준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청정승가의 가풍을 온전히 계승하는 비구니 승가의 행적은 현 시대를 맑히고 앞으로의 새 천년을 이끌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비구니사」는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 명멸해 간 비구니의 자취를 찾겠습니다.
「비구니사」는 철저한 수행으로 이타의 삶을 실천한 비구니를 발굴하겠습니다.
「비구니사」는 후세에 지난 시대 비구니의 수행상을 전할 것입니다.
「비구니사」는 새 천년 불법홍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구니사편찬위원회에 한국불교 전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대중 교화 및 가람수호 등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후대에 사표가 될 수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존경하는 스님들께서 '수행자의 귀감으로 중생의 빛으로'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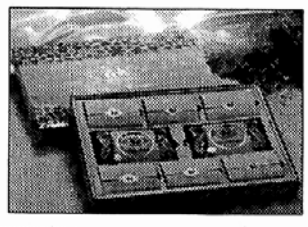
1999년 11월
비구니사편찬위원회 책임위원 **본각** 합장

비 구 니 사 편 찬 위 원 회

136-075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중앙승가대학교 內
Tel : 편찬위 사무실 (02)927-1627 책임위원 본각 (02)928-2078
팀장 (현진) 019-389-0788 Fax : (02)927-8984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결식아동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최근 한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15만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으며, 아버지의 실직, 부모의 가출 등 가정파괴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는 가정 또한 늘고 있다고 한다. IMF를 극복하고, 외환보유고도 6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아우성들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허기에 찬 배를 움켜쥐고 있다. 경제회복의 환호성도 그들에겐 먼나라의 이야기로 들릴뿐 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경제난을 극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들아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따뜻한 나라일 것이다.

다시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자. 〈편집자주〉

▨보살은 이웃들이 온갖 고통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보살의 집착없는 행이다.

〈화엄경 십행품〉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을 그 힘따라 보시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잡아함 노사경〉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增上心)으로 널리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香)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라. '원컨대 일체중생이 모두 가장 좋은 계향(戒香)을 얻고 일체 낙구(樂具)가 구족하여 모두 여의하여지이다.' 〈방등경〉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으리. 〈잡아함 환희경〉

▨대승에 이르려면 네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禪定)에 들어 반성하여서, 족한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비심(悲心)을 내어 중생을 양육(養育)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낱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 주는 것, 이것이 사문의 의무이다. 〈열반경〉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갓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면 양약(良藥)을 가려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如來大師: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 것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를 받을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하사 해탈케 하신다. 〈선교방편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네팔 한국대사관의 선교



금정스님
한불문화진흥원 이사장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기독교 신자가 50만명이라는 공식 집계가 11월 21일 발표되었다. 지난 몇년 사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모두 한국 기독교계의 공로(?)다. 이곳에는 120명 정도의 한국선교사가 늘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선교한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롬비니의 아쇼카왕 석주에도 빨간 십자가를 그어 대곤 해 혀를 차게 한다.

인도와 네팔은 기독교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머지않은 날에 네팔의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독교 선교를 공식화 할 것이라는 예측도 쉬운 일이다.

네팔 한국대사관의 직원들 조차도 무종교인인 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독교 신자다. 한국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절약차원에서 해외 공관 일부를 폐쇄할 때 이곳 대사관은 폐쇄 4순위에 들어 있었다. 당시 이곳 대사관에서는 "불교 성지가 있고 한국사원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불교계에 호소했다. 대각사 도문스님께서 구명운동에 앞장서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을 움직이게 했고, 월주스님이 정부에 건의한 결과 대사관이 폐쇄되지 않게 되었다. 당시에는 대사관 직원들도, 기독교 선교사도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폐쇄 위기가 넘어가자 또 다시 선교에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선교사는 앞서고 대사관 직원들은 뒤에서 행정적으로 교묘히 뒷받침하는 형태다.

더욱이 최근에 교황이 인도를 방문하며 "인도사람들을 개종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까지 설쳐댈 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목.소.리

새천년, 과대포장 아닌지



정우스님
서대문 백련사

소위 새천년이 한달도 안 남은 요즘 각 매스컴들은 연일 밀레니엄 관련 소식들을 전한다. 서력기원은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연대이기에 기독교 문명권이 아닌 나라 또는 비기독교인들은 조금은 초연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불교계 신문들 조차 오히려 편승하는 것같은 분위기에 씁쓸한 생각을 지울수 없다.

밀레니엄 새천년이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천년왕국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세기말적인 종말론과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종교현상들은 거의 전적으로 1,000 또는 2,000이라는 숫자에서 비롯되는 것일 게다. 서구 기독교문명과 그 위세에 물들어사는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숫자로 보여주려 하고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에 따라 움직이려 한다. 음식을 섭취해도 칼로리라는 단위로 계량화 수치화하고 성적을 숫자로 매겨 일류 이류를 구분하며, 영업실적도 숫자로, 월급도 액수로 따져 사람의 능력을 관단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2,000년만 되면 마치 별천지가 열리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종말과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불자라면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새천년'이 아닌서기 2,000년을 맞는 참지혜일까? 평상심이 도임을 알고 있는 불자라면 2,000년 아침에 뜨는 해나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세상변화의 근본은 바로 내마음에 있음을 참구해 나가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이 날짜 변경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출을 보겠다고 부산을 떠는 행동보다 훨씬 고귀함을 잘 알고 있기에...

서세동점에 의해 말살되다시피 한 동양정신, 불교정신 또는 우리고유의 정신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적용될 공통관용어처럼 행세하는 '새천년' '밀레니엄'에 매장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1부기자〉

최근 여권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계종 소속 중진스님 두 명을 포함한 3명의 스님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사실과 관련 교계에서는 '스님과 정치'라는 화두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여론 주도층인 정치권에 대한 도교 활성화를 이루고 불교관련 민원을 원활하게 허결해 불교 위상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불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스님들이 타종교를 믿는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아 성직자로서의 위상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이 지난 9월1일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 불교문화원을 설립해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나선 것은 점차 사회적인 힘을 잃고 있는 불교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하는 전자와 같은 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직

스님과 정치

접 정치집단인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정치인 교화'를 통한 '불법 홍포'라는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포교방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온갖 모략중상과 파렴치가 횡행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아닌가. 아무리 높은 원력과 대의명분을 갖고 포교에 임하더라도 진흙탕을 덮어쓰기가 쉽다는 걱정이 앞선다.

조선시대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스님은 중종때 발생한 법난으로 만신창이가 된 불교를 소생시키기 위해 신심 깊은 문정왕후와 함께 명종대의 불교중흥을 이루었지만, 결국 유생과 관료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기에 이른 적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행자인 스님들이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그리고 불교계는 내년 3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행보에 휘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사랑과 참회 편지쓰기 사부대중 동참하자

248호 현대불교신문을 보니 전국불교운동연합이라는 곳에서 이달부터 108일동안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참으로 요사이 불교계에 맞는 운동이라 생각된다. 부처님말씀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이 엷어져서 악의 근본이 사라진다고 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다. 허울만이 아니라 진실로 부처님법을 따르는 불자들이라면 매일 매일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에라도 동참했으면 한다.

특히 종단 분규로 불교계와 이 사회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은 진실로 참회하고 그러한 참회가 들어있는 글을 불자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임효성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환경보호 캠페인 불교계 앞장서야

요즘 사찰에 참배라도 가면 사찰입구 계곡마다 러브호텔 카페 식당 등이 점점 더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보금자리만은 훼손하거나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학대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제대로 살수나 있을 것인지 두려워진다.

불교계는 내분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신 생명관, 세계관이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갔으면 한다. 일체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으며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를 깨닫도록 국민들에게 계몽운동을 펴자는 것이다.

김춘환 〈인천시 남구 도화2동〉

와선호흡 · 행선염불 몸과 마음 건강 비결

요즘들어 3천배, 만배 등 기도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평소 내가 해본 경험을 토대로 기도하는 불자들을 위해 몇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싶다. 먼저 호흡에 맞춰 절을 하면 숨차지 않고 헐떡거림도 없어지며 힘이 들지 않는다. 또 저절로 숫자도 헤아려진다. 또 한글 금강경을 읽으면서 한다면 목탁을 치지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으며 리드미컬하게 신명나게 독경을 하면 된다. 그러면 가운데 단전에서 차크라가 저절로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라도 있다면 저절로 녹여 풀어지고 신심이 절로 솟아오른다.

와선호흡과 행선염불, 선체조는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눈이 충혈되는 분들에게 좋으니 꾸준히 하기를 바란다.

손, 발, 허리등이 차가운, 몸이 냉한 사람은 매일 30분씩 절을 하면 건강해지니 따로 운동한다고 시간을 낼 것이 아니라 108배를 정성껏 해 볼 일이다.

김용기 〈경기 양평 법왕정사수행원〉



낙서장으로 변한 국보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은 국보 62호로 지정된 온 국민의 소중한 성보이다. 그런데 미륵전 뒷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뒷벽이 온통 못 같은 걸로 긁어 새겨놓은 낙서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으로 회복되기가 힘든 것이다.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우리 불자들부터 소중히 여기고 아끼자.

〈이영준, 전주시 금암동〉

회당학회 재창립에 따른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당학회는 회당사상과 불교 및 밀교의 교리수행·의식·체계에 대해 조사, 연구,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창립되었으나, 활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학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회당학회**를 대한불교 진각종단이 관리하는 학술신행단체로 면모를 일신하여, 불교학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한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다 음

모집기간
진기 53년 12월 11일(토)까지 ~ 1차 모집

모집대상
제한 없음

접수방법
학회 입회원서 1부 작성
(연회비 및 기타사항은 추후 통보함)

접수 및 문의처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
대한불교 진각종 교육원내 회당학회
전화 02)913-0133,0134 / 팩스 02)913-0135

개업인사

삼보에 귀의하옵고

그동안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선배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금번 소생이 하기의 장소에서 여러스님들의 힘을 빌어 불교용품점을 개점하였기에 이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불사와 행사에 필요한 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서적 및 인쇄물(현수막) 및 모든 불사 상담도 정성껏 해드리오니 많은 지도와 이용 바라오며 먼저 지면을 통하여 개업인사 드립니다.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1-45 서어중 앞
(프란시아 가구 2층 사하불교 연합회관 내)
TEL : 051)205-4535~6
FAX : 051)205-4537

사하불교 연합회 부설 삼보불교 예술원
혜정 박 신 영 합장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교육기간
1년(200년 2월 ~ 2001년 1월)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입학식
2000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교육기간
1년(200년 2월 ~ 2001년 1월)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입학식
2000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요만원(₩50,000)

■자격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卍 도움을 청합니다 卍

소승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산25-6번지, **자비사 건립 불사** 중에 어려움에 처해 전국에 불자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건립불사**에 복을 지으시고 **무량대복**을 받으십시오

소승이 **불사건립** 원만히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정진하여 **성불**을 이루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불자님께 소승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달마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액(水厄)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病魔)를 막아 건강(健康)을 지켜주고 액운(厄運)을 물리치고 재앙(災殃)을 방지하며 사업(事業)이 잘되고 가정(家庭)에 행운(幸運)을 가져다 준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불사에 복을 지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달마도 표구 완성품(40cm×75cm)

1구좌 5만원 입금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계좌 312892-0033277
자비사 : (0475)731-1632
스님 휴대폰 : 018-851-1631

실상산문 진면목 드러나다

선방 추정 건물지-국내 최대 목탑지 '발견'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산된 실상산문(實相山門·828년)의 진면목이 드러날 전망이다.

96년부터 전북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 발굴을 도맡아 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은 실상산문의 초창기 선방으로 보이는 건물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목탑지를 발견,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실상산문의 선방으로 추정되는 곳은 약사전 뒤편에서 발견된 건물지이다. 면적이 무려 216평인 이 건물지는 남북 7칸 동서 5칸의 남북정방형으로, 온돌시설을 갖춘 단일 건물지 가운데 궁궐을 빼고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구들을 놓기 위해 양쪽에 돌로 쌓아 놓은 고래가 동, 남, 북쪽과 중앙에 놓여 있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 건물지의 유구층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막새편이 출토되고 있다.

조사단 김미란 연구원은 "사찰에서 큰 규모의 온돌 건물은 대부분 선방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스님들의 지적"이라며 "유구층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이 같은 추정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선종계 사찰로 알려진 실상사이지만 현재 경내에 선방이 없어, 절에서 2km가량 떨어진 백장암을 선방으로 이용해 왔다. 따라서 이 건물지가 초기 선방으로 확인되면, 한국 선불교의 근본 수행처인 실상산문의 선방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단은 가로 세로 똑같이 23.2m인 목탑지를 발견했다. 정방형 7칸인 이 목탑지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로 알려진 황룡사지 목탑의 22.97~22.27m 보다 가로 0.11m, 세로 0.93m가 크다. 면적도 127평으로 황룡사지 목탑의 108.2평보다 18.8평이 넓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탑지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곳 목탑에 관한 문헌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중심 기둥을 받치는 심초석이 놓인 점과 초석 배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목탑지인 것은 확실하며 기단토 등을 분석하면 축조 연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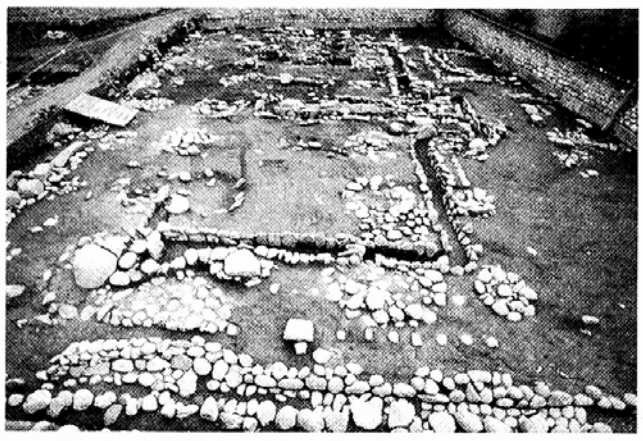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동현(연세대 객원교수·고건축) 씨는 "선종계 사찰에 대형 목탑이 들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실상사가 역사의 전면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규모'의 목탑지라는 데만 관심의 초점을 모으기보다는 이 곳에서 발굴된 유물과 관련 문헌을 토대로 정확한 건축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찾을 때, 실상사 목탑과 얽혀있는 당대 불교문화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불교문화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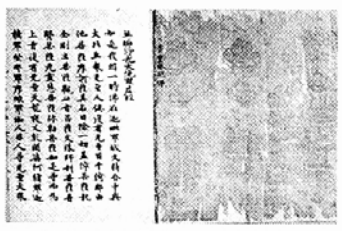
목탑은 사리를 봉안할 목적으로 세운 목조의 중층누각 건물로 국내에서는 전부 소실되고 터만 발견되고 있는데, 백제의 부여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 익산 미륵사지가 있으며 신라의 목탑지로는 황룡사지 등이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은 이번 발굴을 토대로 〈실상사 유적 조사 보고서〉(가칭)를 12월 중 발간하는 한편 오는 2천년까지 실상사 초기 가람을 복원키 위한 조사·발굴을 계속할 계획이다.

실상사=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실상산문 초기 선방으로 추정되고 있는 '제8 건물지' 발굴 현장. 악사전 북동쪽에 위치한 이 곳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조각들이 출토되고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사경변상도.

성암본 사경변상도 최초 필사경전 맞나

서예가 한상봉씨 이론제기
서체등 분석 "8세기초 아니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는 과연 최초의 필사본 경전일까.

서예가이자 재야 금석학자인 한상봉씨가 이 유물의 연대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론(異論)을 주장하고 나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성암고서박물관이 공개했던 이 유물은 필사본 경전과 그 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구성된 것으로, 국보 제196호 '무구정광대방광불화엄경'(호암박물관 소장)보다 50년이나 앞선 것으로 발표돼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한씨는 "이 유물은 고려시대에 제작됐으며, 필사본과 변상도는 후대에 누군가가 배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씨는 우선 성암본은 고려시대 성행하던 당 시대의 해서체이며 변상도의 글씨체와 사경의 글씨체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상도에 적힌 '세존영산설(世尊靈山說)'의 영산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중인도 마갈타국을 가리키며, 사경에 나오는 '가비라성(迦毘羅城)'은 부처님이 태어난 곳으로 그림과 본문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질과 보존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성암본 사경변상도가 신라시대 봉안된 것이라면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원로 서지학자인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지난 70년대에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증을 부탁해왔을 때 비슷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며 한씨의 주장에 동의했다.

미륵사지석탑 해체 2010년 복원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사진)이 내년부터 해체·복원된다.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그 동안 '현상태 보수'와 '전면 해체·복원'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미륵사지 탑을 전면 해체·복원키로 하고, 연내 해체를 위한 가설 덧집과 보관창고 설계를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밀 실측을 통해 탑 도면을 작성하고, 사진촬영과 기록 등을 마친 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 해체에 들어간다. 복원까지는 10년 안팎 동안 8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탑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키 위해, 현재 남아 있는 6층의 모습으로 복원할지, 원형인 9층으로 할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제 무왕 때(600~641) 축조돼 현존 국내 최고·최대로 확인된 이 탑은 1915년 콘크리트로 둘러 현재의 형태를 유지해왔으나 97~98년 정밀진단결과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석재에 균열조짐이 나타나는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의 석탑' 사이트.

문화재 관련사이트 150여개
클릭! 궁금증 푸세요

우리나라 각종 문화재의 종류·양식·역사적 가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채롭게 개설되고 있다.

대부분 불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화재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있는 이들 홈페이지는 국보·보물·무형문화재 등의 사진·동영상·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다.

150여개 사이트가 개설돼 있는 문화재 관련 홈페이지는 문화재기행·사찰 순례등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미리 관련 자료를 검색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역사공부에도 유익하다.

문화재관리국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일반인을 위한 문화재 및 역사교육강좌안내·전문가마당·문화재탐방 등으로 꾸며졌으며, 우리나라의 성보문화재를 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는 문화재를 불상·불화·탑등 각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밖에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특정 문화재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주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관리국=www.ocp.go.kr/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한국의 석탑=http://kitel co.kr/~sunghoon/pagoda/
△팔만대장경=korea.insigh.co.kr/korean/biocks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서=my.netian.com/ryoz/main.htm
△한국의 사찰 탐방=temple.buddhism.or.kr/kyungki.html
△한국미술사=galaxy.chamnneli.net/kwmooks/
△달마넷=www.dharmanet.net/login.asp
△부다피아=www.buddhapia.com

박물관의 문화상품 '한자리'

14일까지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서 전시

염주를 본뜬 열쇠고리, 도자기로 된 모형 축음기, 나무로 조각한 탈….

1일~14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는 이색 '문화상품전'이 열린다. 지난 7월 출범한 한국사립박물관회(회장 인병선) 회원들이 그 동안 자체 개발한 문화상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탈, 민속극, 불교유물, 책, 옹기, 축음기, 섬유, 등잔, 고건축 등 제각각 특정 방면에서 오랜 정성을 들여 온 우리나라 민간박물관, 미술관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약 200평에 이르는 전시장에는 목아박물관 등 24개 참가 박물관, 미술관 별로 전시공간이 마련돼 문화상품과 함께 각종 자료들이 전시된다. 또 우리나라 민간박물관, 미술관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형 멀티비전도 준비되어 있다. 10일 오후 2시 '문화상품과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는 가수인 조영남씨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전시기간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된다.(02)732-6458

문화 소식

통도사 성보박물관 우수박물관상 수상

통도사성보박물관이 '99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 평가'에서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돼 1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우수박물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문화관광부가 국립·사립 박물관에 대한 문화기반시설의 경쟁력, 자발적 개혁 그리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우수 문화기반시설 인센티브제에 따라 ▲자료 및 유물 구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제작 등에 대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 전통문양

한국의 전통문양을 한 눈에 살필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28일부터 '이일균의 한국의 이미지' 展을 갖고, 문화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전통문양 40여점을 일러스트로 재현한다. 이 전시회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되며, 전시 기간동안 '우리 것'이라는 주제로 작가 이일균(대구보건대 사업디자인과) 교수의 강연도 마련된다. (0561)774-1950

'동승' 출연자 공개모집

영화 '동승'을 촬영하고 있는 (주)스퀜트럼필름은 '동승'에 출연할 108명의 새싹불자와 여성불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9~11세 남·여 아동과 30~50세 여성불자이며, 28일 신촌 봉원사에서 촬영하는 '영산제' 장면을 함께 찍는다. 아동들은 이날 삭발·출연한다. (02)929-1070

'티벳의 미술전' 연장

티벳 불교미술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본격 소개하여 화제를 모았던 화정박물관의 특별기획전 '티벳의 미술' 展이 12일까지 연장된다. 이 전시회는 만다라, 여래, 수호존, 분노존 등의 불화와 불상, 불탑, 경전등 티벳 미술품 1,3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02)798-1954

고승·중견작가 서화전

한국고승 및 중견작가 서화전이 8일부터 14일까지 백상기념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서화전에는 석주·송월·인법·수안·동성 스님을 비롯 서예가 윤길중·신규호 씨, 화가 박원호·김종국 등이 서예와 수묵화 197점을 선보인다. 특히 석주(칠보사 조실)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열반한 경봉·혜암 스님 유작을 비롯 작품 1백여점을 희사했다. (02)723-7622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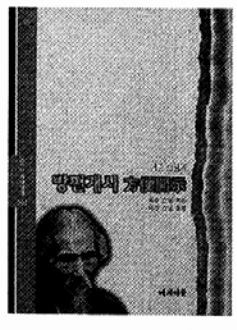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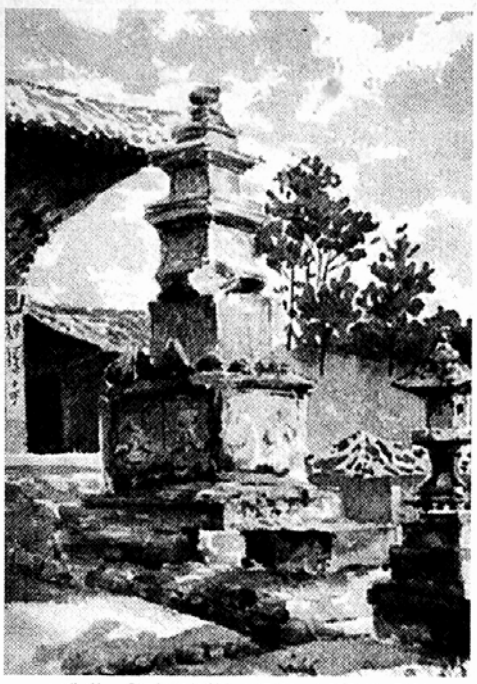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미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步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력하였고, 56세 때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베버는 금강산여행중 비경을 수채화에 담았다. 사진은 신계사 대웅전앞 석탑과 석등.

獨 베네딕트 수도자가 본 1925년 금강산의 사찰들

'수도자와 금강산' 김영자 옮김



1925년 6월 2일, 벽안의 한 수도자가 금강산 장안사를 찾았다. 55세의 독일인 수도자 베네딕트 노르베르트 베버가 바로 그다. 그가 금강산을 찾은 이유는 산속의 '불교성전'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앞서 금강산을 여행한 지리학자 비숍(1894년), 영국 외교관 캠벨(1889년), 학자이자 선교자인 제임스 게일(1889년), 영국인 기자 해밀턴(1903년)의 시각과는 천양지차였다.

캠벨이나 비숍은 "절의 무식한 승려들이 뜻도 모르면서 불경을 중얼거린다"라고 묘사했고, 해밀턴이나 게일은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아 기록했던 것에 반해 베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수도자와 금강산〉(푸른숲)은 노르베르트 베버가 열흘간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쓴 여행기이다. "신비로운 불교세계와 자연의 비경이 잘 어우러진 금강산 산행은 내게는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금강산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적고 있다.

"세속을 떠난 수행자들의 거처가 되었던 이곳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런 생활마저 극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면 불교에 대한 경외감을 금할 수 없다." "세속을 피해 깊은 정적에 싸인 금강산 암자들은, 잃어버린 천국의 한 부분으로 느껴졌다…."

그의 금강산 여행은 억척스럽다. 장기간의 산행으로 무릎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금강산의 비경을 찾아 구석구석 누빈다. 내금강 장안사를 시작으로 비구니 암자 보문암, 백화암, 표훈사, 정양사, 유점사를 거쳐 해금강 신계사로 발길이 어어지는 것이다.

김영자씨(독일 레겐버그대 교수)가 번역한 〈수도자와 금강산〉은 이국인 수도자를 통해 75년 전 금강산의 생생한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살펴보게 하는 또다른 재미를 준다. 옛 기행문이 소중한 것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옛날과 지금, 선인과 후인의 대화 통로를 열어 준다는 데도 있다. 값 6천5백원.

불화서 민족의 역사 보다

성보문화재硏 '한국의 불화' 4권 펴내

금산사·선운사·대학도서관 소장 탱화 자세히 소개

불화는 신앙과 경배의 대상일뿐 아니라 역사와 함께 생성 발전해 온 민족의 전통회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잦은 환란과 인식부족으로 수많은 불화가 훼손 망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은 95년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조계종 본사를 중심으로 불화의 명칭, 봉안처, 조성연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불화집은 13권 〈금산사 본말사편〉, 14권 〈선운사 본말사편〉, 18권 〈대학박물관 1-동국대편〉, 19권 〈대학박물관편 2〉 등 모두 4권이다.

13권은 조계종 17교구 본사인 금산사를 비롯 67곳의 본말사 92건 105점이 도판으로 수록돼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불화는 금당사괘불탱(1962년·보물 제1266호)과 안국사괘불탱(1728·보물 제1267호)이다. 금당사 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을 영락장엄한 보살 형상의 보신불로 표현하고 있다. 안국사괘불탱은 조선후기의 가장 뛰어난 화사로 손꼽히는 의겸스님이 조성한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상사 약수암 아미타후불목각탱(1782년·보물 제421호)은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각탱으로 주존불을 따로 조성하여 끼워넣은 기법이 독특하다.

14권은 선운사를 비롯 말사의 불화 56건 66점이 실려 있다. 관심을 끄는 작품은 개암사 괘불탱(1749년·보물 제1269호)과 그 초본이다. 이 탱화는 의겸스님을 비롯 모두 13인이 조성한 것으로 화폭 크기만도 1m208cm×868.5cm의 초대형으로 채색이 화려한 수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의겸스님 친필로 알려진 초본이 전해지고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 이밖에 선운사 대웅보전에 장엄된 후불벽화는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주축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봉안하고 있어 도상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겸스님을 비롯 13인이 조성한 개암사 괘불탱은 초대형으로 채색이 화려한 수작으로 손꼽힌다.

18권은 동국대 서울 및 경주캠퍼스에 소장된 장곡사 삼신불탱(1741년)과 석가모니후불탱(1748년), 아미타후불탱(1708년)등 54건 58점의 불화를, 19권은 홍익대학교 수다사삼장탱(1731년), 원광대와 고려대 감로탱을 비롯 각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탱화의 도판을 각각 싣고 있다.

성보문화재 연구원은 지금까지 16권을 발행했다. 내년 마곡사·법주사·국립박물관편 4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1차분 20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용어해설집〉과 불화와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하여 별책으로도 펴낼 예정이다. 값 각권 9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인도철학의 지향점 '해탈'

이거룡씨 '인도철학사' 완역 출간

20세기 인도사상계를 대표하는 철학자 라다크리슈난(1888~1975)의 〈인도철학사〉(전 4권·한길사)가 완역 출간됐다. 인도철학과 사상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인도철학자 이거룡씨(40·동국대 강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였다.

〈인도철학사〉가 명저로 손꼽히는 까닭은 베다·우파니샤드·바가바드기타 등 힌두교의 근본경전에서부터 자이나교·불교 등에 이르기까지 인도전통사상을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다크리슈난이 말하는 인도철학의 끝은 해탈(解脫)이다. 전통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해탈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인도철학을 구제의 도(道)이자 그 자체가 종교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결국 인도철학은 단순히 삶을 해석하고 이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전환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도철학사〉가 명저로 평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서사상의 비교를 통해 인도철학을 세계무대에 올려 놓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주석에서 탈피, 각 학파의 근본경전에 입각해 저자의 창조적 견해를 펼친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그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의 사상체계를 독특한 시각에서 도출해 낸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라다크리슈난은 불교를 힌두교의 발전 또는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붓다의 절대 존재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또는 브라흐만과 사상적 토대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논리이다. 또한 자이나교가 불교의 한 분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단정한다. 자이나교의 창시자 바르다마나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종교라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 불교나 자이나교는 심오한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불교가 힌두교와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자연사(自然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값 전 9만원.

화제의 책

케이크와 부처 | 김혜경 옮김



불교서 배우는 생생한 삶의 지혜

불교의 진리는 생활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불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문제는 불교의 교리가 어렵고 실천하기 힘들다는 선입견에 있다. 불교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필집 〈케이크와 부처〉(불일)가 나왔다.

불교적 생활방식이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일러주는 책이다. 나누어 먹어야 제맛인 '케이크'가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야하는 현실을 상징한다면, 당연하게도 '부처'는 깨달음을 상징하는데, 이 둘의 만남은 곧 현실 속에서의 '깨닫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현실속에서 실천하기를 곡진하게 당부한다. 글의 형식도 다채롭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형식,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 생활 속에서의 불법 실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점에도 독자들의 눈을 틔워 준다.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2	금강경 강해	김 용 옥	통 나 무
3	풍경	원 성	이 레
4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5	원효어록 100선	이 영 일	불교춘추사
6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7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8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9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10	산사의 미를 찾아서	박 보 하	다른세상

도서 안내:(02)737-0695

해외신간



▲자신의 환영(자네트 가쵸 지음)= 티벳어로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가쵸', 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의 수행관을 엿볼 수 있는 〈자신의 환영(Apparitions of Self : The Secret Autobiographies of a Tibetan Visionary)〉이 출간됐다.

티벳 문학에 나타난 '가쵸'를 분석하고 있는 징메 링파(1730~1798·티벳)의 〈특별한 자서전〉을 미국의 종교학 교수 자네트 가쵸(엠헐스트 대학)가 번역한 것이다. 자네트는 이 책에서 동·서양의 문학과 철학에서 정의된 '깨달음'을 비교하면서 티벳의 깨달은 자, 즉 '가쵸'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다.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간행 ISBN 0691009481



▲서양의 참여불교(크리스토퍼 퀸 지음)= 서양불교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인 참여불교운동에 대해 궁금한 불자가 있다면 〈서양의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in the West)〉를 읽어 봄직하다.

60년대 이후 30여 년간의 미국 참여불교 운동사를 밀착 조명한 이 책은 미국 참여불교의 '역사' '인물' '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앨런 긴스버그, 잭 케로악 등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불교 1세대인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 작가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이들이 반전, 반핵, 폭력, 평화, 인종·성차별, 노숙자, 에이즈 환자 등을 주제로 각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글도 수록했다. Wisdom Publications 간행 ISBN 0861711599



▲일상에서의 선(데이비드 스코트 외 2명 지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원을 평화로 가득한 안식처로 가꿀 수는 없을까. 〈일상에서의 선(Simple Zen)〉은 선(禪)의 경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열어갈 것인지를 선험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특히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의 수행법이 왜 서구인의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도 반면 교사가 될 것 같다. 미국의 저명한 일러스트 화가 시안 에반스의 삽화도 책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Bay Books 간행. ISBN 1579590586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2000년 맞이 축하 행사

행사 기간 :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본 행사는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E-mail : oshok@chollian.net

'티벳 死者의 書(Bardo)'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9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5,000원)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르도는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며, '중음기(中陰期)', 혹은 '아스트랄(Astral)계'라고도 한다. 이 바르도 명상은 바르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바르도의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명상법이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를 기초로 하여, 오쇼의 명상에 대한 현시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쇼 삶과 죽음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배경 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항식 / 목소리 : 장두석

2 2,000명에게 오쇼 타임즈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오쇼 타임즈 한국어판' 2호에서 7호 중에서 1권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 1호 - 제3의 눈(절판) / 2호 - 전생(前生) / 3호 - 최면 / 4호 - 요법과 명상 / 5호 - 관계, 유명한 20가지 요법 / 6호 - 아틀란티스의 비밀, 뉴에이지와 명상 / 7호 - 탄트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삶은 환희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별자리

3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2,000년을 맞아, 전화나 팩스, E-mail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단위로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예 : 20,000원 구입시 2,000원, 40,000원 구입시 4,000원,...).

▶ 대상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제작된 전 품목(바르도와 다이어리는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품 목록이 들어 있는 '황금꽃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4 2000년,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관매되는 책이나 테잎들을 전화나 팩스, E-mail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 중 매년 4명을 추첨하여 인도 푸나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추첨은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1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 1차 추첨일 : 2000년 1월 17일(월), 오후 1시



5 추억을 위한 축제 밀레니엄 송년 파티

천 년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낼 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 날짜 : 1999년 12월 25일(토) / 오후 6시 ~ 10시 ▶ 회비 : 2만 원
▶ 미리 예약하십시오

'새로운 2000년'을 예약하십시오

2,000년도 오쇼 다이어리와 캘린더, 아름다운 오쇼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인도판 오쇼 타임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약 마감 : 1999년 12월 15일
▶ 판매가 : 4만 원

황금꽃의 책과 테잎들

책

	거워는 밖에 있다	12,000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	12,500
	누구도 죽지 않는다	12,000
	제3의 눈을 찾아서	12,000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	9,000
	오쇼 젠(禪) 타로(Tarot)	37,000
	비의(秘儀)의 심리학	8,000
명상 음악(몸/마음을 이완시켜주는 편안한 음악)		
CD	사랑하는 이의 정원	13,000
CD	바쇼의 연못	"
CD	만명의 붓다들	"
CD	자유를 즐기는 붓다	"
CD	장미꽃 향기	"
CD	신성무(神性舞)	"
TAPE	사랑하는이의 정원	5,000
TAPE	바쇼의 연못	"
TAPE	만명의 붓다들	"
TAPE	자유를 즐기는 붓다	"
TAPE	장미꽃 향기	"
TAPE	신성무(神性舞)	"
TAPE	소나무 그림자	"
TAPE	다섯 손가락	"
TAPE	흐르는 강물에게 Yes	"
TAPE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
TAPE	순간에서 순간	"
TAPE	웃고 있는 복돌	"
TAPE	직관(直觀)	"
TAPE	새벽을 날다	"
TAPE	열린 창문	"
TAPE	내면의 붓다	"
TAPE	구름 지켜보기	"
TAPE	피안(彼岸)	"
TAPE	사랑은 초대이다	"
TAPE	빈잔의 차, 십우도 (90분)	6,000
	본래의 얼굴 (90분)	6,000
	심묵의 꽃들 (")	"
명상법(명상을 직접 하는 데 사용되는 배경음악)		
CD	디아니믹(동적) 명상	13,000
CD	쿤달리니(몸의 떨림) 명상	"
CD	나다브리마(허밍) 명상	"
CD	나타라지(춤) 명상	"
CD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50,000
TAPE	다이나믹/쿤달리니 명상	6,000
TAPE	구리상카/데바바니/기도 명상	"
TAPE	나타라지/나다브라마 명상	"
TAPE	만달라(중심)/칼링(회전) 명상	"
TAPE	차크리(chakra) 소리 명상	"
TAPE	차크라 호흡 명상	"
TAPE	일곱 차크라를 위한 소리	"
TAPE	황금꽃의 비밀	"
TAPE	미스틱 로즈(웃음) 명상	"
TAPE	무심(無心) 명상	"
TAPE	저녁 시트상(Satsang) 1~7번	각 6,000
TAPE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28,000
TAPE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5,000
TAPE	비피싸니 명상법(강의)	6,000
특집 비디오 시리즈		
1	인도 오쇼코문 인터내셔널	20,000
2	다이나믹 명상	14,000
3	떠오르는 달	17,000
4	신성무(神性舞) 공연 실황	20,000
5	신인류에 대한 선언	20,000
6	내 꿈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16,000
7	이침 저녁 명상	20,000
강의 비디오 시리즈		
	오쇼의 선별된 강의 시리즈 1~16번(각 1시간 20분)	각 20,000
	오쇼 타임즈 1년 구독료	10,000

석굴암 연구 다각적 접근

신라문화선양회 10~11일 학술회의

신라문화선양회는 10일~11일 '석굴암의 신연구'라는 주제로 제21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신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되는 학술회의에서는 '석굴암 건립의 정치·사회적 배경(곽승훈)' '석굴암 본존불 및 내벽 불상 연구(박형국)' '토함산 석굴의 점정과 그 배경(장충식)' '석불사의 건축 원형과 보존(윤재신)' '석굴암과 중국 석굴사원의 관계(배진달)' '석굴암의 연구사 정리(박찬흥)' '석굴암의 경관해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홍광표)' '우리 나라 역사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서태양)'가 발표된다.

'화엄사상'으로 본 '온생명' 상즉상입의 연기론적 생명관

양형진교수, 동아시아문화포럼서 발표

오늘날 세계는 과학이 지배한다. 그런데 인간의 복제까지 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과학이 반드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된다. 하지만 '과학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소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욱일승천하는 과학의 기세 속에서도 보다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할 새로운 가치를 찾는 지적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동아시아문화포럼(회장 송하경)은 4일 성균관대 종합강의동 31406호에서 '새로운 생명관과 문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려대 양형진 교수(물리학)는 '생명 세계에 대한 화엄적 이해'를 주제로 새로운 생명관을 정립하고 이에 토대를 둔 문명관에 대해 발표했다. 양교수는 과학자적 소명감으로 '은 삶'과 '온생명'의 회망과 가치를 일깨워 온 서울대 장회익 교수(물리학과)의 '온생명론'을 화엄불교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온생명'은 자족적인 생존이 가능한 단위로 지구 전체의 물리 화학적 구조에 정신과 경험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양 교수는 "불교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존재자들도 상즉(이것과 저것이 서로 같아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법계에 있는 일체 사물의 상호동일성을 말한다)하고 상입(서로 걸림이 없이 융섭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깨달음을 연기론이라는 보편적 세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기론적 입장에서 생명 현상에서의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세계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낱생명들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낱생명 이상의 광범위한 세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형진 교수

양 교수는 또 생명세계가 상즉과 상입, 육상원융(여섯 상이 원만하게 융섭해 상즉상입한다는 것)의 구조를 갖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온생명론은, 지구상의 전생명계 뿐 아니라 생명 세계와 무생명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엄이 요구하는 생명론의 구조는 모든 생명들의 보편적인 존재 방식을 근거로 낱생명의 존재방식을 설명하여야 함은 물론 무생명계가 생명계에, 생명계가 무생명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 교수는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광명을 발하듯이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한다. 그것이 곧 우주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다"며 "이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온생명과 화엄의 지혜이자 윤리"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학술단신

전통예술학회 세미나

한국전통예술회의(회장 홍윤식)는 11월26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국 전통예술의 비전과 새 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는 '새 밀레니엄 시대의 예술적 위상-새 시대의 전통예술'을 주제로 한 홍윤식 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모두 6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통미술의 미래-이종선(서울시립박물관장) △문화산업시대의 국악과 그 전망-박범훈(중앙대 교수) △미래사회와 전통건축의 변모-김동현(동국대 교수) △새 밀레니엄 시대의 전통극-김흥우(동국대 교수) △전통무용의 새 창조와 가능성-이선옥(상명대 교수) △새 천년과 새 예술적 패러다임-박승현(다움연구소 기획실장)

열린정신포럼 토론

원광대학교 열린정신포럼(회장 김성관)은 11월25일 원광대 인문대학 인문소극장 106호에서 인문학적 담론의 활성화와 학제간 연구의 진흥을 위한 제7회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용정 전 동국대 교수가 자연과학 영역에서 '생명과학과 21세기 인문정신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가상대담 성낙주의 '석굴암' - 이진기·송태호의 '석굴암'

최근 석굴암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성낙주(소설가)가 단행본으로 펴낸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마고원, 본지 제246호에 소개, 이하 '미학')과 이진기(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송태호(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인 「원형 석굴암 상부 구조의 장마철 결로 및 열전달 현상의 실험적 연구」(본지 제247호에 소개, 이하 '실험적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 대담'의 형식을 빌려 두 연구를 비교하는 까닭은, 원형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 싼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는 두 연구 성과물에 말을 걸어 쟁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석굴암은 닫힌구조 전실개방설에 따른 연구결과 문제있다"

- 성낙주 -

"장마철 결로현상 상부구조의 통풍 과학적 증명에 초점"

- 이진기·송태호 -

대담의 주체는 저자와 연구자라는 인격이 아니라 '책'과 '논문'이다. 그래서 '가상 대담'이다.

▶ 먼저 '미학'에 묻는다. 연구 대상이나 주제에 비해 문체가 아주 문학적이다. 소설가라서 그런 건가?

'미학' : 잘 봤다. 소설가여서 그런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 작업을 '학문' 형식의 '창작'이라 말한다. 석굴암 자체와 관련 문헌을 주 텍스트로 삼았지만 자료와 자료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상상과 직관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때때로 진실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실험 연구'로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실험 연구' : 못할 것도 없다. 연구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방법론이 다르지 않은가.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할 만큼 편협하지는 않다.

▶ 그렇다면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실험 연구' : 석굴암 내부의 장마철 결로 현상의 원인과 상부 구조의 공기 통풍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항온항습실에서 도사 실험을 했다. 쉽게 말해서, 일제가 보수하기 전후의 두 모델에, 석굴암의 장마철 환경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본라의 석굴암 구조는 돔 위에 크고 작은 돌들이 1m 두께로 얼기설기 쌓여 있어서 장마철의 습기 제거와 결로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 지금 발언에 대해서 '미학'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미학' : 미술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석굴암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실험 연구'의 작업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실험 연구'의 석굴암 원형 이해는 '열린 구조' 즉 전실 개방설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돔형 천장의 정면과 후면에 통풍구가 있었음을 가정한 통풍구조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학'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언급한다.

외향성의 열린 구조인 불국사와 달리 석굴암은 내향성의 닫힌 구조이다. 이 점을 오해했기 때문에 '실험 연구'의 결과는 미술사학계의 일부 주장을 뒷바침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만약 나의 이런 주장을 감성에 기초한 '미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흘려듣는다면 나 또한 '실험 연구'에 대해 과학에 대한 맹신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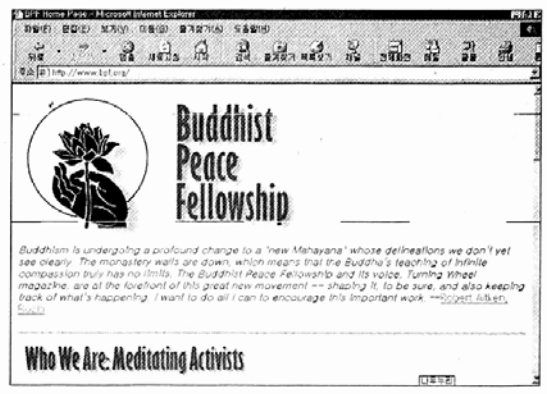
'실험 연구' : 말씀 잘 하셨다. 요즘 나는 아주 곤혹스럽다. 마치 내가 미술사학자가 다룰 고증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건 오해다. 나는 과학자다.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접근했을 뿐이다. 따라서 과학보다는 방법론에 방점을 찍어 주기 바란다.

'미학' :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지만 방법론이라는 것도 그렇다. 인류베이터가 아무리 정교해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을 수는 없다. 특히 '실험 연구'의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초기의 원형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의 외부가 다공성 암석층으로 덮여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식으로 쉽게 미술사학계의 일부 주장을 선택하여 실험으로 그것을 뒷받침한다.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아무리 연구 목적이 결로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찾는 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깊지 못한 태도로 보인다.

'실험 연구' : 기존 학설을 두루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볼 문제다. 하지만 석굴암의 과학적 보존 문제로 한정해서 의미를 찾는다면 미술사학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험 연구'의 주장이 무오류라고 한 적도 없다. 겨울철의 성에, 바람, 지하수의 영향 같은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혀 놓지 않았는가.

▶ 이쯤해서 대담을 마쳐야겠다. 이정도면 두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을 대강이나마 살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논쟁이라는 것이 다른 주장에 대한 논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목적에 다가가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논쟁이 석굴암의 실체에 근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언론에서도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식으로 논쟁을 몰아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제학 기자 (jhyun@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평화우의회

열린 마음으로 참여불교 실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불교계 NGO 가운데 가장 대표적 단체는 불교평화우의회(Buddhist Peace Fellowship, 이하 우의회)이다. 이 단체의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클릭' 한 번으로 꼼꼼히 살피고, 참여할 수도 있다.

197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4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종파적 파벌의식을 탈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우의회의 △연혁 △사상 △프로그램 △게시판 △소식지 등을 열람·이용할 수 있다.

장애아동 의료봉사

먼저 우의회 활동을 조망하고 싶다면 '연혁'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우의회는 국경을 초월해 20여 년간 방글라데시, 베트남, 티벳,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 사상을 일깨우고, 제도화된 무지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또 부처님의 지혜, 자비를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1996년부터는 미국의 카이저 재단으로부터 5천달러를 지원받아 '아동 의료팀'을 설치,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아동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땅속에 묻혀있던 '대인지뢰'의 폭발로 인한 것이다. 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가 6년동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데도 기여해, 미얀마 민주주의가 첫발을 내딛는 데 크게 공헌했다. 미국에서 핵 실험장으로 악명높은 네바다(Nevada) 주에서 매년 8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 원폭으로 희생당한 일본인들을 위해 추모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우의회에서 진행하는 독특한 불교 수행 프로그램인 '사회참여불교인등맹'을 알고자 할 때는 '프로그램' 메뉴를 열람하면 된다. 우의회 자원 봉사자들의 수행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인권과 관련된 편지 쓰기 운동 △분쟁 지역에서 온 피난민과의 공동 생활 △철야기도와 시위 참여 △청빈한 생활 △유해한 상품과 정책에 대한 저항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지지와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의 수기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미국인 불자는 "정의·평화·여성·환경운동과 같은 현안의 실마리는 푸는 데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미국인 불자들의 신행을 북돋우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원폭희생자 추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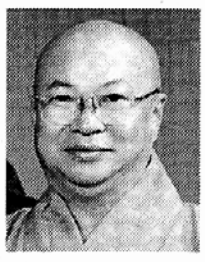
또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의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 개혁 운동에 시공을 초월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불자 네티즌 자신의 의견도 올릴 수 있다. 한 번의 클릭 또는 불자 네티즌 자신의 이메일을 등재하는 것으로도, 인류의 사회적 생태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동참한 셈이다. 이외에도 '소식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탈종파적인 불교 소식지 〈터닝 휠(Turning Wheel)〉을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bpf.org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五相 통달해야 부처 이룬다"

석존도 오상수행 통해 깨달음 얻어
대원경지 · 평등성지등 '오지' 설파

금강정경 (中)

경전 속의 禪 사상 44



글쓴이
정 태 혁
〈동국대 명예교수〉

'오상성신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관법이 있게 된 동기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금강정경〉이라고 하면 십만송(十萬頌)이나 되는 광대한 경전이요, 이 경전이 모두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교설에 따라서 '오상성신관'을 알아볼 수 있다.

본인은 일찌기 '오상성신관의 실수법과 대승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단국대학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다.

석존이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얻으셨다는 것도 거기서 오상성신관을 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만일에 오상성신관이 그 때에 행해지지 않았다면 석존은 벽지불, 즉 아라한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뿐 부처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선(禪)은 성불하는 길이므로 선수행자는 모름지기 오상성신관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 〈금강정경〉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일체의성취보살(一切義成就菩薩)이 보리도량에 앉아 있는데 가범(伽梵)이 나타나시어, 수용신(受用身)을 시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할 것인가. 일체여래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여러가지 고행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하시니, 이 때에 일체의성취보살마하살이 일체여래의 경각(鑒覺)에 의해서 아사파나가사마지(阿娑頗那伽三摩地)로부터 일어나서 일체여래를 예배하고 사뢰기를 세존이시여, 나에게 교시를 내리소서.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하고 묻자 일체여래가 이구동성으로 그 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

이것으로 보면, 석존의 인위인 일체의성취보살마하살이 비로자나불의 경각으로 새로운 선관으로 끌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스파니카사마디(asphanaka-samadhi)로부터 일어나 일체여래께 예배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신 것이다. 그러자 일체여래가 이구동성으로 오상성신관을 닦으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 때의 일체여래는 수용신인 비로자나불이다.

여기에 오상성신관이 설해진 동기가 있고, 일체여래의 진실, 즉 진실한 부처의 세계를 알리고 부처가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일체의성취보살마하살이란 싯다르타 태자가 6년간 고행을 끝내고 진실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인위의 보살이니 과거의 싯다르타가 심기일전하여 참된 깨달음의 길로 나가게 된 그 분이다. 이 분은 이미 고타마로서의 싯다르타가 아니고 일체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살이다.

싯다르타가 진실한 길로 들어설 발심으로부터 이미 깨달음의 길로 들어갔으니 이것이 발보리심이다. 그래서 일체의성취보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보리심만으로는 안된다. 이로부터 더 수행을 해야 성불하게 되므로 여기서 오상성신관이 설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오상성신관이란 어떤 것인가. 금강정유가십팔회지귀(金剛頂 瑜伽十八會指歸)에서 비로소 이것이 보이니, '비로자나불의 수용신은 오상(五相)으로서 등정각(等正覺)을 현성하시니, 오상이란 이른바 통달본심(通達本心) 수보리심(修菩提心) 성금강심(成金剛心) 증금강신(證金剛身) 불신원만(佛身圓滿)으로, 이것이 곧 오지통달(五智通達)이다. 성불 후에 금강삼마지(金剛三摩地)로서 37지(智)를 발현하라고 했다.

따라서 오상이란 오지 그것이니 법계체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고 하는 다섯 가지 지혜다. 이 다섯 가지가 용달되고 인격화되어서 불격으로 구현된 다섯 부처로 나타난다. 그 다섯 부처는 바로 대일여래, 인축여래, 보생여래, 아미타여래, 석가여래이다. 이들 제불은 금강삼마지로써 37지로 나타나고, 그것이 37존으로서 금강계 만다라를 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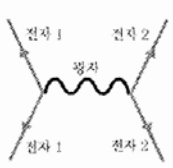
석존의 보리수 밑 정각이란 이러한 다섯 가지 지혜로써 일체여래가 되는 불신원만을 성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야경〉의 공삼매, 〈법화경〉의 법화삼매, 〈화엄경〉의 해인삼매에 만족하지 않고 금강삼매에 이르러 불신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 학 산 책

W · Z보존 (下)

지난 시간에 이어, 약한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 Z 보즈 입자(보존, boson)에 대해 살펴본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전자와 중성미자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전자는 1의 음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미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또한 전자는 작지만 질량을 가진다. 반면, 최근에 실험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성미자의 질량은 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립자와 비교해도 무척 작다. 즉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에너지 수준에서는 전자와 중성미자가 서로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자연의 더욱 근본적인 영역,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통일성이 발견되는데, 서로 확연히 달라 보이는 전자와 중성미자는 W, Z 보즈입자에 의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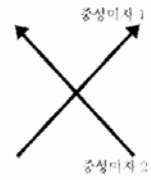
전자는 -1의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근하게 되면 그림1에서처럼 서로 반발하여 진행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 나간다. 물리학자들은 서로 반발하는 과정을 전자가 광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전자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관여하게 되는데, 전자기력은 광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2에서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두 개의 중성미자가 접근할 때 서로 상대방의 중성미자에 관계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접근하는 중성미자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면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는 Z 장(場)을 자극하여 Z 보즈입자가 기능하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중성미자가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두 개의 중성미자는 그림3에서처럼 Z 보즈입자를 교환하고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다.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작용하여 그림1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중성미자의 경우는 어떤 힘, 혹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일가? 물리학자에 의하면 중성미자에 작용하는 것은 약력, 혹은 약한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광자이듯이 약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Z 보즈 입자이다. 즉, Z 보즈 입자로 인해 그림1과 그림3에서 보듯이 전자 산란과 중성미자 산란은 동일하다. 이 실험을 물리학자들은 높은 에너지 상태, 다른 말로는 짧은 거리에서는 전자와 중성미자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증거로 여긴다.



(그림1)



(그림2)



(그림3)

전자 · 중성미자 다르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선
하나로 통합 구별 안돼

Z 보즈 입자와 같이 약한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또다른 보즈 입자로는 W 보즈 입자가 있다. W 보존은 아래 쿼크를 위 쿼크로 바꿀 수 있고 전자를 중성미자로 바꿀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성자가 평균 15분 후에 자발적으로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로 소멸하는 방사성 베타 붕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에서 중성자란 원자핵 속에 구속되어 있는 중성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중성자를 말한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가 15분 후에 다른 소립자로 붕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한 상호작용은 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처음 발견되었다.

양자역학의 확률 특성에 의해 W 보존은 검출할 수 있는 물리적 입자로서가 아니라 검출되지 않는 가상입자로서 존재할 확률이 작지만 분명히 있다. 자연계에는 수많은 중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확률이긴 해도 분명이를 관찰할 수 있다. W가 기능하면 아래 쿼크는 위쿼크로 바뀐다. 그리고 W보존은 곧바로 전자와 반중성미자로 붕괴된다. 따라서 관찰되는 것은 중성자가 붕괴하여 양성자와 전자, 반중성미자가 생기는 방사성 베타 붕괴 현상이다. W, Z 보존은 1983년 2월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한 실험실에서 드디어 물리적 입자로 관찰되었다. W, Z 보존에 대한 이 명확한 증명으로 표면적 이중성을 초월한 통일된 약한전자기력 이론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25

행복이 있는 곳 ①

쾌락 · 고통을 초월하라

감각적 욕망은 진정한 행복 주지못해

딱 부러지게 말은 안해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런 피상적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욕망의 대상들을 손에 넣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우리에게 향락, 만족 또는 성취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더할 나위없는 소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서로에게 묻는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얼 얻고자 원하느냐"고. 이 질문에는 행복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고, 그대로 좇아갈 수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험은 이론을 뒤엎기가 일쑤이다. 우리가 애타게 구하는 그 잡다한 것들은 도대체 손에 잡혀주지 않으며, 어찌어찌 천신만고 끝에 붙잡아봐도 기대했던 만큼 즐거움을 주지도 않는다. 계속 붙잡고 있을라치면 점점 못쓰게 되고 말아 결국 비애만 안겨준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위안을 찾기에 급급하여 서둘러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만족감 탐색이 정확하게 이행되기만 하면, 올바른 대상을 골라내기만 하면, 또 행운이 조금만 거들어준다면, 그땐 우리를 비켜나가기만하던 그 영원한 행복을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번번이 운명에 호되게 당하면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되뇌인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어." 그리고는 새로운 재미를 찾아 눈을 부라린다.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고생이 보람있는 것일까? 부처님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감각적 쾌락, 이를테면 술이니 재산이니 장밋빛 기대 따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해도 이런저런 감각적 대상물이 바람직하다는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는 한 안락한 곳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현상의 본질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추구는 처음부터 도로에 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과업은 이 우주가 결코 우리들의 재밋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끌어내는 류의 즐거움이란 것들이 헛된 것이고 무상하며 관심거리도 못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는 일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세상의 즐거움을 부인하지 않은 반면, 모든 세속적 쾌락은 고와 단단하게 맺어져 있고, 고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끝내는 고에 굴복하고만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따라서 쾌락을 얻싸안는다는 것은 바로 고를 끌어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갈애가 이 세상에 가짜 영상을 끊임없이 투사하는 바람에 주변의 유혹 대상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짜 영상의 개입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갈애는 계속 우리를 이 실망에서 저 실망으로 옮겨다니게 할 것이다. 감각적 쾌락이라는 미끼를 물다가 낚시에 꿰이는 고통을 수없이 겪어왔건만, 옴짤옴짤 다가오는 벌레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매번 흥분에 사로잡히고 만다.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쾌락과 고통이 한덩어리가 되어 끔찍하게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둘을 어거지로 갈라놓으려 무모한 노력을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오염덩이 전체를 멀찍이서 초연하게 바라보는 데 있다고.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 ·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4×6 판 / 3,5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

祈禱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 · 제자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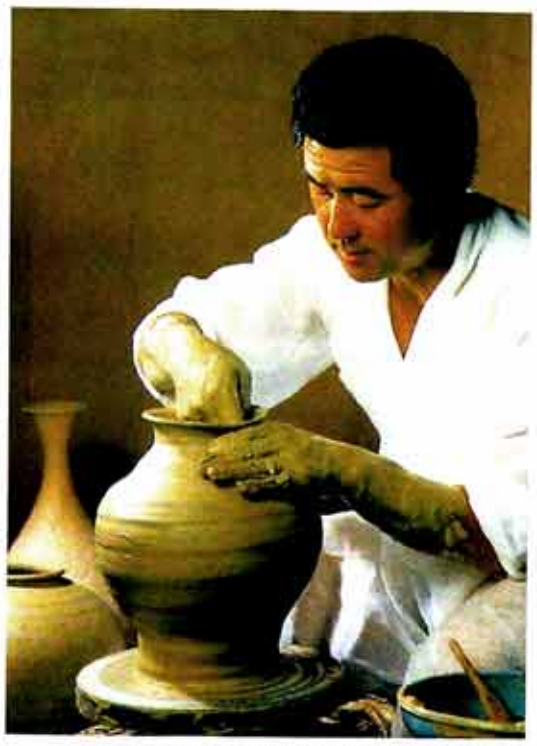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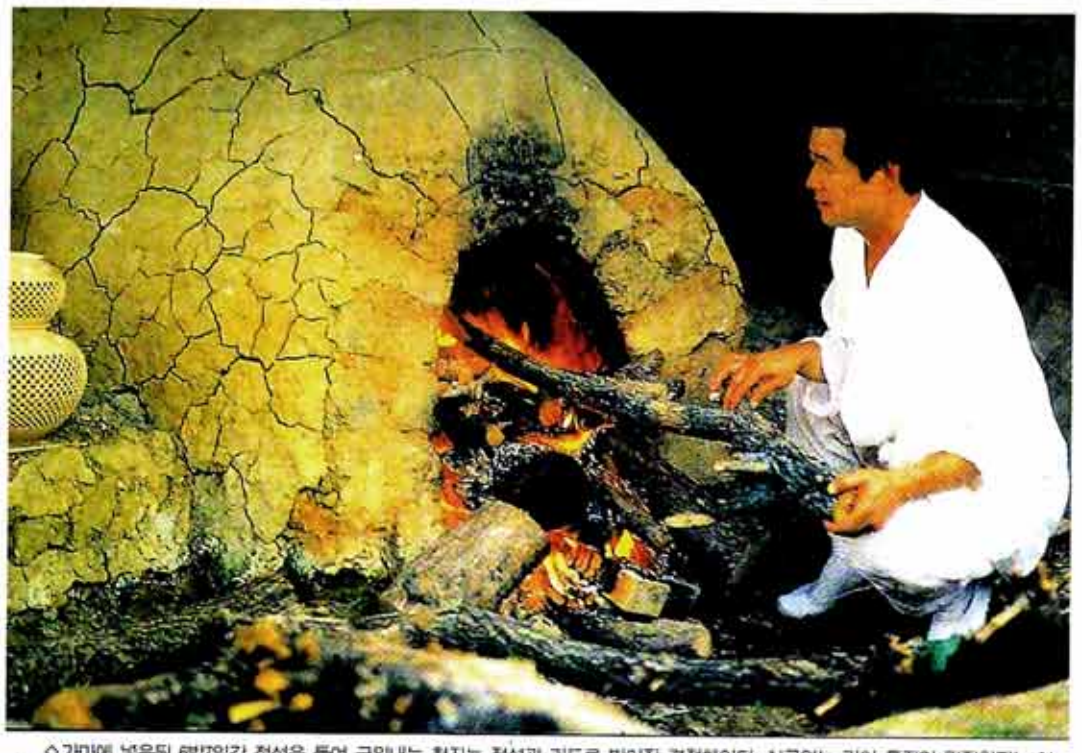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명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고려청자의 대표적 생산지였던 강진지역의 독특한 청자를 6백년만에 재현한 윤도현씨.



◇가마에 넣은뒤 6박7일간 정성을 들여 구워내는 청자는 정성과 기도로 빚어진 결정체이다. 실금없는 것이 특징인 강진청자는 24단계 70일의 제작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윤도현씨는 비색 고려청자 재현을 화두로 30년간 뜨거운 가마와 씨름해 왔다.

"정성 들인만큼 진품 탄생하죠"

산문밖의 도예가 윤도현 씨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사대(四大)로 신비로운 비색을 연출하는 도예가 윤도현씨(56·강진도강요 대표).

"청자야말로 오직 정성과 기도로만 빚어진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아는지 어딘가 흠결이 생깁니다. 오로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정성을 쏟아야 자연스럽게 혼이 깃든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가마에서 나온 청자를 보면 흙을 주무르고 불을 때던 나의 마음상태가 어떠했는지 금방 나타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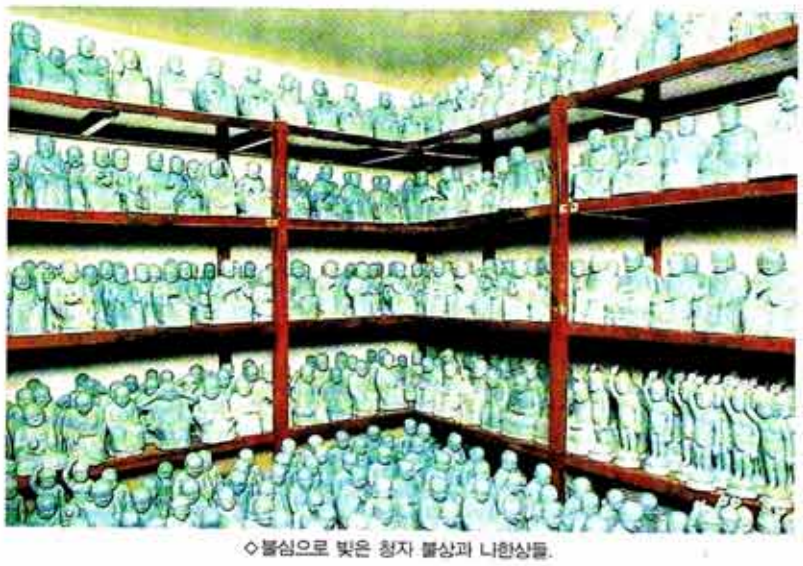
비색 고려청자 재현을 화두로 삼고 30여년간 흙을 주물러온 윤도현씨는 청자 한조각 한조각에 혼을 앗기고 흙과 불, 송진내음의 기묘한 조화속에 탄생되는 비색청자를 얻고자 몸을 불태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고려청자에 숨겨진 옛 도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청자들은 맑은 정신의 결정체답게 비취색이 아름답고 형태가 단정하며 다양한 문양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윤씨는 도예를 '마음을 빚는 일'이라고 말한다. 수없이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형태를 다듬어 유약을 칠하고 가마에서 굽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 옛날 고려도공이 굽던 비취색 청자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가마에서 나온 청자들가운데 70% 이상이 깨부수어 버려진다. 어느 때는 2시간이 넘도록 청자를 깨버릴 때도 있다. 그러나 미련은 없다. 또다시 청자를 굽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완벽재현'을 위한 그의 고단한 여정은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는 밥먹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조차 늘 '청자'를 화두로 씽긴다. "아직 어설퍼요.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청자를 만든다는 느낌보다 나와 청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으로 빚어지고 구어질때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윤도현씨는 우리나라 국보·보물급 청자의 80% 이상을 생산했던 강진요를 다시 재현했다. 강진 고려청자의 특징인 빙렬(실금)이 없고, 고유의 색인 비취색도 거의 재현해내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65년 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칠량면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윤씨는 강진 도예지 지역답사와 학술발표회 등을 빠짐없이 좇아다녔다. 특히 73년부터 시작된 강진지역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가 살던 강진은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9세기 통일신라시대부터 14세기 고려시대까지 약 5백년간 청자를 생산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 일대는 총 188기의 청자가마터가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6백년간 단절된 고려청자의 재현은 요원했다. 그러던중 윤씨는 전남 도예연구소와 전남 도예협회에 근무하며 당시 이용희 청자연구실장에게 청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된다. 그는 청자에 대한 관심에서 제작으로 자연스럽게 빨려드는 계기가 됐다.



◇불심으로 빚은 청자 불상과 나한상들.

고려청자 재현 30년 화두
빚고 굽고 깨부수기 반복
"도예는 마음공부의 결정체"

그는 몇년간 걸망을 메고 강진청자와 다른 지역 청자가 다른 점에 대한 의문으로 전국의 도요지와 도예가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만행을 다녔다. 강진 청자의 특징인 실금없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청자토를 채취하고 전통기법으로 24단계 70일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전통적인 강진청자 제작과정인 수비(원료혼합하기), 연토(반죽하기), 성형(형태만들기), 시문(문양넣기), 초벌구이(800도), 시유(유약바르기), 재벌구이(1300도)를 그대로 했지만 이유없는 실패는 몇년간 계속됐다. 집안에서도 모두들 말렸지만 윤씨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러던중 실금이 생기는 요인을 알게 됐다. 청자에 흙과 유약을 발라 열을 가하면 가마안에서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그 과정에서 흙과 유약의 비율이 다를 경우 금이 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터득하게 된 것이다.

"청자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수행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안에 불성이 내재되어 무명에 덮여있지만 닦을수록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점토속에 철분이 들어 있어 흙자체에서 백색으로 발색되고 오랜 세월이 가면 색이 차츰 없어져 천년정도 지나면 현재의 고려청자와 같은 ㅊ비롭고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칠량면에 도강요를 설치하고 고려청자 재현에 앞장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에 동참하여 도반이 됐다. 그들에게 제작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물론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내일처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고려청자 단지와 강진청자문화제 개최도 제시, 2년전 옮겨진 대구면 정수사에서 사당리일대 18만여평에 강진청자 10명의 도예가들이 단지를 만들어 입주했다. 이곳에는 강진도자기사업소를 비롯하여 청자자료박물관, 민속옹기전시장, 청자빗기체험장, 청자전시판매장등이 들어섰으며 청자와 연계한 2만3천평의 국민관광테마단지가 인근에 개발되고 있다.

백련사 거사림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도현씨는 최근 몇년동안 청자대물과 청자기와의 재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청자의 신비로운 색과 어울리는 자비로운 상호를 만들기 위해 그는 해남불교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올해 불교공부를 더하기 위해 강진불교대학에 입학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포대화상 나한상 등 청자소불에 관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하여 사찰에 모신 윤씨는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석가모니 대불은 3자크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수기와에 청색물감을 바른 기와를 올린 청와대보다도 나은 자연유약을 바른 청자기와를 법당에 올리는 것을 염원으로 하고 있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윤씨는 장흥 천관사 대웅전에 청자기와를 올릴 예정이다. 옛 선인들이 청자기와를 대웅전법당 끝부분에 올려 벼락을 막았다는 사실에 착안해 청자기와가 피막을 형성해 빗물의 참투를 막고 1200도의 열을 이겨내며 몇천년이 가도 견딜 수 있다며 불자들이 참배하는 부처님 성전을 천년 비색의 청자로 장엄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인다는 윤도현씨는 또다시 뜨거운 가마와 씨름하는 6박 7일 용맹정진에 들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알려진 정수사는 옛도공들의 기도처이자 정신적 귀의처였다.

■고려청자 발상지 강진 정수사

"고려청자의 발상지는 정수사 입니다. 9세기 정수사에서부터 시작된 가마터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밑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현재의 도예단지 위치는 12세기 융성하던 터지요"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 최행택소장은 강진 천개산 정수사가 처음 청자를 만든 도공들의 기도처이자 정신적 귀의처였다고 말했다. 쌍계곡이 있어 원래 쌍계사로 불리웠다는 정수사는 남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져 강진만으로 흘러가는 용문천의 발원지이다. 고려청자 가마터는 이 용문천을 따라 밀집해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마터 4백기중 2백여기가 이곳에 밀집해 있다.

강진 고려청자는 정수사가 있는 용문천 상류 용운리에 초기 가마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중류인 계율리에 중기 가마터, 하류에는 12세기경 고려청자를 꽃피웠던 사당리로 내려간 시대적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정수사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바다를 통한 운송의 용이성과 땔감의 부족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청자가 정부 주도하 관요로 생산됐으며, 정수사가 왕명으로 고금도에 있는 관왕묘를 관리, 지역세를 면제받았고 조선말까지 강진지역을 관장하는 수창이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고려청자의 발상지 정수사에 대한 학술적인 조명이 필요한 상태다.



◇7세기 후반 마애불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원래 감실안 조성…현재는 노출
도드락 새김으로 위엄스런 모습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 있는 이 불상은 원래 감실안의 본존불로 조성된 보기드문 신라시대 거대 마애불좌상이다. 현재 감실의 돌벽도 무너졌고 불상에도 군데군데 탈락이 있지만 거의 원각상에 가깝게 높은 도드락새김으로 새겼기 때문에 위엄스러운 모습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네모진 얼굴에 내면적인 힘과 고졸한 미소를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점이나 오른 손을 가슴에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왼손은 무릎에 내려 여원인을 짓고있는 큼직한 두 손은 이 불상의 적정한 위용을 한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넓은 무릎과 무릎을 덮어내린 옷자락의 소박한 상현좌 불상주위에 새긴 옛스러운 화불들과 함께 7세기 전반기의 삼국시대 불상양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얼굴이나 체구에 표현된 부드러운 조소력 때문에 실 제작년대는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보 201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34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률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배현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떨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분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코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배현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①

선경어는 박산 무이선사(博山無異禪師)의 어록이다. 박산 무이선사(1575-1630)는 중국 명나라 때의 조동종 승려로서 박산에 오래 주석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쳐온 당대의 고승이다. 여기 연재하는 선경어는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참선 공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매우 간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일독을 권하고 싶은 선가의 경책(警策)이다.

做工夫 最初要箇破生死心 堅硬看破
주공부 최초요개파생사심 견경간파
世界身心 悉是假緣 無實主宰
세계신심 실시가연 무실주재
若不發明本具底大理則 生死
약불발명본구저대리즉 생사
心不破 生死心旣不破 無常殺鬼
심불파 생사심기불파 무상살귀
念念不停 却如何排遣 將此一念
염념불정 각여하배견 장차일념
作箇敲門瓦子 如坐在熱火焰中
작개고문와자 여좌재열화염중
救出相似 亂行一步不得
구출상사 난행일보부득
停止一步不得 別生一念不得
정지일보부득 별생일념부득
望別人救不得 當恁麼時
망별인구부득 당임마시
只須不顧猛火不
지수불고맹화불
顧身命 不望人救 不生別念 不肯暫止
고신명 불망인구 불생별념 불긍잠지
往前直奔 奔得出 是好手
왕전직분 분득출 시호수

做工夫 貴在起疑情 何謂疑情
주공부 귀재기의정 하위의정
如生不知何來 不得不疑來處
여생부지하래 부득불의래처
死不知何去 不得疑去處, 生死關竅
사부지하거 부득의거처 생사관규
不破則疑情頓發 結在眉睫上
불파즉의정돈발 결재미첩상
防亦不下 赶亦不去 忽然一朝
방역불하 진역불거 홀연일조
撲破疑團 生死二字 是甚麼 閑家
박파의단 생사이자 시심마 한가

참선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무엇을 의문이라 하는가. 태어나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가는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면 의문이 문득 일어날 것이다. 이를 눈썹 위에 두고, 놓아도 내려가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의문덩어리를 깨뜨려버린다면 생사라는 두 글자가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부질없는 것이다.

먼저 생사의 마음을 깨뜨려라
한 생각도 딴 생각을 낼 수 없다

做工夫 最怕耽着靜境 使人困于枯寂
주공부 최파탐착정경 사인곤우고적
不覺不知 動境人多厭 靜境人多不厭
불각부지 동경인다염 정경인다불염
良以行人 一向處乎喧
양이행인 일향처호훤
鬧之場 一與靜境相應 如食飴食蜜
뇨지장 일여정경상응 여식이식밀
如人倦久喜睡 安得自知耶
여인권구희수 안득자지야

참선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계와 몸과 마음은 모두가 잠시 인연을 빌린 것이라서 실로 주재(主宰)가 없다는 것을 굳게 간파해야 한다. 만약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큰 진리를 밝히지 못한다면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며,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무상살귀(無常殺鬼)가 생각 생각에 따를 것이니 이를 어떻게 쫓아내겠는가. 오직 이 한 생각은 배우기 위해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으로 삼아야 한다. 마치 맹렬한 불꽃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한 걸음도 헛되이 옮길 수 없고, 한 걸음도 멈출 수 없고, 한 생각도 딴 생각을 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구출해 주기를 바랄 수도 없다. 이런 때를 당해서는 모름지기 사나운 불길을 돌아보지 말고, 목숨도 돌아보지 말며, 남의 구원도 바라지 말며, 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잠깐 그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앞으로 곧장 달려나가되 달려서 벗어나야만이 뛰어난 솜씨이다.

참선하는 데는 먼저 고요한 환경에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가 없고 고적한 데에 빠져 깨닫지 못하게 된다. 시끄러운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요한 환경은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고 떠들썩한 곳에서 지내다가 한번 고요한 곳을 만나면 마치 꿀이나 엿을 먹는 것과 같아져서 사람이 마치 오랜 피로 끝에 잠자기를 즐기는 것과 같게 되니 어찌 깨달음을 얻겠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처음 먹은 마음으로

송암스님 〈영산재보존회 총재〉



약력
- 1915년 서울 生
- 33년 영진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및 경성상업학교 졸업
- 33년 박운허스님을 은사로 봉원사에서 득도
- 34년 월하스님으로부터 범패 전수
-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 보유자 지정
- 영산재보존회 총재 추대
- 94년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학장
- 94년 옥관문화훈장 수상
- 현재 서울 신촌 봉원사에 주석

"영산재는 공연이 아닌 경건한 종교의례이니 청정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면 4시에 봉행되는 예불에 반드시 참례하고 합장정근을 하며 봉원사 경내를 순례합니다. 봉원사의 각 전각들을 순례하면서 서울 시내 요지에 이같이 공기좋고 물좋은, 전통사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닌 절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구나 생각합니다. 봉원사에 참배오는 이들도 많고 아침저녁으로 봉원사를 경유해 산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봉원사가 유서깊은 역사를 지닌 절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89년 도선스님이 창건한 봉원사는 1880년 개화파의 선각자 김옥균 선생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며 갑신정변의 혁명동지였던 이동인스님이 5년간이나 주석하시며 갑신정변을 잉태케 한 요람이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내가 예전에 봉원사에 있는 영진불교전문강원을 다녔어요. 백초월스님이 강사를 맡았는데 당시 불교 3대 강사의 한분으로 치던 훌륭한 분이었어요. 김환란박사하고 자주 만나 독립운동 의논을 하곤 했던 독립운동가 였습니다. 한참뒤에 그 조카되는 이가 찾아와 초월스님을 독립지사에 올리려고 나하고 의논도 했는데 결국 못 올랐지요.

초월스님 머리에 일본 경찰에게 전기 찜질을 당해 생긴 큰 험자국이 있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늘 머리가 아파 두 손이 항상 머리에 올라가 있고 여름에는 모기가 새까맣게 붙어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는 아주 잘 가르쳤고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어요. 내가 스님에게 서장까지 배웠는데 내가 서장 나가다가 막히면 당신이 줄줄 외우며 설명해 주셨지요. 마포 극락암에 현기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초월스님 모시고 독립운동한 것이 드러나 결국 고문받다 죽었지요. 그 어른이 용산가서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객차 복판에다 붙였지요. 필적을 조사하다 초월스님이 썼다는 것이 밝혀져 곤욕을 치렀지요. 결국 청주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해방 두달전에. 참 아까운 인물이지요.

김구선생도 광복후 봉원사에서 머무르기 위해 여기 몇 번 왔었지요. 또 봉원사는 영산재와 탱화라는, 중요한 불교전통의식과 예술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본산입니다. 복 달라고 와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안다면 마치 내집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겠지요.

나는 봉원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고 85세가 된 지금도 봉원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봉원사 입구에 부도들 있는데 이월하스님의 공덕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하스님이 아니였던들 범음 범패가 이렇게 올곧게 전수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불교계에 끼치신 공덕이 사무칩니다. 지금이야 불교전통의식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내가 왜정때 월하·벽해 두 어장스님에게 사사를 받을 때는 일인(日人)들의 제지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지난 7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을 때만 해도 스님들조차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일반 사람들은 범패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재의식을 하나보다 하고 심상하게 보지만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재세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장엄한 불교의식입니다. 영산재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고 또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이 성취되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는 최대, 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이니 그 봉행하는 뜻을 모르고는 동참해 보았자 헛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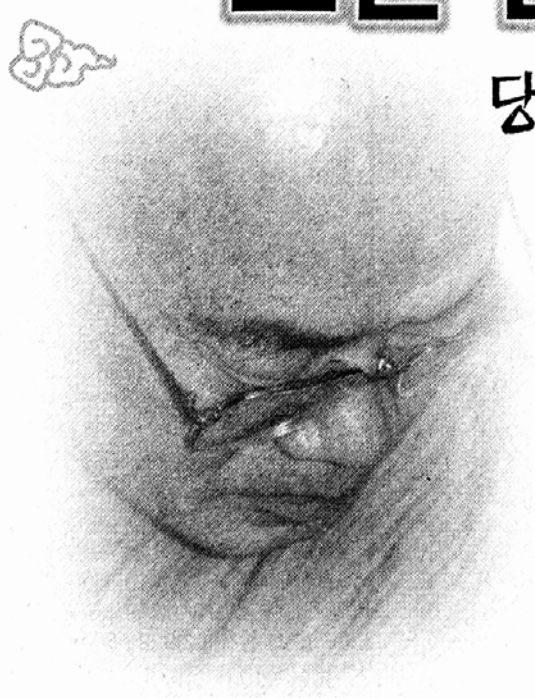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그 자애롭고 위엄있는 모습과 부처님전에 둘러앉은 여러 보살님들, 제자들, 설법을 듣는 진지한 대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산재란 그 영산회상의 법열과 환희심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산재는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나 의식을 보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산재를 구경거리 경연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의식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더러 무대에서 시연을 하지만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경건한 종교적 의례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대중들도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발심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합심발원을 한다면 불자들에게는 영산재에 참여하는 것이 수심(修心)의 기회가 되고 또 포교의 자리도 될 수 있겠지요. 사찰 경내가 아니라 무대나 노천에서 하더라도 야단법석(野壇法席)으로 여기고 청정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재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일체중생의 성불해탈을 염원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나는 한문을 배우다 14살때 신식 학문이 배우고 싶어 초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한문을 가르치고 이발기계로 스님들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받은 돈으로 수업료를 냈지요.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는 기억력과 열심히 한 탓인지 4학년때 월반을 해 졸업을 하고 경성상업고등학교에

내 영혼을 사로잡는 힘 문경새재 전화: 0344)917-9224 팩스: 0344)918-9224 전자우편: mbook@netsgo.com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당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마주한 적 있는가!



다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며

가을이 한창 산문을 물들이던 어느날,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고산 큰스님은 노구를 탁마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짧은 기자회견만으로 조계사를 떠나셨습니다.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피할수 없었던 종단분규로 인해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잃었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우리는 또 어느 세월, 어떤 스승을 만나 이 풍진 세상의 화두를 찾아낼 수 있을런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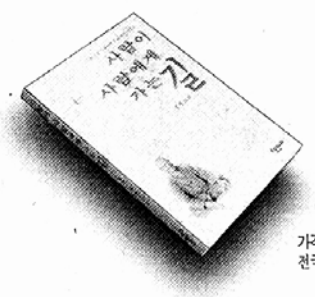
산 , 그보다 푸르고 깊은 마음을 담아

당신은 버리고 떠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으로 돌아가시던 그날, 유난히 커보이던 대웅전 부처님과 환송식에 모인 사람들은 더이상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가을비가 당신의 발걸음만 가볍게 적셔줄 뿐. 그날 이후로 당신을 마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 책에는 오로지 수행자라는 외길로 일생을 살아온 고산 큰스님의 질박한 삶과 부처님 이야기를 통한 잔잔한 가르침이 지혜롭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쉽게 큰스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삶을 위해 서라면 더욱 큰스님이 육필로 남기신 이 고마운 법문을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가격7,500원 /국판/260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뜻 있는 주지스님들과 불자분들의 많은 법보시를 기다립니다.

● 도서판매의 수익금 중 일부는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도서출판 문경새재로 연락을 주시면, 이 땅 불국토길 염원하시는 큰스님의 뜻에 따라 할인행사를 합행합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배우고 또 배우세요”



◇봉원사에서는 매년 단오날 영산재가 장엄하게 봉행된다. 영산재를 주관하고 있는 송암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

“무릎 아프도록 절한다고 공덕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한번 하더라도 지극하게”

‘나’ 내세우면 그 어떤 노력도 헛되기 십상 착한 일 했나 베풀며 살았나 반성하세요

진학을 해 졸업했어요. 잠시 직장에 다녔는데 불현듯 이 생활이 아니다 싶어 아버지이신 운허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범패의 최고 어장으로 꼽히는 월하스님의 시봉을 들면서 어깨너머로 범패를 배우다 본격적으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떤 소리든 한번만 들으면 좀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자주 듣다보니 몇곡 정도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월하스님께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며 열심히 연습하니 남들이 10년 걸리는 것을 2년만에 다 배울 수가 있었어요. 월하스님도 아마 내 목소리가 타고난 미성(美聲)이고 음악성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셨던지 나를 몹시 귀여워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지. 젊었을 때는 하루 왼 종일, 가나 오나,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나 걸어갈 때나 ‘으아’ 거리며 오로지 범패 한 생각만 했어요. 전 차안에서도 연습을 하니 차안에 있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겨 흠끔거리곤 했지요.

원래 봉원사가 전에는 범패가 흉년이었어요. 그때 주지가 이보담스님인데 이 분이 봉원사의 중흥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월하스님과 보담스님 두 분이 같이 봉원사대중들이 안 배우면 안될 정도로 종아릴 치면서까지 강제로 가르쳤지요. 그분들 덕분에 이만큼 불교의식이 이어지고 봉원사가 범패의 본산이 됐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교전통의식을 뿌리내리고자 한 선사스님들의 업적을 잊으면 안됩니다.

범패는 오로지 일념으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에 연습을 해야하는데 금방 싫증을 내거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자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배울 때의 처음 마음가짐을 끝까지 일관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처음 머리깎을 때의 초발심을 어떻게 견지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지겠지요.

요즘같이 험난하고 갈등이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 불자들부터 정의로 살고 바르게 살아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도리를 알아 신(信) 해(解) 행(行) 증(證)으로 부처님말씀을 실천하도록 항상 닦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절을 하더라도 건성으로 숫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번을 하더라도 진실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절을 하면서도 오늘 계에 가야 하는데, 오늘 내 자식이 시험에서 1등 해야 할 텐데 하는 잡념이 들어간다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시샘하는 감정이 남아있다거나 하면 다 소용이 없지요. 일심정례라. 무릎이 아프도록 절만 한다고 공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지심으로 간절한 원력을 담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벌써 한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자신이 하나라도 행한 선행은 있는지, 자신의 분수와 역량안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있었던 착한 일들은 없었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 선행을 하면서 자신이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는지, 마지못해 한 것은 아니었는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는지, 더 베풀 수 있었는데도 인색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설혹 부족되거나 잘못된 점은 부처님전에 참회하고 내년에는 더욱 선행을 쌓고 정진하는 자세를 새롭게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범패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만 으 아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지극정성으로 하라고 합니다. 신도들도 그렇습니다. 세속에서는 아무리 높고 귀한 이라도 절에 와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일상생활에서 부처님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상을 짙에 와서도 그대로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불전에 누가 금방 새 촛불을 켜 놓았는데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꺼버리고 자기가 가져온 초로 바꾸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또 향을 하나만 꽂아도 되는데 들쁙 꽂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헤치고 맨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불자들도 있는데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뵈러 올 때만이라도 아상 중생상을 버리도록 허 보세요. 그 노력이 평소 생활에도 이어진다면 그래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범패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무척 반갑습니다. 통영 제주도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배우러 오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때도 먼데서까지 배울려고 오는 정성을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요즘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영산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짓소리와 안채비도 가르칩니다. 본래 영산재의 짓소리는 74가지나 됩니다. 중간에 거의 소멸하여 현재 13가지만 전수되다가 최근 내가 2가지를 더 찾았습니다. 짓소리는 가장 대표적인 범패소리라 할 수 있는데 배우기가 몹시 어렵지요. 마치 범종의 길게 울려퍼지는 신비롭고 우람한 소리인양 삼천대천세계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여래의 설법 같다고나 할까요. 그 여유와 환희와 묘음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저절로 성불에의 의지를 북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여생을 오로지 범패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신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르치고 닦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지요. 완전히 다 뗐다는 사람이 불과 몇명이 안돼요. 배우러 들어오는 것만도 너무 고마워 가르치는 것이 신이 납니다.

요즘은 스님들뿐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바라춤 나비춤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음범패를 배워야 바라춤 추는 것이 제대로 되지요. 그것을 모르고 박자만 맞춰 춘다면 신명이 안 나오고 제대로 표현이 안 나옵니다.

범음 범패는 불교만의 의식 전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란 의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범패 전수에는 나라 뿐만 아니라 종단의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사찰에서 불려지는 간단한 염불이나 반야심경 독경소리조차도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최소한 염불이나 반야심경 독경소리 정도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또 정통 범패소리에 바탕을 두고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포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처님 경배하는 분위기를 엄숙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범패는 절 안팎에서뿐 아니라 온누리에 끊이지 않고 들려와야 합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원장〉

〈下〉

교육원 개원하고 답사단체 만든 이유 불교 바로 알고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아서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이며, 삶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단지 불교신자를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신심 돈독한 사람들만을 위한 불교가 아닌,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11년 전에 부산불교교육원을 개원했다. 종교 조사를 할 때 ‘불교’라고는 적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절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절에는 다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였다.



나는 교육원 개원에 앞서 참회와 원력의 기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 전부터 스승으로 모시던 김해 은하사 대성스님을 찾아갔다. 하룻밤을 꼬박 새며 1만 배 정진을 했다. 오직 중생의 깨우침을 위해, 그를 통한 나의 완성을 향해 원력을 다졌다. 내 마음에 항상 중생의 염원을 담고 싶어서였다.

절은 수행하는 곳이다. 지구상에 우리나라 스님만큼 철저하게 수행하는 스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때로 다툼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모습일 뿐이다. 오랜 역사동안 절마다 스님들의 수행과 중생들의 염원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 기운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우리문화기행’ 답사단체를 만든 것은 그 이유이다. 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도, 좋은 옷 입으려 온 것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사는 집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도 아니며, 떠밀려 온 것도 아닐 것이다. 분명 내 스스로 온 것이다. 이 땅에 인연이 되어 부모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다. 그들은 모두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인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나와의 인연이며, 나의 삶에 속하는 인연들이다.

어떤 인연일지라도 나의 삶은 모두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나의 즐거움도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상을 나의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날마다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비하지 마라’ 욾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오직 세상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것이 나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깨침의 혁명화 간결화

「하나한」



어떻게 구름사이로 하늘 본 것을 깨침이라 할 수 있는가?
구름걷는 법과 하늘사는 법을 익혀야 진정한 깨침 아닌가?

기존심성, 영성, 의식개발 프로그램 종합판 아닌 걸정판
기독인 중생, 불도인 이탈, 그외분 어의주 모두 함박웃음

5박 6일만에 존재의 꽃을!
花微笑와 悟道頌과 自然舞로 즐겁게!

1부 : 자아 감옥 벗고 지금여기 무한이기
2부 : 대상과 하나되어 모두가 전체이기
3부 : 현상 속 근원으로 삶을 안무하기
- 얼시구 拜上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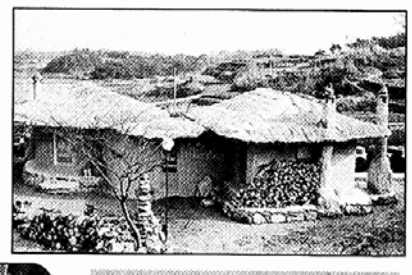
■일 시: 새해 1월부터 매 셋째주 월 15:00 ~ 토 11:00
('99.12월 셋째주 도움반 1/3액 실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H.P 016-206-1001
■참가비: 99(求救)만원
(33만원선입금:나머지등록시 또는 매월 만원 회비 자동이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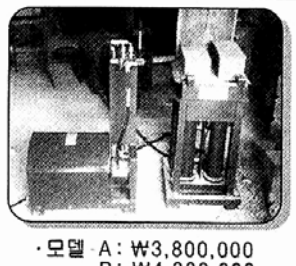
'99.12(8日.15日)19:00-22:00 정신세계원 (02)747-7033 질의응답실습(만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근본불교 여래선(위빠싸나) 수련법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위빠싸나』 참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법(法) 성품(性品)을 경험하여
헐떡거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연을 지녀지이다.
선재! 선재! 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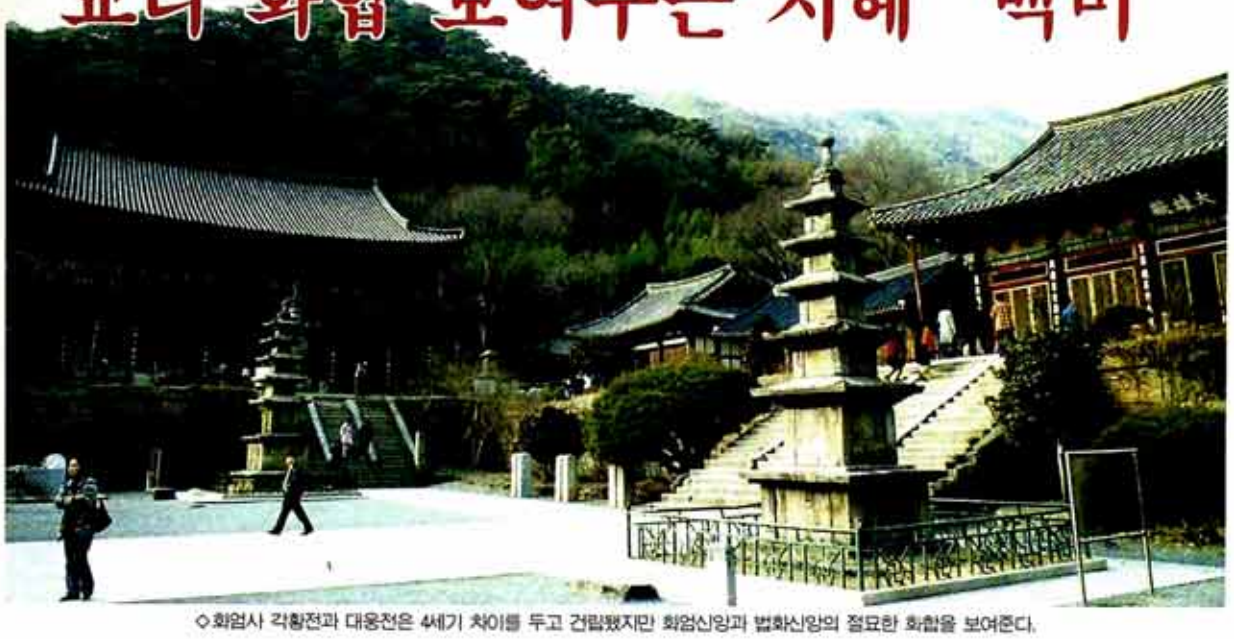
■ 기 간 : 1999. 12. 15(수요일) 오후 4시 ~ 12. 24(금요일) 오후 3시(10일간)
■ 장 소 : 봉인사 자광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304
(전화: 0346-574-5585, 574-2340 FAX: 574-0808)
■ 안 내 : 케마 KHEMA (김경란)
■ 주 관 : 봉인사 · 한길 정진원

▲2일 마다 수행과정의 내용 점검(Interview)
▲2일 마다 수행의 실제를 돕는 구체적인 법문
▲수행자 각 개인의 인연에 맞는 정확한 수행 방법의 안내
▲수행 기간 중 묵언
▲오후 12시 이후 불식(不食) (음료수는 가능함)
▲오전 4시 입선, 오후 9시 방선
▲수행자는 수련 기간 중 위빠싸나와 본 정진원에서 이끄는 방법 이외의 다른 수행을 할 수 없음

◇참가회비 1일(1박 기준) 당 10,000원
◇방사 관계로 30명 한, 마감 예정이오니 선착순 접수합니다.
◇참여 회망자 중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10일) 중 부분 참여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1. 법복(간편한 복장)
2. 세면도구
3. 필기 도구(특히 두툼한 노트)
4. 필히 담마(법)을 체험하겠다는 서원

보궁도 참배하시고 부처님 수행도 하십시오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교리 화합 보여주는 지혜 '백미'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은 4세기 차이를 두고 건립됐지만 화엄신앙과 법화신앙의 절묘한 화합을 보여준다.

화엄사 각황전-대웅전

가람의 장면들 17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지리산 화엄사는 건축적으로 매우 특이한 사찰이다. 이 절의 주불전은 두 건물이다. 유명한 각황전(국보 67호)과 대웅전(보물299호)이 하나의 마당을 감싸며 서로 직각 방향으로 서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각황전은 원래 장육전이라고 불리워, 거대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3층의 대전각이었다고 전한다. 실내에는 물로 벽을 두르고 그 위에 화엄경을 새겨서, 돌벽 주변을 돌면서 화엄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장치했다. 틀림없는 화엄신앙의 건물이었다. 반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고, 지어진 연대도 각황전보다는 4세기경 뒤라고 추정된다. 대웅전은 법화신앙의 소산이며, 각황전의 화엄신앙과 하나의 마당을 감싸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현재 각황전은 규모가 큰 2층 건물이다. 반면 대웅전은 각황전보다 작은 단층건물이다. 건물의 격식과 규모로만 본다면, 각황전이 단연 화엄사의 주불전이다. 교리적으로도 화엄신앙의 각황전이 화엄종 화엄사의 주불전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마당의 정면에 놓여진 것은 대웅전이고, 각황전은 마당의 한쪽 끝에 놓여져, 위치적으로는 대웅전이 주불전의 자리에 앉았다. 규모로 보면 각황전이, 위치로 보면 대웅전이 주불전이 되어, 화엄사에는 두 개의 중심 전각이 존재하는 셈이다.

화엄사 본 마당에 오르려면, 보제루의 동쪽 끝을 돌아 마당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광경이 바로 화엄사의 주된 표정으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커다란 각황전과 작은 대웅전의 크기와 높이가 거의 같게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다. 즉, 본 마당의 입구로부터 각황전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웅전은 가깝다. 또한, 본 마당은 가자의 석단을 물러 조성하고, 석단 위에 건물들이 배치되는데, 각황전은 석단에서 멀리 물러 앉았고, 대웅전은 가깝게 다가 앉았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서 각황전과 대웅전은, 그 절대적 크기와는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같은 크기로 보이며, 두 개의 동등한 중심 전각의 위상을 갖게 된다.

왜 이처럼 의도했을까? 화엄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답을 구할 수 없다. 원래 화엄사는 절 이름과 같이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창건되었다. 그리고 현 각황전 자리에 장육전을 짓고 중심 전각으로 삼았다. 이때만 해도 아직 대웅전은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육전 앞에는 一자 석축만 쌓고, 그 아래 마당에 하나의 탑을 세웠다. 지금의 화엄사 서탑이다. 이처럼 창건시에는 1금당 1탑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화엄신앙의 1탑 1금당
법화신앙의 대웅전 쌍탑
서로 마주보며 공존

가람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고려 초기라고 추정된다. 신라말, 이른바 후삼국시기에 화엄종은 두 파로 갈리게 된다.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북악파는 왕건의 편에 서서 고려 건국의 승리자가 되고, 화엄사를 중심으로 한 남악파는 견훤의 편에 섰다가 패배자가 되고 만다. 남악파의 중심이었던 화엄사는 이 때 주인이 바뀌어, 더 이상 화엄종의 사찰이 아니라 법화신앙 계열 (혹은 선종계열)의 사찰로 소속이 변화한다. 법화신앙계 가람은 흔히 쌍탑식 형식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불국사 대웅전 앞 마당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를 형상화 한 것으로, 법화신앙의 중요한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탑과 나란히 동탑을 세워 쌍탑 형식을 완성했다. 현재 본 마당에 있는 쌍탑은 동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서탑이 단독으로 세워진 후, 150년 후 쯤에 동탑이 추가된 것이다. 자세히 비교하면 두 탑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법화신앙의 상징 불전인 대웅전을 세워서 가람의 중심 전각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장육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웅전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육전은 없애기에는 너무나 장중하고 중요한 전각이었다. 따라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고, 장육전의 자리를 피해 새로운 자리에 대웅전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현재의 자리를 골랐고, 가람의 주 진입 방향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원래는 현재 승방이 있는 동쪽 계곡에서 올라오던 것을, 지금과 같이 계곡을 타고 남쪽에서 오르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위치상으로 대웅전이 가람의 중심이 되게 된다. 또한, 대웅전 앞에 새로 추가된 동탑은 자연스럽게 대웅전 소속이 되어, 각황전-서탑 / 대웅전-동탑의 구도가 완성되고, 기존의 1탑1금당제의 화엄사찰의 건축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웅전+쌍탑제라는 법화신앙의 가람형식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종파와 교리가 바뀌었지만, 과거의 형식을 존중하여 보존하고, 그 위에 새로운 형식을 추가했던 옛 스님들의 겸손과 지혜야말로,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아직도 지속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아닐까? 화엄사 앞 마당에 설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축적 장면이요, 역사의 증명이며, 교리적 화합이다.

사찰 도서실 필요성 '공감'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결산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토로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사찰 도서실 설립 붐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불교신문이 올 한해 동안 '우리 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연중 캠페인을 통해 얻은 결실 중 하나다.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독서에 대한 열의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조성됐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중의 하나라 할 만하다.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쌍계사승가대학에 불서를 기증하고 후속적인 기증과 도서관관리지도를 약속했다.

동산반야회·망월사·쌍계사등 동참
재정난 이유 외면 사찰많아 아쉬움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반 불자들이다. "내가 다니는 사찰에 작은 도서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에서부터 "불서를 구입해서라도 돕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그동안 소장하고 있는 불서를 모두 기증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 불자들이 독려와 동참의사를 전해왔다. 사찰과 신행단체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신행단체로는 동산반야회가, 사찰은 대구 망월사가 캠페인에 동참,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동산반야회는 사무실에 쌓여 있는 도서를 정리하는 한편 재학생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법공양운동을 전개해 불서를 모으고 있다. 불교대학 학인들의 교재와 참고도서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 동산반야회는 군법당과 교도소, 미국 시애틀 등지에 불서보내기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구 망월사는 본지 캠페인을 보고 기존 문고형을 도서실 형태로 확장, 신도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불서읽기 운동을 전개해 귀감이 됐다.

특히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소장 도서 기증은 캠페인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중 하나다. 승가대학 도서관 활성화에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학인들이 공부하는 승가대학(강원)에 도서실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정 원장은 논문, 학술서 등 소장불서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정 원장은 쌍계사 승가대학에 110종 221권을 1차분으로 전달하고, 후속적인 불서 기증과 전문사서를 통한 도서관리 지도도 약속했다. 쌍계사는 정 원장을 비롯 신도들이 기증한 도서로 내년초 도서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지의 연중캠페인으로 인해 도서실을 개관하고 있는 기존 사찰은 도서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도서실이 없는 사찰의 경우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불서읽기 확산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실제로 도서실을 연 경우는 기대 이하였다. 대부분 사찰들이 취지에는 동감했지만 막상 도서실을 여는 데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첫째 원인이 예산부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 강조했듯이 도서실의 마련은 예산보다는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사찰들이 예산이나 공간부족 등을 탓하지 말고 미래불교를 위한 인재불사 일환으로 도서실 만들기 불사에 나서길 바란다.

사찰도서실은 독서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사찰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초심불자들의 소양함양에서부터 신행 포교를 위한 기반 시설이다. 책을 대여해주고 읽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의 신행과 삶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광생 교육의 장이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동안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사찰 전체가 책 읽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후감대회, 독서퀴즈대회, 독경대회, 도서전시회, 헌책 바꿔읽기, 바자회 등이 그 대안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래의 신행패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 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신도들의 욕구 또한 더 이상 법당에만 안주하길 꺼려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서읽기'는 바른 신행의 으뜸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사찰 도서실은 불자들의 깊이 있는 신행생활과 다양한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21세기를 힘차게 내달을 수 있는 '준비도량'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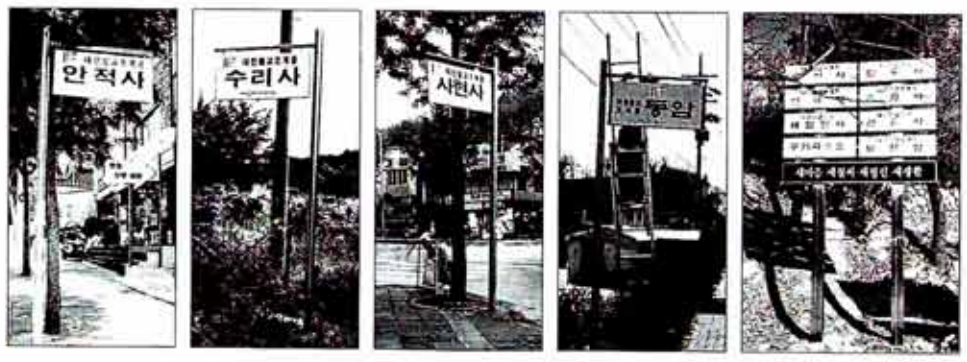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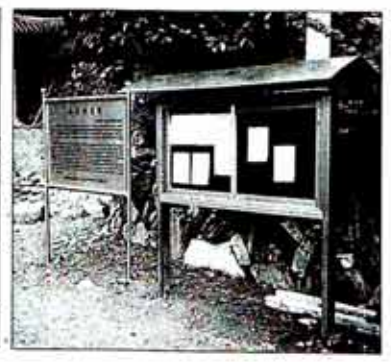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아는 게 도가 아니라 실천해야 도

살던 습·욕심에 끄달려 마음 자유롭게 못써
오신통 누구나 갖췄지만 심안으로 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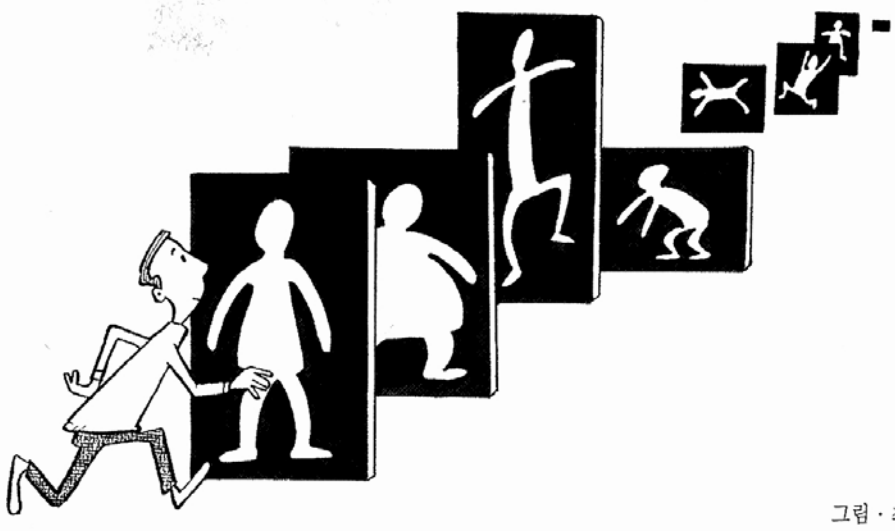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기에 와서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법과 부처님의 법이 하나여서 일체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도 오직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우리에겐 누구나가 다 오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신통이라는 것은 뭐냐. 보는 것, 듣는 것, 남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는 것, 내 몸으로 오고 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즉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평소 때에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육안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안으로 봐라 이거죠. 그리고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들어라. 또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심안으로 알아라. 또 안다 하더라도 안다 하는 말없이 알아라.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모든 작용을 하니까 모두 여러분의 마음대로 천차만별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말입니다.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고 요량있게도 쓰고 요량없게도 쓰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겁니다. 알면 자유스러울텐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아는 사람한테 복종해야 하고 부자유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안보이는 데도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들이고 낼 때 보이는 것은 대치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대치를 못해 나갑니다. 안보이는 데서 너를 죽인다 해도 대치를 못해 나가고 어떠한 막중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치를 못합니다. 뭘 봐야 어떻게 하죠.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러니 알고 있으면 모든 거를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미리 관해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항상 발버둥치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팔짝팔짝 뛰고 속이 상해서

발자국 짊어지고 오지않듯
삼세가 모두 공했으니
찰나찰나 화해 돌아가는
이뜻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펄펄 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게 살려면 좀 마음이 커지고 좀더 지혜가 생겨야만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몸뚱이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몸뚱이를 종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즉 심부름꾼이죠.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없고는 부처님도 없고 또 기독교에도 여러분이 없고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종교가 생겼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히 아시고 가야만 한 발이라도 헛딛지 않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아는 것, 보는 것, 이런 것을 능란하게 보고 알고 이래도 이건 도가 아니니라. 그건 왜냐하면 그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이 물이 여기 한 그릇 있다는 거를 알고 목마른 사람들더러 이 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만 가지고는 도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갖다가 먹게끔 해주는 것이 실천이며 그것이 도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데를 아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 있는 걸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 안에서 마음이 탁 터져 나와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단 얘깁니다. 여기에서 착과 욕심과 살던 그 습관을 놓지 못하고는 이 마음이 벗어나질 못해서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죠 마음이.

항상 살아오던 습에 끄달려서 말입니다. 이사를 갈 때도 이게 뭐 선이 있다 이러면 이사를 갈 때여 그 선이 있어서 못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사람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그날 좋다면 그대로 이사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미신이 있어서 못간다, 손이 있어서 못간다, 신이 잘못하게 할테니까 못간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99%로 정말이지 고등동물로 태어났는데 고등동물로 태어나서 왜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게 많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습관 탓입니다. 습관! 또 욕심에 매달리고 인과에 매달리고 집착에 끄달려서 그렇습니다.

집착에 끄달리면 마음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사시면서 '아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아무 걸림이 없이 '그래' 하고는 아빠노릇을 해줍니다. 그 얼마나 여여합니까. 그리고 '여보' 하면 남편노릇을 그대로 여여하게 해줍니다. '형님' 해도 그렇고 '얘 아무개야' 해도 그렇고 내 몸 하나가 화해서 나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 몸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사는 것도 공기주머니인데 우리는 그 공기주머니 바깥을 한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통을 떠나서 네가 바깥으로 나와야 네 몸을 맘대로 굴릴 수 있느니라. 네 몸통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네 몸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의적으로 지구 자체가 바로 공기주머니인데 그게 버스라면 우리가 한 버스를 타고 사는데 걸상 하나를 가지고 네 걸상이니 내 걸상이니 하고 싸웁니다. 이게 속 넓은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싸우고 네 거 내 거 하고 싸우고 좁게 말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딨느냐, 바로 내 마음이 활달하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버스안에서만 잘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만이 일체제불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통신이 되느니라, 오로지 내 마음속에 근본 자체가 바로 일체제불의 통신처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넓혀서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를 참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 미래, 현재 삼세가 하나로 그냥 끊임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실 때에 발자국을 하나하나 떼어놓으실 때 떼어놓은 발자국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이거를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를 들으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또 만나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공했단 얘기죠.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이 뜻을 우리가 원만히 지혜롭게 찰나찰나 섭섭지 않게 대치를 해나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한테 추앙을 받게 되죠. 그건 왜냐, 이 사람 마음이 그쪽 마음하고도 통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이 마음이 통하는 거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강도 건너고 미국도 가고 우주도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고 오고 이러는 거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아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현혹시켜서는 아니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근본을 알아서 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대체의학과 음양침술 특별강습회
대체의학을 알면 인류는 각종 성인병과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어떤 질병이라도 5~1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사 이 상 문
■저서
음양감시보감/ 밥따로 물따로/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한국인
특강요지 대체의학이란 무엇인가?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병 증상은 수십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음양침술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37년간 응용한 비법입니다.)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혈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을 알게 됩니다.
▶첫 째 :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 째 :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 째 :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등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의학과 음양침술은 범 국민적 차원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특별 강습회를 갖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뒤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양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201호)
■문의처 : 02)861-5851~2 / FAX : 02)861-5852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권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 신발 - 권行 만 행
·비구스님 用 ·회색, 흑색
·비구니스님 用 ·회색, 흑색
건강신발 권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行대표 박동진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 이끄는 자불 두고 누굴 믿습니까

☞ 15면에서 계속

스로 알게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현혹을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 첫째 마음을 오로지, 주님도 자기한테 있고 부처님도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불'이라고 했습니다. 자불(自佛). 자기의 부처님, 또 자기의 부처님을 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했느냐. 나는 주인이자 주인이면서도 모든 생명이 이 오장육부안에 잔뜩 들어서 작용을 해주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공했다 이겁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개개인이 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인 자기를 잘 알라, 진짜로 주인공을 믿어라,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보배중에도 큰 보배이며 모르는 것 없이 알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으뜸가는 보배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으셔서 그 보배를 알았고 으리도 그렇게 깨달아서 보배를 알면 동시에 동일한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지니까 그냥 일체처가 다 동일하고 마음도 동일하게 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속 여기에는 일체제불의 통신처도 되고 일체 우주의 통신처도 되고 또는 일체 만민의 통신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빈다 하더라도 네가 너를 잡어먹을 수 있어? 둘이 아닌데, 한다면 딱 잡아먹을 거를 멈춥니다. 우리가 우리만 말을 하고 우리만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저런 돌 하나 풀 하나도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생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쓰는 사람은 새도 와서 몸에 앉죠. 새가 왜 그렇게 앉느냐, 마음을 놓으니까. 저 사람은 가서 앉아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앉죠.

이 태국이란 나라 여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맹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빨리 자기가 지혜를 넓혀서 통신하라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전부 해결을 하고 이렇게 돌아 원자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해결을 해놨으니까 보이는 데로 탁 나오죠. 이게 참 묘법이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라면 알아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부처님도 무슨 부처 무슨 부처 쫘-악 해놓고 이게 엇갈리게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명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불인 것입니다. 왜냐, 진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만분이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해나가니까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아파서 여기다 관할때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러는 까닭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건 자부처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준다 이겁니다. 하인을 뒀다 하더라도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야 하지 심부름 안시키는 데 우두커니 있지 뭘합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약사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또 관세음보살 하면 이 관세음보살은 왜 머리에 요렇게 부처님을 요렇게 해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은 한울을 말한 거고 한울의 종자를 말한 겁니다. 한울의 종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머리 위에 그걸 이고 있다. 즉 말하자면 저 종자를 받아 이고 있으니까 산하대지의 어머니다 이거야. 산하대지의 많은 생명들을 낳아서 기른다. 그래서 그 산하대지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즉 보살의 모습이다. 즉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더러 당신의 관한 건은 모두 맡아서 좀 하시오 이렇게 해서 여자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알아듣기 쉽겠기에 이럽니다. 그러면 보살은 남편의 마음에 의해서 조건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하대지에서 기르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둘입니까 어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다. 일체 만물과도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형성되고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올라왔으니까 미생물의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는 부모죠. 허허. 축생이 됐다 하더라도 축생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죠. 그랬는데 사람으로 돼가지고도 몇바퀴 돌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는데 어떻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 자식 내 부모 아님이 없다, 그리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니 둘로 보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모두 자비스럽게 해라, 자비스럽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바다는 썩은 물, 고름물, 흙물, 핏물이 다 모여와도 싫단 말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니 바다와 같이 마음을 써라, 그럼 다 받아들이면 그것을 또 분수로 올리듯이 수증기로 올려서 또 그것을 정화시켜서 물로 내려보내면 요만한 풀 한포기도 다 먹고 산다. 그러니 그러한 뜻으로써 너희는 지혜를 넓혀라, 그럼으로써 이름이 주님이고 이름이 부처인데 이름이 무엇이든 그걸 떠나서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없는 이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진짜 인간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도리를 알고 이 몸을 벗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철 살다가 그냥 몸 벗고 또 여기에 끄달려서 나고 또 끄달려서 나고 또 잘못 살면 축생으로 끄달려서 몸을 받고 이러면 축생의 대접밖에는 못받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대접을 받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까맣게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세세생생을 이 몸을 받아 나지도 않고 축생의 몸도 받아나지 않고 이 세상에 다시 나서 구르지 않고 찢기지 않고 뜯기지 않고 피를 흘리며 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생 사는 동안에 이 도리를 잘 배워야만이 벗어나서 그렇게 세세생생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론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 태국에 와보니까 전부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믿는 데 뭘 믿느냐. 이 안에 자기 자불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면서도 지혜를 바깥으로 돌려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져도 둘이 아니게 생각하고 모두 측은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자기 생명으로 보고 자기 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줄 알아야 우리가 요다음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한생각이면 다 건질 수 있게끔 말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라 하면 이게 보통 그냥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보통 말로 알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한생각을 하는 거 하고는 틀리단 얘깁니다. 주인공을 믿고 진짜 생각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한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 지금 하혈을 해서 죽겠어요" 하고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그래? 알았어"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간다면 늦어서 벌써 버스는 지나가요. 그 사람은 못살리죠. 그러나 한생각이면 거기를 찰나에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전화하고 한시간도 못돼서 피는 멈추고 다 나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뿐이죠. 네 형제 내 형제 따지지 말고 그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마음 내주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더라도 아프지 않고 모습을 벗게 해주고, 개 한 마리가 죽게 된 거를 볼 때도 '너는 그저 아프지 말고 죽어서 모습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순간에 그 모습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화해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사람대접을 받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여러분은 말없이 말하는 거 모르시죠. 저런 나무들도 말없이 말하는 거 모르시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말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죠. 땅도 살아있고 땅도 생각이 있고 이 땅에도 망이 쳐져 있습니다. 땅속으로 이렇게 망이 쳐져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 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몸에도 전부 세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법망입니다. 바깥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도 아무거나 들어와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잘못되는 걸 막아 돌아가는 거죠. 이 세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미줄 얽히듯 했으니깐요. 이 지구에도 그렇게 돼있듯이 땅에도 그렇게 망이 되어 있습니다. 몇층 아래는 망으로 돼있고 또 젖같이 끈적끈적하게 돼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근본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병원에서 호흡을 못하면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것도 산소로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소가 75%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산소보다도 더 윗길이죠.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정말 에너지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는 에너지를 허공에서 끌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나쁘게 쓸려면 이 수소를 얼마나 나쁘게 쓰겠습니까? 지금 수소폭탄 말입니다. 그러나 수소폭탄 그것도 그것을 잘 돌려서 연구하기에 달린 거죠. 이런 말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깨우쳐서 그 도리를 다 알 수만 있다면 그냥 끌어내려서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하게, 정말 물이 없다 한다면 바닷물을 갖다 먹게 만들고 또 에너지가 없다 하면 에너지가 달리 없이도 우리는 그 허공의 에너지를 똑같은 걸로 잡아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갖추어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내면에서 통신하나 못하니 어떻게 일체제불과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제불은 다 전화를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죠. 통신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죠. 통신처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사람마다 여기 밖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불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전부 타의에서 구한단 얘깁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 외에 말입니다. 어디서 자기를 위해서 그 아픈 거를 다 어루만져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저 나무의 뿌리가 자기 싹을 어루만질 수 밖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나무 뿌리가 자기 싹을 어루만지듯이 인간도 자기의 불성 자체가 바로 주처며 자기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 이 시자를 이끌어가는 그 자체 근본이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면 주인인 운전수가 끌고 가서 고칠 거고 먼지가 앉아서 더럽다면 운전수가 가서 깨끗하게 닦겠죠. 누굴 시켜서라도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대신해줍니까? 대신 해 주는 법은 영 없습니다.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먹는 거, 똥누는 거, 깨닫는 거, 이런 거 대신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대신 똥눠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불교라는 이 공부가 바로 이런 것을 뜻하지 여기다 놓고 빌고 저기다 놓고 빌고 이러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마음을 정성껏 해가지고 법당에 오시면요, 법당에 저



그림 · 최주현

썩은물 고름물 흙물 핏물 싫다 않고 다 받아들이는 바다같이 마음을 자비롭게 쓰면서 지혜를 넓히세요

부처님도 내 모습과 같습니다. 이 내 몸이 부처님 몸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인지라, 나보다 높이 보지도 말고 얕게 보지도 말라, 거지를 봐도 얕게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앨써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그 뜻이 다 풍겨서 그저 굶는 사람은 먹게 되고 헐벗은 사람은 입게 되고 또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공부입니다. 이런 세상에도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아마 이 지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코웃음 칠 겁니다. 코웃음 칠 게 뭐냐 하면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지구를 요런 손가락 하나로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른 혹성이 우리 지구를 치면 큰일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그 혹성이 돼서 혹성속에 들어가서 그 혹성을 끌고 멀리 가서 갖다가 버리고 오거든요. 부딪치지 않게.

'내가 뭐 할 수가 있나,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안하니까 그렇지 '할 수 없는 게 어딨느냐?' 하고 들어가보세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다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가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럴테니까 걱정은 안해요. 언젠가는 자기 주인공을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저기 저 보살님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거를 오직 신념으로 믿고 그냥 떨쳐버린 거에요. 여지껏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감사한 일만 생기죠.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진짜로 감사한 일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안으로 찾는다면 감사한 일이 생기지만 바깥으로 찾는 사람은 절대 감사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난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기독교에서 오든 가톨릭교에서 오든 다 그저 잘되라고 괴롭지 않게 살라고 이러는 거죠. 한 버스를 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머니에서 허덕거리는 거지 두 주머니가 아닙니다.

진리를 한번 보세요 안그런가.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의 불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생명의 근본 말입니다. 생명의 근본이 있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작용해서 대치를 할려니까 주인공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여기 의식들도 다 한마음이 돼줘야만이 아픈데가 낫게 되죠. 간이 아프다면 간의 생명들이 싸우다가 죽으면은 다 굳어져서 그게 간암이 되는 거죠. 만약 싸움을 안하고 호응을 한다면 어떻게 간암이 됩니까? 네?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싸움을 해서 한쪽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싸움을 안하면 죽지를 않죠.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서 생기는 것도 너, 나 따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백혈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또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싸우는 게 있구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싸우게 되면 그냥 살이 굳어져 들어가니까 병자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모두를 둘로 보지 말라. 과거로부터 인과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이 다섯가지가 주둔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기가 벌여놨던 일이 현실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전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다 컴퓨터입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요.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뭐 잘못되고 이러는 컴퓨터가 아니라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도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그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 업보가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왜 컴퓨터냐. 과거의 일들 모두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다 여기 머리에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입력이 되는데 그 입력되었던 것이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컴퓨터 현실에도 넣어논 대로 나오죠. 컴퓨터에 입력이 안들어갔으면 안나올텐데 넣어서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업보다 죄다 팔자 운명이다 이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앞서의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왜 없애느냐.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안되는 것도 할 수 있어. 안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오로지 거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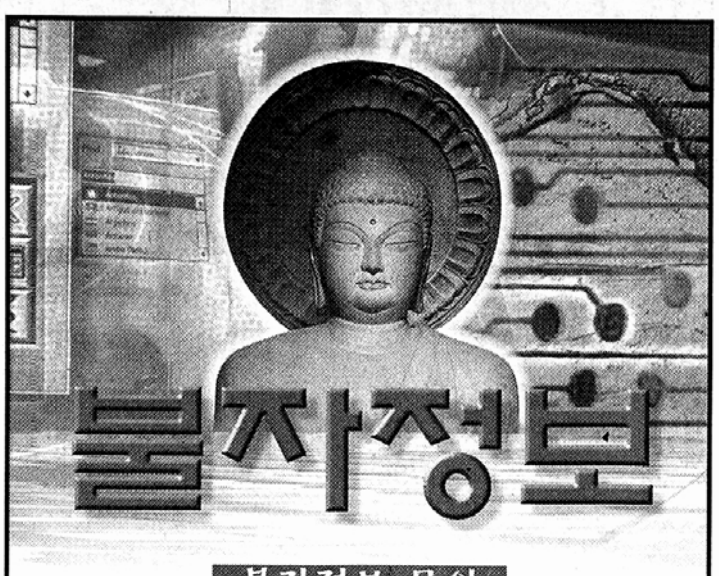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좋게 살 수 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서의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러지만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드려서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 그저 주인공에다 모르시는 건 맡기세요. 그러면 좋은 입력으로 됩니다.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루요 그건.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는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를 믿으라는데, 자기 자성신을 믿으라는데 어찌 못믿습니까. 그럼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자신이 주처며 주인이며 바로 불성이며 부처며 전부인데.

정말 나는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요다음에 이런 중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됐으면 하는 거요. 사는 것이 공부니까 앉아도 좌선이 되는 거고 일어나도 입선이 되는 거고 드러누워 자도 와선이 되는 거고 일을 해도 행선이니까. 그저 나는 이런 거 공부하기 때문에 일을 못해 이러진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저 마음이니깐요. 열심히들 해보세요.

내마음 근본은 일체제불과 통하는 자리 진짜로 믿어야 깨닫고 감사할 일 생겨요

※위 법문은 1999년 4월 25일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개원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풍수지리 특강
풍수지리 특강안내
⊙음택, 양택 생활풍수 강의
⊙매주: 화요일 10:30부터 시작
⊙매월 : 1회 현장답사 실습
강사약력
⊙한국일보 문화센타 풍수지리 강사
⊙한국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남경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명당과 생활풍수」 지음
남경풍수지리 연구회
서울 종로구숭인동 70-15(2층)
남경 성필국 선생 직접 강의 (02)763-6949

수맥찾기
무/료/강/좌
매주 목요일 14시
수맥파의 영향은 동절기에
더욱더 많이 받습니다.
※ 수맥강좌 상담 ※
대붕기살림
02)734-2118/011)239-6817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화·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쵯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옆)
☎ 02)511-0108

구인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약간의 보시금을
드립니다.
(45세-60세)
0582)
533-2133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사찰 걸립할
터를 시주할
신심있는 불자를
찾습니다
011)
9027-8207

한식구처럼 기도하면서
공양주로 기거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산청군 지리산 종불암
※용돈은 약간 드림
0596)972-1268
0596)973-1267

어린이 집 원장 모심
본 어린이집은 대전에 있는
조계종 산하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약 130명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스님을 모십니다.
▶나이 : 30대 의 비구니스님
▶자격 : 원장자격이 되는 분
(유아교육과 졸업이나, 교사자격이 있고
사회복지기관 3년이상 근무한 사람)
녹야원 042)625-1080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복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난치성 간질·몽유병
환자가족 비밀 보장
약물치료가 아님
약을 먹어도 치료 안되는 분
병명이 바뀌는 분
병명없이 아픈 분
0595)884-1789
011)883-9144/011)844-9144

우리맛입니다!
된장,간장,고추장,메주
사찰전통법으로
속성, 제조하였습니다.
신도님들의
이용 바랍니다.
0351)863-1888
0351)863-0408
지장사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무료치료 안내
뼈 단순골절 기공으로 10분내
무료로 부쳐드림.
엑스레이 필림 지참요
연락처 : 0374-332-9190
016-363-9190
※기공 무료교육도 실시함 ※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명: 원각사
◇창건주 및 주지 : 신필노미(법명: 지해)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산8번지
상기 사찰 창건주 및 주지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본 사찰의 운영 및 수행과 차이가 있어서,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1. 26.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승적번호 : 051-196
◇주민번호 : 580705-1350715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723-1
◇성 명 : 이 충 운(법명: 현수)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2. 8.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전철역)서 10분 거리
◆부지 : 5,000평
◆건물: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종무소,
요사채, 미륵불, 종각
◆가액 : 13억 8천만원
◆특징 : 천연약수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비하였고 납골당 및 영탑공원의 요지로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유서깊은 도량임.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포교원 안내
◆위치 : 천안
◇부지 : 80평 ◇법당 : 12평
◇요사채: 20평
◇가액 : 6천 5백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3천5백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포)
◇법당 : 25평
◇요사 : 55평
◇가액 : 8,000/80
◆옥상 사용가 : 60평
●진남, 광주, 순창, 남원, 정읍, 나주 목포지역에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에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011)271-7603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대전에서 30분거리
◆부지 : 368평
◆법당 10평, 요사채 30평
◆가액 : 9천만원
0461)735-5850

포교원 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 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전세2,500만원(월세가능)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52) 254-6689
011)9576-6338

포교원 안내
◆부산 온천장 식물원 4거리
경보아파트앞 35평,
- 보증금1천만원 월세30만원
◆대구 송현동 앞산
청소년수련원 맞은편4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세40만원
※시설 일체 무상증여, 권리금 없음.
053)621-2626/0561)744-1689
011)763-1690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충북괴산
◆면적 : 임야 27,000평
◆준농림지역, 도로접, 야산
◆가액 : 평당 6천원 (1억 6천만원)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찰 및 부지를
안내하오니 많은이용 바랍니다.
삼호공인중개사
0431)216-7900 **심청산**
011)484-4555

불사할 암자(터)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면적 : 임야 4,445평 (밭 2천평 경작중)
◆건물 : 2동 80평(임시법당, 17평, 방8, 욕실, 실내화장실 3, 큰거실, 공양칸)
◆가액: 2억 2천
(평당 약 5만원 - 절충가)
◆주위 조경·경치 정말 수려, 트럭도 진입가능
0591)746-2478/011)830-2880

포교원 안내
지장도량사찰로 포교원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위치: 울산 우정동
지장보살님 도량
◆평수: 41평(상가건물내)
◆가격: 전화문의 상담요망
052)276-1303/052)275-1603
011)566-5303

요양원 안내
◆위치 : 강촌에서 차로 7분거리
남면
◆밭 500평, 대지 100평,
건평 25평, 방2개, 주방겸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일광마루
◆150m 암반수, 물이 아주 좋음
◆뒤는 산, 옆은 계곡
◆내부가 황토 흙벽돌집
◆가액 : 1억 2천
0361)252-6756/016)345-6756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74
개원사
◆대지: 84평, 법당: 10평,
아랫채 8평, 산신각 5평, 창고 7평
◆가액: 9,000만원
0523)385-0854
017)573-0854

만물(급)안내
◆위치 : 강동구 암사 지하철역 입구
(암사 종합시장입구, 300여 시암 집결지역)
◆평수: 약 300여평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입점 물건, 시설비 포함
2억 2천(절충가능)
02)442-2866/011)769-5090
(주인 직접 상담)

불사종합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무상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부지 무상 안내
◆전국에 소재한 포교원 무상 안내
◆부전스님, · 공양주보살님 가실분,
모실 분 무상 안내
◆스님의 일반인, 무속인, 보살 및 투기성
있는 상거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국불사
02)351-4447/011)736-4447

사찰 안내
◆위치: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2/3
구리미온천 뒷편 연등사
◆건평 140평, 땅 60평,(합 200평)
◆건물(스레이트집), 법당(스레이트) 70평, 요사채(스레이트집)
◆주차장 有,
물좋고 주문진 바다보임
◆가액 : 약 1억(절충가)
0391)661-3369

사찰(급) 안내
◆위치: 충남 청양
◆대지 735평, 법당 20평,
요사 2채(30평, 10평)
◆양어장 10평, 유실수 약간
◆유학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할
예정임.
◆답사후 가격 결정
019)408-5264
0454)943-7761

사찰 안내
도심속의 토굴암자
◆몸만 들어오면 법회 바로 가능
◆산말에 동이 트는 암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1)245-5467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반액 600만원
◆주방 1, 방1, 삼존불, 신중탱화,
보일러시설 완비
032)654-5859

토굴 전세 안내
◆위치: 경기 양평(잠실에서 1시간)
◆괴암괴석의 소리산 소금강계곡,
정남향, 차돌암벽약수(특급수),
산책로 일품, 임법당 21평 +
사무실 방 5평 : 기름보일러
◆방3개, 세면장 5평, 공양실 7평,
창고
※스님, 불교학자, 회실, 별장
011)9088-7745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광릉 수목원 근접
◆대지 800평, 법당 40(목조)
요사채 80평
◆산세 좋고 계곡 있음.
◆가액 : 5억 7천만원
▶전국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 찾습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함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가액: 6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대지 40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가액 : 6천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대지 : 6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동 50평
◆ 산세좋음
◆ 가액: 9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시
(전철역에서 200m 거리)
◆대지 : 55평
건평 : 2층 법당 (40평)
1층 요사 (40평)
◆가액 : 3억 2천만원
◆도심포교 최적지임
018)273-9390/ 02)561-7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절터 안내(별장터)
◆위치 : 전남 진도군 임해면 죽립
정동향에 위치 (해돋이볼수있음)
◆땅 : 4,000천평
◆저수지 : 79ht, 담수량 273,000m
◆여귀산(해발457m)안에 사찰위치-
등산코스, 바다위 수십개의 섬이
있어 경관 빼어남. 물이 깨끗
◆사찰서 해수욕장 5분거리
◆국도서 찻길로 사찰까지 약 5분거리
◆방문 답사후 가액 상담 요망
0632)544-0086/0056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내년 1월 실업급여 상향

(생활)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시행예정이었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을 내년 1월부터 3개월 앞당겨 실시키로 11월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고, 1일 최저 실업급여액도 8,960원에서 11,520원으로 인상된다.

해외유학 완전 자율화

(교육) 내년부터 자비 해외유학이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1월30일 자비유학 규제조항을 철폐,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만25세, 대학원 석사과정은 만27세, 박사과정은 만28세가 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분묘 60년 지나면 화장 · 납골

(장묘)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월29일 앞으로는 분묘를 최대 60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해 묘를 없애도록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르면 내년말 또는 2001년초부터 적용된다.

금융상품 인터넷 안내

(금융)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 적립기간 등 특징을 자세히 정리해 놓은 이 사이트(www.bittbank.co.kr)는 은행, 신용금고, 증권회사별로 예금상품이 분류돼 있다. '목돈 굴리기' 코너에서는 원금과 적립기간을 입력하면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女공무원 매일 1시간 '육아'

(보건)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유아가 만 한살이 될 때까지 매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갖게 된다. 정부는 11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성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한 달에 하루씩 쉬는 여성보건휴가를 주도록 했다.

혈액검사로 암 진단

(건강) 간단한 혈액검사 후 서너 시간 안에 위암 간암 폐암 등 7종류의 암 발병여부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암진단 키트'가 국내 제약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미약품은 암환자 680명과 정상인 288명의 혈액을 감사한 결과 82.5%~94.7%의 암 진단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전자 조작식품 善이나 惡이나

"과학적 산물" "환경재앙 가능성" 의견 팽팽

세계적으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 인류는 92년부터 21세기 식량대안으로 유전자를 조작시킨 식품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해성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지구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유전자 조작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해롭지 않다'는 연구결과 역시 없는 형편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각종 연구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적인 다양한 형질이 없어지는 등 환경재앙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불교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생존이 우선인가 아니면 환경의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미묘한 문제가 교차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구경〉에 "사람이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자연스런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윤회설에도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운 박사(한양대 명예교수)는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며 "이것은 결국 연기합으로써 인간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유전자 조작식품은 불교사상에 어긋난 과학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기독교가 생명논리를 창조주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불교는 교리 어디에도 자연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말라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 조작식품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불교에서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유전공학을 통한 식량개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며, 따라서 교리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인간생명의 존귀함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김용운 박사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개발은 자비행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호진스님은 "인체나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줄여야만 개발목적의 본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무게중심은 서로 다르지만 상반되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자 서로 연기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인간중심'은 곧 '자연중심'이고 '자연중심'은 곧 '인간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유전자 조작식품 문제는 동전의 양면 중 어느 쪽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불살생(不殺生)'을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 '일체 생명의 가치가 제한없이 발휘되는 세계를 이루리라'는 적극적인 발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과학사상〉의 김용정 편집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교리의 재해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담배예절 바르게… '한국 담배소비자연맹 예절바른 담배문화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거리에서 '담배를 예절있게 피우고 깨끗하게 버리자'는 '클린 스모킹' 캠페인을 벌였다.

주부 3명중 1명 "로비경험 있다"

기혼여성 6백명 설문

'남편을 위해서라면 로비도 내조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주부 3명중 1명이 남편의 직장 상사 등에게 '로비성 선물'을 한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11월20일부터 5일간 문화센터 수강생인 수도권지역의 30~50대 기혼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르비 관련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응답 주부의 39.1%가 '로비가 마땅히 해야 할 내조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이는 최근 국가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옷로비의혹 사건과 같은 '로비 문화'가 특권층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함을 더해준다.

로비 횟수로는 6~7회(30.8%)가 가장 많았고 8~9회(24.7%), 3회이하(19.1%), 4~5회(16.1%)순이었다. 로비대상은 70.2%가 '상사의 아내'를 꼽아 옷로비 의혹의 로비형태가 일반적 경향임을 보여줬다.

새천년 맞이 지구촌 행사 풍성

새 천년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새 천년 맞이 행사에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밀레니엄 행사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게 된다.

△평화의 날=2000년 1월1일 0시를 기해 세계 곳곳에서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1분간 자신의 종교에 따라 기도나 명상을 하며 평화를 기원하자는 행사.

△100만개의 풍선=2000년 1월1일 0시를 기해 세계 각국에서 100만개의 풍선을 누군가에게 동시에 날리는 행사.

△팀워크 2000=지구촌 식구들이 동시에 같은 행동이나 놀이를 하며 밀레니엄을 축하한다.

△평화의 릴레이 2000=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70여개국의 참가자들이 '평화의 횃불'을 이어받아 지구촌을 도는 행사.

△밀레니엄 프로젝트=1999년 12월31일 정오부터 2000년 1월1일 정오까지 24시간동안 각국에서 밀레니엄 전야와 첫날을 보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자는 취지.

시론

분노하여 날자

한 세기가 멀어지고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희망으로 맞이하려는 움직임들로 온통 부산스럽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만 떨어도 되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눈으로 지난 세기를 반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내딛는 우리의 보폭이 결정될 터이기 때문이다.

돌아볼 것도 없이 지난 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연대기는 격동과 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제국주의 물결에 침몰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단으로 인한 동족상잔과 소모적인 대립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반민주의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도 채 몇 년 되지 않은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화니 개방이니 하는 혼돈에 가득 찬, 또 다른 천 년이 밀어닥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옳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과제물이 속속 쌓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성낙주
〈소설가〉

얼마 전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일제에 의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 현재형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모든 기록과 전시물들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뚝 멈춰 서 있었다. 해방 이후 반세기 가량이나 이 땅을 휩쓴 독재와 폭력과 야만의 흔적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손에 의해 저질러진 반민주와 인간부정이라는 악업의 증발. 그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이며, 증거 인멸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정직한 분노는 세상을 바로잡는 힘의 원동력이다"

〈장자(莊子)〉 첫머리에 붕(鵬)이란 새가 나온다. 북극 바다에 산다는 곤(鯤)이란 물고기가 새로 변신하면 곧 붕이 된다는데, 등의 길이가 무려 수천 리에 이르고, 북극과 남극을 자유자재로 오간다는 이야기이다. 그 새가 남극 바다로 옮아 갈 적에는 물결을 쳐서 삼천 리나 튀게 하고, 빙빙 돌며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나 올라가며, 반년을 날아야 쉬게 된다는 것이다.

헌데 그 새가 날아오를 때의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노이비(怒而飛)--. 흔히 '떨치고 날아오르면'으로 풀이되지만, 글자 그대로는 '분노하여 날아간다'이다. 그렇다. 분노를 모르는 새라면 남극과 북극을 오가기는 커녕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굼벵이나 잡아먹는 삶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는 인간의 삶, 혹은 역사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분노하지 않는, 또는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는 개인에게 발전적인 삶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젊은 학자가 기왕에 축적되어 있는 선학들의 연구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의 학문 인생은 평생 선학들이 남겨놓은 자구에 토나 달고 주석이나 붙이는 것으로 마감할 것이다.

한 사회, 또는 한 민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민족의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해 진정한 분노를 갖지 않을 때, 그들이 꾸려내는 역사란 죽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절, 습관처럼 독재자를 비호해온 불교계 일각의 행위는 결코 여법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아울러 우리를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종권 다툼도 우리가 눈감을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다) 가치판단이 사라진 자비는 힘에 대한 굴종, 혹은 진실의 굴절일 뿐이다. 물론 불가에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란 말로 묶어 가장 경계한다. 그러나 대의를 위한 분심(憤心)과 사사로운 분노는 구별해야 한다. 붓다의 자비 한켠에는 세상의 미망과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분심이 자리잡고 있다.

아직 우리는 어설픈 자비나 용서, 관용을 펼쳐들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분심(大憤心)을 잡아 일으켜야 할 때이다. 정직한 분노, 올바른 분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즉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원동력인 것이다.

분노하는 새만이 멀리 날아간다.

發願已歸命禮三寶「새천년 불국토」

2000年 新年特輯新聞 廣告案內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본지는 정성을 다해 2000년 신년특집신문을 꾸미고저 합니다.
모두가 무루 동참하시어 하나되는 불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천년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새천년 신년축하 광고
규격및단가 : 5단 × 37cm - 80만원
5단 × 18cm - 40만원
5단 × 9cm - 20만원
7cm × 6cm - 10만원
제 작 일 : 99년 12월 24일(금)
제작면수 : 28면 합쇄
접수마감 : 99년 12월 18일(토)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737-8881 (대표)
02)732-1522 (직통)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http: //www.mahamall.co.kr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마련한 "현상공덕향 경품대잔치" 행사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운의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추첨일 : 1999년 12월 3일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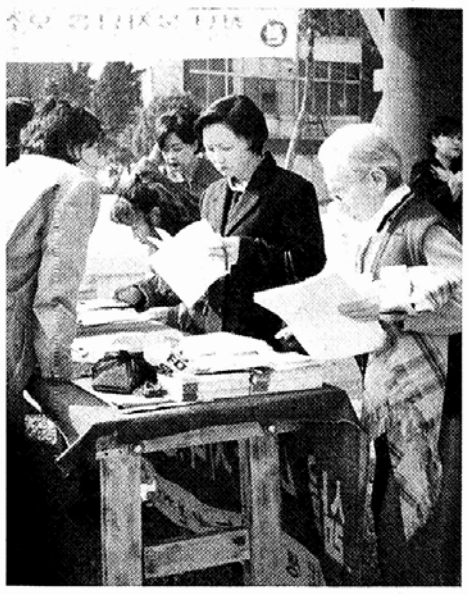
■대상 (1명) : 금강산여행권
손파항 부산 연제구 연산9동
■1등 (1명) : 불교반지(18K)
김대곤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2등 (2명) : 고산다기
김인자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이종태 부산 금정구 회동동
■3등 (2명) : 와발우
천순기 부산 서구 서대신동
박혜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4등 (5명) : 수암 만다라 옥침
서정술 경북 고령군 쌍림면
이경숙 경기 포천군 창수면
권외자 부산 남구 대연6동
김연옥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상숙 부산 북구 만덕2동
■5등 (명상방석 42명)
최중기 서울 구로구 고척동
민다래 서울 은평구 신사동
박문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정우성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강수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윤기운 경기 화성군 남양면
표은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조현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현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최지원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김광식 경북 문경시 모전동
이성규 경남 마산시 어곡동
배홍록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박철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김응기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정용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경용 충남 천안시 성환읍
고경옥 강원 인제군 인제읍
김성은 경남 통영시 정량동
김성길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박정희 충남 보령시 청라면
한상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박금희 경기 군포시 금정동
한희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
남숙녀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영분 부산 남구 문현1동
박순남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방덕순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경옥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우명주 부산 중구 동광동
이희준 경북 고령군 쌍림면
김홍길 부산 영도구 영선4가
이유진 서울 은평구 대조동
신영애 경북 청곡군 왜관읍
김명숙 부산 금정구 회동동
박향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상훈 서울 광진구 자양1동
하동훈 서울 용산구 갈월동
오대숙 대구 달서구 진천동
최덕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부연 경기 구리시 인창동
정기문 강원 춘천시 효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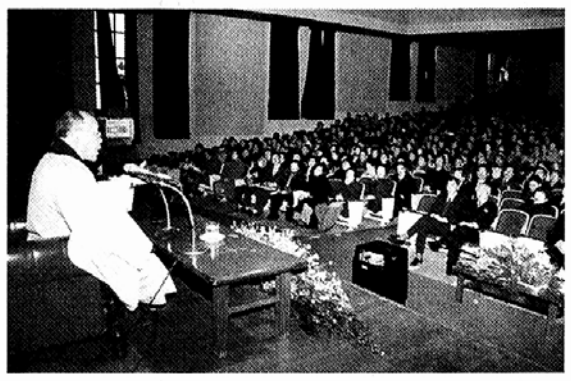
상품 수령안내
해당되는 행운의 당첨자는 행사담당자에게 전화연락 바랍니다.
확인 후 상품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 경품 대잔치 담당자: 02)732-1522(직) 유지경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 //www.mahamall.co.kr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장기기증은 만물과 화합하는 보살행





◇올해의 마지막 생명나눔 캠페인으로 열린 진각증 행사에는 4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 대미를 장식했다.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유기농산물 직판장도 함께 열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11월 법회 - 진각종 총금강회 · 영화사

장기기증 99명 · 화장서약 5백29명 동참

밀교 대중강연 무공해 농산물 판매도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대법회가 11월 22일과 27일 서울 영화사와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서울지부 주최로 각각 개최됐다.

진각종 종립학교인 진선여자 중·고등학교 회당기념관에서 혜정대정사(진각종 종학연구실장)의 밀교교리 대법회와 함께 열린 진각종 캠페인에는 많은 신도들이 동참해 올해 마지막 생명나눔 캠페인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캠페인에서는 문사국장 원명정사 등 43명이 장기기증을, 348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39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혜정대정사는 법회에서 "부처님께서는 만물과 화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면서 "장기기증이나 화장도 넓게 보면 만물과 화합하는 것"이라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름법회와 함께 열린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주지스님의 캠페인 독려속에 진행됐다.

주지 일원스님은 법문에서 "생명나눔 운동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불사이자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며 "불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생명나눔운동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34명이 장기기증을, 181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215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캠페인 동참 권유의 말

"삼라만상 모두 부처님 몸"

진각종 혜정대정사



삼라만상은 모두 법신 부처님의 몸입니다. 이 땅덩어리·물·불·바람 어느 것 하나 부처님 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바로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모여서 된 것은 아닙니다.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소중한 땅의 일부분이 우리 몸을 형성한 것이요, 그래서 뼈와 살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가장 청정한 물이 모여 피가 되고, 가장 강렬한 열을 내는 불의 중심이 모여 혈관에 피를 흐르게 하고 몸을 지탱케 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바람이지니고 있는 근본 속성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요소들을 몸 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자기 몸은 없는 법인데, 어차피 한 생을 살다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만물과 화합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나 사후 화장도 넓게 보면 만물과 화합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인연입니까. 나로 인해 다른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내 한 몸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발심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발심해 보세요.

초발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불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불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불을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발심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나눔은 대승불교 실천"

영화사 주지 일원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은 후에는 다시 사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나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로 이루었지고, 죽은 후에는 다시 지수화풍으로 분해될 뿐입니다. 죽어서 아무리 명당 자리에 묻히고 싶어해도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 이미 몸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시신은 부모님의 것도, 또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시신을 갖다 버리거나 묻거나 화장하거나 하는 것은 망자(亡者)의 뜻이 아니라 생자(生者)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렇듯 몸이라는 물건은 하늘에 떠나는, 흰 구름과 같이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겉모양에 매달려 욕심 내고 시기하고 어리석은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몸도 죽은 순간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헛된 욕심으로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무명(無明)에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생명나눔운동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 불사이자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즉 부처님 법을 현대에 맞게 실천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대승불자의 실천지침인 육바라밀의 첫째인 보시를 통한 생명나눔은 불자로서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운동임을 깨달아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동참자 명단

진각종

〈장기기증 등록자 43명〉

강동우 공옥금 김남희 김상열 김수남 김수창 김영인 김용기 김지아 김재화 김지성 나지원 라정현 박화순 신동관 신동희 신상수 양환래 유정숙 육인해 윤중옥 이명환 이미애 이성철 이은애 이을순 이효빈 인 명 장영조 전은경 전재진 전재효 정민수 정영순 정혜숙 조정연 차현숙 최나라 최희숙 함명길 현 철 홍사현 황윤경

〈화장유언서약 348명〉

강경자 강동우 강선태 강성예 강수자 강순기 강영자 강춘희 강희자 고한중 공옥금 구명선 구장춘 권기현 권영숙 권영애 권용옥 권위경 권재숙 금태숙 기순태 기순희 기창도 김갑님 김강순 김강웅 김경오 김과비 김광효 김금복 김기호 김남선 김남희 김덕주 김명혁 김무메 김문옥 김미화 김상룬 김상열 김서진 김수남 김수창 김순조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영인 김옥분 김옥훈 김용숙 김용운 김위조 김융기 김은숙 김인규 김자야 김장례 김재환 김정명 김정성 김제희 김종분 김중연 김주홍 김지련 김지성 김진산 김정효 김춘성 김태기 김태조 김팔석 김혜란 김혜자 김화자 김화지 나지원 남옵숙 노덕우 노영준 노재윤 덕의화 라정현 류말란 묘련화 루여원 문희숙 민경수 민영귀 민인자 민정금 민천대자 박대지행 박도현 박미정 박병권 박상균 박석구 박선순 박성희 박영희 박용숙 박용호 박원순 박정열 박정자 박종열 박지민 박진관 박찬숙 박창욱 박태순 박희순 박희자 방기선 방주희 배상옥 배수원 배은경 배은숙 백승한 백지현 변민남 변오희 본심정 서백석 서선덕 서영철 서정의 서태희 선혜정 성정표 성현남 성화은 손광준 손성섭 손옥태 손주영 손정희 손한규 손혜자 송선명 송옥희 송은정 송종교 시각원 신기홍 신동관 신동희 신상수 신여화심 신정숙 신종구 신태준 실금례 심봄음 심성재 심은섭 안병화 안화진 양미숙 양승애 양향래 엄주현 엄화선 여수경 염정희 오인순 오진복 오흥재 오희숙 원광자 원오향 유재순 유태순 유정숙 유정수 유정희 윤난희 윤상자 윤은숙 윤재탈 윤재숙 윤정란 윤종옥 윤종수 이강자 이국지 이광희 이근홍 이기호 이말노미 이명이 이명환 이문순 이미애 이복순 이봉우 이상순 이상순 이상옥 이상윤 이서형 이석화 이성순 이성자 이성실 이수채 이순득 이순업 이순이 이시봉 이연화 이영숙 이영숙 이영화 이영희 이옥섭 이은경 이은애 이은희 이은경 이을순 이일분 이임태 이정숙 이정희 이정희 이종숙 이종원 이종태 이태선 이필수 이해성 이향우 이현숙 이혜숙 이호방 이흥재 이화수 인 '장 인 명 일산지 일연심 임경숙 임재복 임재영 임진남 임향이 임호택 장명자 장세흥 장영돈 장영조 장윤숙 장현주 장혜규 적 광 적선애 전법지 전재진 전재효 전중배 정 구 정광심 정광효 정금지 정기호 정동규 정동환 정민수 정성화 정슈이 정순남 정순자 정심지 정영석 정영선 정영순 정영진 정예정 정인선 정진용 정진우 정희재 조경자 조금선 조동옥 조병난 조복순 조복희 조숙현 조순자 조연순 조우지 조재희 조정연 조정옥 주기선 지 훈 진의장 진화숙 차연숙 차영희 차현숙 채흥묵 천명옥 천연희 천유기 최경인 최나라 최동숙 최명대 최명옥 최무웅 최방계 최선혜 최숙자 최연옥 최용수 최우섭 최정숙 최정신 최현옥 최형화 최희숙 표연숙 하석몽 하화용 한병옥 한승철 한영미 한인호 함동수 함명길 해 성 행 원 허 성 불 화 현 철 현인정 혜안성 홍사현 홍춘선 환병숙 환선하 환윤경 환영분 환정심

영화사

〈장기기증등록자 34명〉

강달희 강정태 강혜은 곽종선 권오기 김수빈 김순이 김유빈 김진수 김형준 박옥경 박종현 박혼순 배민근 백필수 송병한 유갑순 유병권 유영빈 이숙자 이재호 임성민 임장환 임종률 장유권 정은환 정학섭 조승진 조재철 주건일 주장흔 추인효 탁승자 허인범

〈화장유언서약 181명〉

강달희 강순제 강영화 강정태 강혜은 고돈화 고명엽 고윤순 곽미숙 곽선희 곽아순 곽옥단 곽종선 구본향 구숙자 권오기 권중옥 김경희 김귀순 김난새 김덕아 김민희 김복순 김부경 김서자 김순욱 김산이 김수복 김수빈 김수영 김순덕 김순이 김순자 김순정 김신이 김예태 김옥희 김유빈 김은태 김인순 김정순 김정자 김정희 김주영 김주자 김태자 김필례 김향숙 김혜숙 김형준 김혜숙 김혼열 나금순 나정숙 남궁영희 남점분 노순례 라상미 명인숙 박경수 박경순 박두남 박명숙 박말자 박복례 박봉자 박성옥 박숙녀 박옥경 박옥실 박용분 박정순 박정애 박종순 박종예 박종현 박춘순 배명옥 배민근 배차호 백필수 서경자 서순자 서진이 성일원 성현숙 손두순 송병인 송병한 송시옥 송인순 신동자 신경희 신은자 안순정 안영순 양상례 오덕순 유갑순 유경자 유병권 유여인 유영빈 유정숙 윤종상 윤현숙 이강순 이경자 이기숙 이난여 이덕자 이명순 이민숙 이상래 이성순 이숙희 이순희 이영숙 이옥자 이완래 이월자 이일숙 이재덕 이재호 이장란 이정선 이정효 이정자 이성실 임성민 임수복 임용화 임정원 임종률 전숙희 전영숙 전영자 전영희 정계옥 정길순 정봉분 정연옥 정영목 정예순 정옥선 정유순 정유원 정은환 정학숙 정학섭 조명숙 조승진 조용운 조재철 주건일 주장흔 최근선 최남자 최복심 최숙자 최예자 최정덕 최종분 최현숙 추옥자 추인효 탁승자 하정숙 한경옥 한경희 한옥희 허덕찬 허선도 허인범 현선순 홍월식 황이섭 황인숙 황종인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이모저모

"사후화장 이젠 기본"

○…진각종 캠페인이 벌어진 진선여중·고에서는 이 학교 불교학생회 연화반 학생 20여명이 법회장소를 안내하며 생명나눔 캠페인에도 동참해달라는 애교섞인 인삿말을 건네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 이중 한 학생은 "사후에 화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세대답게 "요즘 그거 기본아니예요?"라면서도 "신문에 이름 나오면 안돼요"라고 부끄러워 하기도.

대구 청주불자도 상경

○…그동안 불교방송을 통해 혜정대정사의 밀교강좌가 계속된 탓인지 이날 법회에는 대구 청주 등 멀리서 온 불자들도 많았는데, 청주에서 조계종 사찰에 다닌다는 이윤애씨(43)는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하면서 "평소 장기기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며 "좋은 법문을 듣게 되고 뜻깊은 일에 동참했으니 보람있는 하루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자 나란히 장기기증

○…이날 생명나눔 캠페인에서는 올 캠페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엄마와 나이 어린 아들이 나란히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해 눈길. 서울 동작구에 산다는 이을순씨(34)는 자신이 서명한 뒤 이어 초등학교 2년생인 아들의 서명을 도왔다.

이씨는 "아이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했다"며 "장기기증과 화장문화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임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자원봉사자 10명도 동참

○…회당기념관에서 법회 안내를 맡았던 총금강회 서울지부신도 자원봉사자 10여명은 법회가 시작되고 법회장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한꺼번에 서명대로 달려와 서명.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종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불자들도 이젠 의식이 많이 달라졌단 말야"라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생명사랑 취지 같네요"

○…영화사 캠페인에서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유기농산물 판매장터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이 '생명과 환경'을 소증히 여기는 자신들의 이념과 다를 바 없다며 유기농산물도 많이 이용하고,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1권 ❁ 행복 의 문을 여는 이야기
제2권 ❁ 사랑 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제3권 ❁ 수행 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구미래 엮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행복 · 사랑 · 수행 · 지혜 · 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핑간책 ① 노란책 ③ 파란책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얀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
제5권(까만책) 『죽음의 재를 대우는 이야기』
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세
전화 : 02)3219-6441 팩스 : 02)653-4611

삼 · 부 · 농 · 산 · 은 · 유 · 기 · 재 · 배 · 약 · 초 · 만 · 을 · 생 · 산 · 하 · 고 · 있 · 습 · 니 · 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초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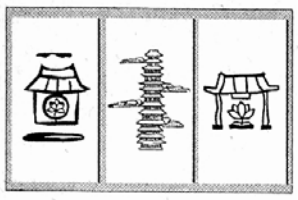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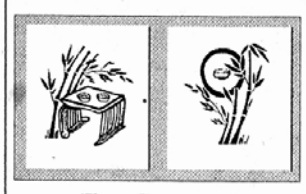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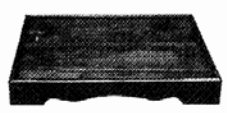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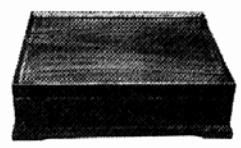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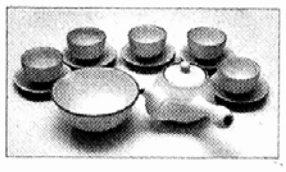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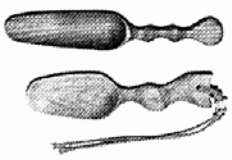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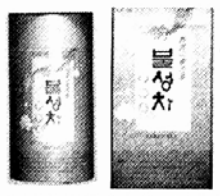
가격:₩120,000

차 시



재질 - 참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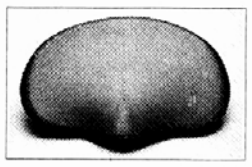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 1306-02503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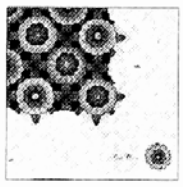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이런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기정용) 규격 ø높이13×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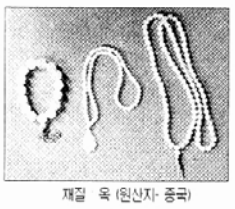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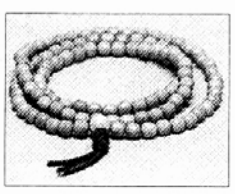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정옥 · 백옥(小) ₩30,000
정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코팅 · 골동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올바른 쇼핑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 을 운영합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8분
■ 가격: 각 ₩25,000

불교의식에 쓰이는 범음범패집

불교의식의 유형중 천도재의식의 상주 권공재를 중심으로 진행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시련, 대령에 이어 계속되는 진행절차는 관욕 및 신중작법(神衆作法)입니다.

관욕(灌浴) : 관욕은 불교의식에서 재를 올릴 때 목욕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천도재의 시련, 대령에 이어 진행되며 이를 영가에게 행할 때에는 천도 받을 영가가 부처와 보살을 만나 뵙기 전에 더럽혀져 있는 중생의 심신을 씻는 뜻을 지니며, 그 의식 용구로는 욕실을 상징하는 병풍과 그 안에 영가상, 세숫대야, 물을 뿌리는 버들가지, 수건 등이 있다. 천도재의 관욕 의식을 행할 때는 병풍 안에 관욕단을 차리고 병풍 밖 앞쪽에 의식승이 앉아 목욕의 절차를 상징하는 수인으로 의식을 진행한다.

신중작법(神衆作法) : 영가 천도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의식 도량에 모든 불법 수호(善神)들을 청하여 이들로 하여금 악귀들의 근접을 막고 청정한 의식 도량을 수호하게 하는 의식 행위를 말하며 시련, 대령, 관욕 의식에 이어 행해진다. 이 신중작법을 크게 행할 경우에는 104위의 신중을 작게 행할 때는 39위의 신중을 초청하는데 바라춤을 추는 가운데 이들 신중들의 명호를 하나 하나 봉청하는 형식으로 의식을 진행하며 소리로는 범패나 태징을 치는데 이는 요란한 의식 분위기로 악귀를 내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 다음호에는 상단권공(上壇勸供) 관음시식(觀音施食)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덕대왕 신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 가격: ₩37,000

신라의 미 성덕대왕 신종

신라의 미 하면 가장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에밀레 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현존하는 신라시대의 범종중에서 최대의 성덕대왕신종은 당시 종장(鐘匠)의 애절한 전설과 함께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조의 장구한 세월과 만고풍상을 견디어 그 자태는 본래의 모습대로 오늘날까지 국립경주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다.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은 구경2.227mm 전고3.663mm 두께203mm 음통고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 종은 신라 제 35대왕인 경덕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하여 구리 12만근을 들여 만들다가 실패하여 그 아들은 혜공왕 7년(771년)에 완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성덕대왕의 원찰인 봉덕사에 걸려있었는데 그 뒤 , 경주 읍성의 남문, 동부동의 옛 박물관을 거쳐 197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종의 꼭대기에는 우리나라 종만이 갖고 있는 용의 형태로 된 고리가 있다. 몸에는 위로부터 보상당초무늬를 새긴 원띠와 연꽃으로 장식된 4개의 유곽, 무릎을 꿇은채 날아 내려오는 4개의 공양천인상 2개의 연꽃모양의 당좌, 보상당초목무늬와 연꽃으로 이루어진 아래띠가 양간으로 되어있다. 우아한 형태 엄격한 양식, 아름답고 긴 여운이 긴 소리등은 다른 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걸작중 하나로 손꼽힌다.

달마순금판 액자



상반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8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8호
가격: ₩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가격: ₩9,5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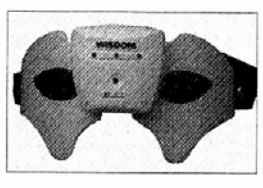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쑥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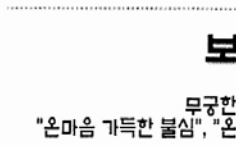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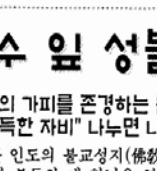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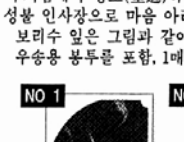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천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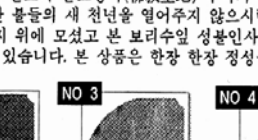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합(오색원),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 NO1, NO2 가격: 2,000원
· NO3 , NO4 가격: 3,000원
· NO5, NO6, NO7, NO8 가격: 3,5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현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법회안내

길상사 창건2돌 법회



법정스님(길상사 회주)12일 오전 10시 길상사 창건 2주년 기념법회(02)3672-5945

국태민안 기원법회



근일스님(영주 부석사 주지) 8일 오전 10시 대구 보광사 큰스님 초청 국태민안기원대법회.(053)781-5794

경찰청서 수계 법문



자우스님(금강사 주지) 9일 낮 12시 경찰청 법당 경찰불자 및 경찰가족대상 수계법회 '오계' 주제 법문.(02)313-0815

열반경 강의

유수스님(정토회 지도법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열반경〉강의. (02)587-8993

무불선원 영어법문

무심스님(화계사 국제선원)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무불선원 〈세계일화(the whole is a single flower)〉영어법회.(02)541-0002

'선문정로' 강의



목정배교수(성철선사상연구소장)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성철선사상연구소 〈선문정로〉강의.(02)944-1544

'티벳트어' 특강



허일범교수(진각밀교대학)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티베트어 연습1〉 특별강좌.(02)765-960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2월8일 (수)

■통도사 큰스님 초청 화엄산림 대법회=양산 통도사는 2000년 1월 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큰스님 초청 화엄산림 대법회를 연다.(0523)382-7182

12월11일 (토)

■파라미타부산지부 자원봉사 캠프=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는 12일까지 범어사에서 자원봉사캠프를 실시한다. 또한 창립 3주년 기념대회도 봉행한다.(051)817-2648

■'맑고 향기…' 대구모임 송년법회=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오후 3시 사무실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053)753-8883

■종교언론인 심포지엄=종교신문언론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종인평화회의가 주관하는 제3회 종교언론인 심포지엄이 오후 3시 서울 우이동 원불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02)736-2250

12월12일 (일)



◇인도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아가보자.

■인도 불교성지순례=불교신행연구원은 20일까지 부다가야, 녹야원, 바나나시, 기원정사 등 인도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02)582-6647

■내고장문화유산가꾸기=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은 창원 가음정동 고분군, 내동패총, 외동 지석묘 등을 돌아보는 내고장 문화유산 가꾸기를 실시한다.(0551)266-0170

■청보리가족 새천년맞이 만남=청보리회는 오전 11시 30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무지개홀에서 새천년 맞이 다정의 만남 행사를 실시한다.(0334)676-8700

■칠갑산 장곡사 일대 순례=터사랑은 오전 7시 30분 칠갑산 장곡사 일대로 순례를 떠난다. 용두리와 대치리, 천장리, 송학리 등의 장승도 둘러본다.(02)725-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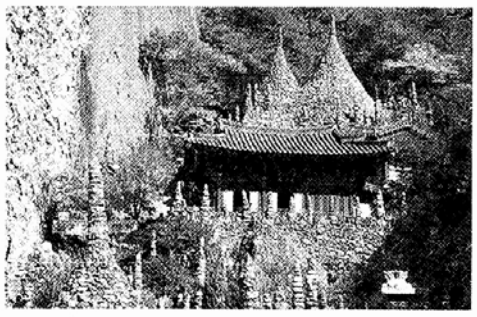
■실직자·노인 무료투약 봉사=서울불교청년회와 불자약사보리회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서울 탑골공원에서 실직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를 실시한다. (02)730-9108

■증심사·약사암·원효사 순례=여래지답사회는 오전 7시 30분 무등산 증심사와 약사암, 원효사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02)3445-0202

■불교대중화를 위한 불교음악 한마당=진주불교회관은 오후 6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교대중화를 위한 제6회 불교음악한마당을 연다.(0591)747-0108

12월 14일 (화)

■미륵사지 답사=불교문화연구회는 오전 8시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 절을 세웠다는 미륵사지를 찾아 답사기행을 떠난다. 하늘재와 옛길, 문경새재 등도 둘러본다.(02)2275-4333



◇30여기의 돌탑이 외호하고 있는 마이산 탑사.

■마이산 탑사·금당사·송광사 답사=화요테마는 오전 7시 30분 마이산 탑사와 금당사, 송광사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02)514-5511

게 시 판

알림

▲무료법률 생활상담=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전문생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02)385-1351

강좌

▲초발심자경문=길상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불자를 위한 〈초발심자경문〉강의를 실시한다.(02)3672-5945

▲초등생겨울학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또래와 뚜리 겨울학교를 개강한다. 현장학습, 지구촌여행, 폐품학교, 또래뚜리율동교실 등을 운영한다.(02)852-0525

▲풍물·구연동화등 문화=충북불교문화회관은 지역민을 위한 풍물교실, 매직풍선만들기, 종이접기, 동화구연, 레크리에이션 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한다.(0502)317-2555

▲〈천수경〉=수효사는 매월 첫째, 세째주 토요일 오후 7시 무료〈천수경〉강좌를 연다. 최혜명법사가 지도한다.(02)313-3060

▲경허의 생애와 사상=무불선원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작가 한중광씨의 지도로 경허선사의 생애와 사상 강좌를 실시한다.(02)541-0002

▲사경 선화·사군자=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10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전통 반야심경 사경, 달마대사 선화, 서예, 사군자 지도를 한다. 이운장법사가 지도하며, 통신수강도 가능하다.(02)2242-0331

모집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마포구 관내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02)365-3677

▲컴퓨터교육 강사=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지도할 강사를 모집한다. 주 1회 자원봉사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02)385-1351

▲소금곳간지역학교 자원교사=구립 염창동 청소년공부방에서는 한글, 산수, 영어, 한문 등 지역공동체프로그램에 등 참해 지도해 줄 자원교사를 모집한다.(02)3664-4453

▲김장재료 후원=피안사회복지관은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담궈주기사업 전개를 위해 배추, 무, 고춧가루 등 후원을 기다린다.(032)881-8226

▲노인 생일잔치 후원=연꽃마을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의 생일잔치에 필요한 빵, 우유, 과일, 음료수, 과자류 등 물품 및 현금 후원을 받는다.(02)365-3677

▲노숙자위한 겨울옷=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겨울을 길거리에서 나야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겨울옷과 이불을 수집한다.(053)753-8883

▲공양주=가평 극락정사는 공양주보살을 구한다.(0356)581-8844.

▲학생기자=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는 회보 〈파라미타〉에서 활동할 학생기자를 모집한다. 학교행사취재 및 탐방, 모니터 활동보고, 기획물 취재 및 기사작성 등의 일을 하며 봉사활동증도 발급된다.(02)723-6165

▲운전관리인=무진법장사는 운전이 가능한 관리인을 모집한다. 60세 전후의 불자로 1종면허소지자여야 한다.(02)9483-111

부음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이영경교수의 부친 이우익씨(68)가 11월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13일 범어사 산중총회

부산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몽산)는 13일 오후 1시 범어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구성원자격은 비구계를 수계한지 5년이 경과된 교구 재적승및 말사 주지인 비구·비구니이며 거주승 신고및 입후보자 등록은 5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6일부터 9일까지. (051) 508~3122.

태고종

경기북부 집행부 구성

경기북부 교구 종무원(원장 박신명)은 11월23일 간부회의를 갖고 사찰간 유대강화와 승풍운동, 종단발전에 진력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4대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매월 음력 12일 정기임원회의를 갖기로 했다. 새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지문위원장=혜승 △자문위원=우담·월암·법신 △사정위원장=광원 △사정위원=담월·지운·자심 △총무국장=상진 △교무국장=도선 △재무국장=대원.

천태종

교원불자 동계수련

총무원(원장 운덕)은 27일 오후 3시부터 29일 오전까지 2박3일동안 서울 관문사에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원불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대승불교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전국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를 갖는다. 참가접수 기한 20일까지. (0444)420-7310

진각종

진각복지재단 연수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4~5일 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산하시설 직원 90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회 복지재단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상임이사회정정사의 '불교와 사회복지'주제 특강과 프로그램 공모, MBTI 검사, 모범직원 표창 등의 행사가 열렸다.

자성학교 교사 연수

통리원(원장 성초)은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직 자성학교 교사 및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4기 자성학교 교사연수를 개최한다. (02)913-0753

총화종

전국 비구니회 창립

13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전국 비구니스님들이 회의를 갖고 비구니스님들의 활동과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한 전국비구니회를 창립한다. 이날 전국비구니회장과 각 임원진도 선출한다.

미타종

동티모르에 옷·약 전달



부종정혜우스님(광주 혜룡사 주지·사진)은 11월 23일 의류 60박스 약 600여착을 육군 00부대를 통해 동티모르에 보냈다. 한편 총무원은 빠른 시일내 대표단을 구성해 캄보디아에 의류 1콘테이너를 보낼 예정이다.

법사종

업장소멸 동지 법회

총무원(원장 성순경)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금강원 법당에서 업장소멸 득병쾌차를 기원하는 특별대법회를 봉행한다. 10시부터 정오까지는 동짓날 법요의식을 봉행하고 2부에서는 이응백 윤호석 이외윤 성순경 법사 등이 특별법문을 할 예정이다. (02)395-2571

정토종

청암종정 1억 기부



종정 청암스님〈사진〉은 11월 23일 강화 불광사의 아미타불 점안법회에서 정토종 발전기금 1억원을 총무원에 기증했다.

한편 청암스님의 종단발전기금 쾌척을 계기로 지산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은 총무원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품질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20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잡티가 많으신 분은 탱탱크림을 발라 주시고,
잔주름을 없애고 탄력과 윤기를 주실 분은
아래의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아로마 테라피 오일



신제품 아로마 테라피 오일의 성분들은 3개의 피부층(각질 표피, 진피)에 영양을 주고 진정시켜 주며 탄력과 윤기를 불어넣어 잔주름을 없애 줍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생성세포가 생성되도록 자극하고 염증을 제거하며 수분을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정화작용을 통하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천연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아로마 테라피 오일
1. 에션셜 크레이징 오일 :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퍼펙트 딥 크레징 오일
2. 에이콤플렉스 에센스 오일: 문제성 피부의 빠른 개선을 위해 처방된 고기능성 미용 농축액, 레티노이드 성분 함유
3. 진동 마사지기: 뭉쳐진 피부를 풀어주고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

일주일만 바르셔도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 비젼21 ☎ 02)447-7867

새천년 맞이 성지 순례

삼보귀의 하옵고,
현대훼미리리조트 12주년 창설기념 행사 일환으로
새천년 맞이 적멸보궁 및 성지 순례를 불자님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내
1. 출발일자 : 1999년 12월 18일 (1박2일)
2. 출발장소 : 봉은사 정문 08:00
3. 일정
1일 : 봉은사 출발→ 월정사 상원사 참배 → 점심공양→ 낙산사 참배→ 저녁공양 → 현대훼미리도착(1박)
2일 : 신흥사 참배→ 정동진→ 점심공양 → 서울 봉은사 도착
4. 불자님 보시금 : 50,000원
5. 기념품 : 순금 달마 호신불 증정
(선착순 80분을 모십니다.)

※ 선착순 예약접수
※차량 배치관계로 12월 15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주) 현대훼미리리조트
문의 전화 : 02)598-8542~4

레이키 (REIKI)법을 배우십시오

레이키법은 오랫동안 힘들게 기공 수련을 하지 않고도 단시일내에 氣능력자가 될 수 있는 세계유일의 속성식 氣능력자 양성법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Attunement)라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어튠먼트는 우주에너지(레이키·氣)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회로를 만드는 작업이며 오직 레이키법에만 있는 氣능력 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레이키법을 배울 것을 권합니다.

1.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족
2. 다운증후군 환자 가족
3. 식물인간상태 환자 가족
4. 태교와 순산을 바라는 임산부의 남편
5. 간염환자 자신이나 간염환자의 가족 (소모되는 활력의 보충을 위하여)
6. 마약류, 술, 담배를 끊으려는 당사자
7. 약재나 약제, 침에 氣를 넣어 치료효과를 높이려는 의약사
8. 피부관리실 운영자
9. 단식원 운영자,건강상담소운영자
10. 氣수련자와 아바타이수자
11. 기타 만성병환자의 가족
12. 모든 분야의 간병인과 호스피스 병동 봉사자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3일소요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지도자: 박회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레이키마스터)번역저술가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졸탁동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기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차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홧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침은 마르고 입술타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거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벅찬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경주 관광안내 표지 '엉터리'

雁鴨池→眼壓地 四面佛→西面佛
한자·영어 잘못 쓴 사례 많아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안내 팜플렛과 문화재 안내판이 통일성이 없고 표기상의 오류가 많아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현재 경주관광안내 팜플렛은 경주시에서 제작하는 것과 여행사나 호텔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이 있으나 사적지를 포함한 문화재 이름이 엉터리 한자와 영어로 표기된 것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某 여행사가 제작한 팜플렛의 경우, 雁鴨池(안압지)를 眼壓地로, 聖德大王 神鐘(성덕대왕신종)을 聖德大王新鐘으로 표기하는등 외국인들이 이해할수 없거나 전혀 엉뚱한 의미로 되어있어 교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영문팜플렛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외국인 50만5천명을 포함해 총9백6만3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국제적 관광도시 경주의 면모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또한 경주 굴불사지의 안내판에 4면불(四面佛)을 西面佛로 표기하는등 사찰문화재 안내판의 한문 및 영문 표기판에서도 틀린 부분이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나 유적을 설명하는 용어도 전문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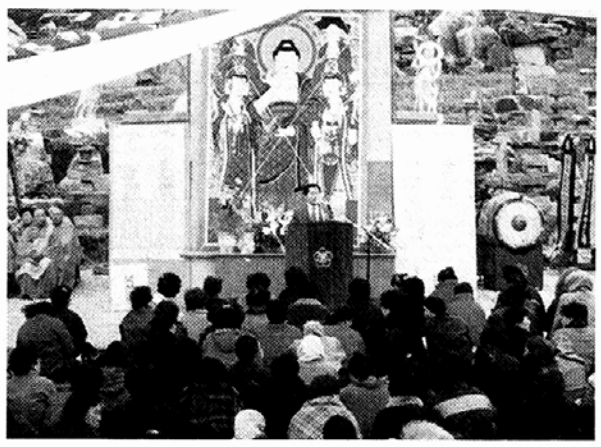
이와 관련 경주시나 경주시 관광협회는 팜플렛상의 오류를 알고도 시정공문을 보내는것에 그치고 있어 무관심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표지판의 경우도 일단 설치되던 인력부족 및 예산책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내년에는 제2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등 경주는 해마다 1천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곳인만큼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관광진흥과의 한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에서 관광안내 팜플렛 견본을 제작해 여행사나 호텔의 이름만 삽입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통일된 팜플렛을 제작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원각종 호남 종무원은 11월 26일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갖고 물자들이 앞장서 자유와 평화의 새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반목·갈등 버리고 새천년 맞자"

원각종 호남 종무원 국태민안 기원 법회

원각종 호남종무원(종무원장 정각)은 11월 26일 1천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강진 옴천사에서 제2건국을 위한 국태민안 남북통일기원법회를 개최했다.

1부 기원법회, 2부 불자연예인 초청공연에 이어 만등불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각스님은 "급변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반목과 대립갈등을 버리고 제2건국으로 자유와 평화의 새시대를 만드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혜철(원각종 총무원장) 정업(강진불교사암련 회장) 금융(태고종 전남종회 부의장) 수산(정수사주지)스님, 조보훈 전남부지사, 윤영수 강진군수, 김철호 영암군수, 김두원 광주전남신도회장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

사부대중 3천여명 참석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11월 28일 새 법당 상량법회를 봉행 했다.

석남사 주지 영운스님,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3천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도와 봉탑식이 거행됐다.

97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치뤄진 이날 상량식은 법당, 유치원, 요사채, 공양간 불사의 대들보를 올렸다.

이날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밥 먹었으면 식기를 닦아야 하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공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모두의 자성불을 밝혀 마음꽃을 피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국대 대각전 불화 점안
경주캠 비구수행관 준공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일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송석구 총장, 최규철 경주캠퍼스 총장, 장경곤 경주부시장 등 사부대중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캠퍼스 비구스님들의 수행관(사진) 석림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석림원은 367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방사 28실과, 법당, 식당, 도서실, 지대방 및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학 및 선학등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의 공동 수행관 건립을 위해 지난 97년 1월 석림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 지난 2월 15일 기공식을 가졌다.

한편 동국대는 13일 대각전 개원 2주년을 맞아 불화점안식 및 만불봉안 불사 제3차 봉불식을 봉행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우면산 대성사 대웅전 기공

부지마련 17년만에 첫삽



용성스님이 3.1독립운동 직전까지 주석했던 우면산 대성사가 1일 대웅보전 및 요사를 건립하는 기공식(사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역화불사에 들어갔다.

대각회이사장 도문스님, 김덕룡·박원홍의원(한나라당), 조남호 서초구청장, 임한동 서초구의회의장, 안동수 국민회의 서초지구당위원장 등 각계 인사와 신도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사는 부지마련 착수 17년만에 첫삽을 뜬 것으로 2001년 낙성된다.

대성사는 총 1만 5백81평의 대지에 대웅보전 33평 요사 49평규모로 세워진다.

위영란 기자

광주 한마음선원 합창제
소년가장에 4천만원 전달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3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제가 2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7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원장 혜월스님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천상의 음성공양을 엮어내는 소중한 체험과 함께,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정성을 회향하는 뜻깊은 자리다"고 말했다.

이날 합창제에서는 '내가 없는 이름의 노래' 등의 합창과 무용 '등지'를 공연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한 깜짝이벤트 '아빠와 함께' 코너에는 단원의 아빠들이 같이나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97년과 98년 소년소녀가장 320명에게 4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9〉

석가탑 무구정광경 발견

세계 最古 목판인쇄물 '햇빛'

도굴단 훼손계기 발굴 착수
종이 부식심해 20년후 복원

우리 나라를 문화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국보 제126호, 이하 무구정광경)을 꼽는다. 신라 문화가 흥성했던 751년(경덕왕 10)이전 간행해 불국사 석가탑 2층 탑신부에 봉안했던 이 경 인쇄본을 1966년 발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일본의 〈백만탑다라니〉보다 무려 19년이 앞서는 귀중한 문화재(국보 제126호)로 목판 인쇄술의 성격과 특징을 완전하게 갖춘 세계 최초의 유일한 목판권자본이 되는 것이다.



◇석가탑

1966년 9월3일과 6일 무영탑(3층석탑)이라고 불리우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도굴단에의해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제1탑신과 제2탑신이 들추어졌다. 경건한 성물로 예배의 대상이라 감히 보수조차 엄두를 못냈던 이 탑이 1천2백여년 만에 도굴단에 의해 탑신에 상처를 입으며 약간 그 자리를 물러나게까지 훼손된 끔찍한 순간이다. 다행히 유물탈위 미수에 그친 그 도굴단은 즉시 검거되어 범행을 자백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당시 황수영 진홍섭 두 위원과 정영호 전문위원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 최순우 미술과장으로 조사단을 편성해 유물 발견 상태와 유물 조사에 나섰다. 10월13일 가동한 조사단은 석탑 보수에 능숙한 기술자 김천석씨에게 석가탑 해체에 착수했다. 이날 제2층 탑신부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제 사리외함에서 다른 여러 사리장엄구와 함께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국내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것은 물론이고 67년 2월15일자로 미국 뉴욕타임즈 지에도 떠들썩하게 보도된 것이다.

10월13일 〈무구정광경〉은 발견 당시 사리외함 안 서쪽에 안치된 금동방형사리함 위에 얹혀 있었다. 조그만 천으로 싸인 포장은 끈으로 몇 번씩 감아 있었는데 그 포장에 손을 대었을 때 살찐 좀벌레 6마리가 흩어져 나왔고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통통하게 살찐 좀 여섯 마리를 마침 내가 가지고 있던 약병에 넣었습니다. 이미 한밤중이 되었고 또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마침 주지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니 주지 벽암스님께서 따끈한 차를 끓여 내오셨고 그 사리서 좀벌레를 보여 드리면서 죽이려고 하자 주지스님께서 '선생님 살생하지 말자'고 권하셔서 주지실 앞 마당에 방생했습니다." 정영호교수(교원대 박물관장)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당시 석가탑이 해체 복원되지 않았다면 좀벌레에 의한 〈무구정광경〉의 훼손은 심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구정광경〉 종이는 부식되고 심한 산화로 부스러져 책머리의 표제, 한역자 및 본문 11항을 잃었으며, 또 앞부분에서 약 250cm까지는 같은 간격으로 1.2항식 결실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뒤로는 상태가 약간씩 좋아지며 권말에 이르러 완전하였다. 시급히 과학처리를 하여 보존과 복원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으나 손도 못대다가 20년이 지난 1988년 9월이 되어서야 89년 1월말까지 일본 기술진과 공동으로 지질을 분석 조사하여 일부 복원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리 보강하였다. 이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의 과학기술력 배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기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는 것이 이 분야의 뒷 얘기이다.



◇석가탑안에서 나온 무구정광다라니경.

불국사는 1966년 12월 15일 복원 공사 준공에 마쳐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중수 기념 간행'이라는 부제로 〈무구정광경〉 전문을 번역하고 본문도 수록하여 4.6판 12쪽으로 법공양판을 간행 배포하였다. 당시 동국역경원장 운허스님이 직접 번역해 출판됐는데 책 맨뒤에는 10만원부터 1천원까지 시주자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됐다.

호사다마라고 석가탑 보수 복원과정에서 2가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제2탑신 옥개석을 들어 내다가 부실한 장비로 인하여 이 옥개석을 떨어뜨려서 탑의 일부를 손상하게 됐고, 또 하나는 녹색 유리로된 사리병이 파손된 것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진각종 대구 금강합창단
창단 10돌 자선음악회

진각종 금강합창단(지도정사 현수)은 1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10주년기념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성악가 임익선의 지휘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서 금강합창단은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등 10여곡의 주옥같은 찬불가를 음성공양 했다.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본뜻는 안내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참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백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몰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사찰·단체 겨울수련회 '참나 찾기' 참선 열기

무불선원·선정회·백양사등 프로그램 마련

"선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안됩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내 생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하기 바랍니다." 1일 서울 논현동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재가불자 동안거 입제식에서 50여명의 불자들이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직장인이 주류를 이루는 무불선원 동안거는 2000년 2월까지 석달동안 계속된다. 무불선원은 등안거수행을 비롯 참선체조와 호흡, 참선실수, 화두공부 등의 강좌를 통해 참나찾기에 나선 불자들을 이끌어 줄 계획이다.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참선수행프로그램과 겨울수련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안거일을 기점으로 도심의 재가선방과 전통선방을 찾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선수행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한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도 11월22일 동안거를 시작했다. 지난 가을 추계선학강좌를 수료한 불자를 비롯 50여명이 자율적으로 수행에 임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토요일에는 철야참선정진이 진행된다. 수선회에서도 중앙선방과 강남선방, 양평선방 등 3곳에서 참선교육을 마친 회원을 대상으로 동안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마음선원 법형제회가 동안거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참선법회를 연다. 또 길상사는 매일 새벽 4시30분~오후 9시까지 길상선원을 개방운영하고, 법련사도 매주 금요 불일선방을 통해 불자들을 이끌고 있다.

부산불교교육원과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선방도 매주 화요일 참선수행을 진행한다.

직장인을 주대상으로 열리는 일반 시민선방과 달리 백양사가 15일~내년 1월30일까지 4회에 걸쳐 4박5일 일정의 동계 참사람 수행결사를, 송광암에서도 23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5회에 걸쳐 겨울수련회를 연다. 또 봉선사가 내년 3월까지 매주 주말 겨울 선수련회를 마련했으며, 천태종 구인사도 12월 17일 종도들을 위한 동안거 입제에 들어간다.

이외에 부산 해운정사의 금모선원, 해인사 원당암, 통도사 보살선원 등 전통 재가선방에서도 2백여명의 불자가 한겨울 추위를 뜨거운 신심으로 녹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무불선원 주지 명정스님은 "지식적인 불교에 한계를 느낀 불자들이 마음으로 온몸으로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선방을 찾는다"면서 "불자들에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여주기 위해 적절한 수행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조성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겨울수련회 및 재가선방>

장 소	일 정	전화번호
백양사	15일~2000년 1월 30일 참사람수행결사	(0685)392-7502
송광암	23일~2000년 1월 23일 겨울수련회	(0666)843-8488
봉선사	2000년 3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겨울선수련회	(0346)527-1951
무불선원	1일~2월 말 동안거 시민선방(평일개방)	(02)541-0002
선정회	매월 셋째 토요일 철야참선정진(평일 개방)	(02)732-3327
수선회	중앙, 강남, 양평 동안거 수행	(02)732-5960
한마음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참선수행	(0343)470-3100
길상사	매일 새벽 4시30분~밤 9시 길상선원	(02)3672-5945
법련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일선방(평일개방)	(02)733-5322
봉은사	매월 초 봉은선원 참선수행(평일개방)	(02)516-5652
부산불교교육원	매주 화요일 참선지도(평일개방)	(051)466-4080
맑고향기롭게	대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참선수행	(053)753-8883
금모선원	동안거	(051)746-2256
보살선원	동안거	(0523)383-8334
원당암	동안거	(0599)932-7308

진각종 첫 대중법회 '성공적'

진각종이 종단 역사 50년만에 처음으로 대중법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물론 종단차원이 아닌 신도회 주최였지만 종단도 이를 적극 지원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각종의 변화를 예상케 한다.

진각종 전국신도회단체인 총금강회 서울지부(지부장 지성)는 11월27일 종립학교인 진선여자 중·고등학교 회당기념관에서 혜정정사(진각종 종학연구실장)의 '밀교교리 대법회'를 개최, 1천5백여 불자가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서울교구가 그동안 불교방송을 통해 교리강좌를 해오던 혜정대정사를 초청해 포교활성화와 새로운 포교불사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행사.

신도 유가희씨(33)는 "그동안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법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막상 법회에 참석하니 진각종 신도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자주 이런 법회를 열어 우리 종단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단의 한 간부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종단에서도 포교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사법부 오판' 헌법소원 제기

범불교 서명운동본부

사법부 판결로 혼란을 겪었던 조계종단이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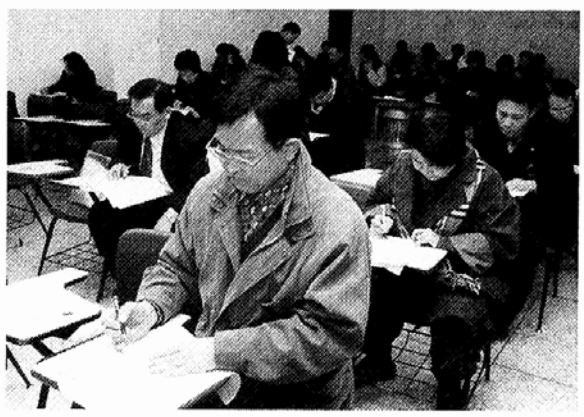
범불교전국서명운동본부(공동대표 백창기 박광서)는 조계종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10월 1일과 2일 총무원장 부존재확인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렸던 패소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또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함께 제소했다.

서명운동본부는 또 재판부의 관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산(前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청구인이며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른바 정화측의 인사권 남발등에 따른 불법적인 사찰접거등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현행법상 구제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가 되기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28일 오전 서울 등 전국 6개도시와 미국 LA에서 제5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포교사 고시에는 모두 7백여명이 응시했으며 오전 9시까지 시험장에 입실해 필기와 면접시험 등을 치렀다. 이번 시험 결과는 12월말 발표되며 내년 1월과 2월 두 차례 연수교육을 거친 뒤 최종 합격자가 선정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총무원장 취임식 비용 불우이웃에 성금

지난 11월23일 취임식을 간단한 고불식으로 대신하고 절약된 비용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약속이 지켜졌다. 총무원은 2일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 각 10명씩 30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천5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정대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양산스님이 전달(사진)했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대불련 웹사이트 '해킹'

타종교인이 불자모임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이트 접속을 불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불련 불자들의 모임 마당인 한메일넷 까페(http://cafe.daum.net/kbuf) 사이트가 아이디(ID)가 '할레루야'인 타종교인 회원의 해킹으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접속 불가능해져 수백명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글이 삭제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의 피해가 없고 해커가 사과를 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까페'는 11월27일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버그를 이용해 불교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훼불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도필선 기자

진관스님 석방 요청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1월 30일 청와대에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우리사회 무소유의 진실한 종교지도자인 진관스님의 석방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조선일보 칼럼에 문제제기

공주마곡사 바른언론실천연합 충남대교수불자회등 충남지역 본말사와 9개단체는 11월 27일 서울대 황동규교수가 조선일보 11월 27일 아침마당코너에 갑사개산대제 행사를 '무간지옥'이라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사과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성명에서는 또한 "편협된 글을 실은 조선일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대응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포항에 노인의료 복지시설 개원

'정애원'…치매예방·정서함양 프로등 운영

경북 포항시 북구에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건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은 10일 오후 2시 정애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연건평 395평에 2층규모의 정애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무의탁 노인들의 입소시설로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상주해 노인들의 편의를 돌보게 된다.

생활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 및 수지침 등의 건강프로그램과 도예교실 홈패션 꽃꽂이 등의 여가선용 프로그램, 소리구별하기 퍼즐맞추기 등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서예 한글교실 풍물 인형극 등의 정서함양 프로그램, 게이트볼 주말농장(텃밭가꾸기) 등의 열린가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목욕, 세탁, 이·미용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음파 치료기, 온열치료기 등 최신식 의료장비와 난방장치가 된 욕실바닥 및 미끄럼 방지 원석을 사용한 화장실 등 노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 시설들이 완비돼 있는 등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난승스님은 "정애원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자연환경이나 안락함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부처님의 품속같은 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한불총 임원진 전원교체

새회장에 문홍주씨 17일 불자화합 축제



지난 87년 창립이래 정치 성향의 신행단체로 인식되어 온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이하 한불총)가 11월17일 제4대 회장에 문홍주(81·사진) 前 교육부 장관을 선출하면서 임원진을 전원 교체하고 불교 신행단체연합체로서 거듭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불총은 새로운 출범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1시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제4대 회장 취임 및 국민화합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법주로 '새 천년을 향한 신행활동의 새 패러다임 구축 및 불자 대화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65개 산하단체 회원 및 일반불자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물놀이 및 대합창, 법요식, 축하공연, 한불총 사회봉사단 출범선언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말 김명윤 회장(한나라당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제출함에 따라 파행운영을 겪어 온 한불총은 문홍주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 우영섭 경기대 대학원장, 이강혁 덕성여대 총장, 김영수 한국헌법학회장, 황의철 KISS컨설팅그룹 연구소장 등 17명의 부회장과 이상진 사무총장(중문실업 대표)을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면모를 일신했다.

문홍주 신임회장은 "이제 불교는 시대상황에 맞는 호국안민의 이념을 실천해야 할 때"라면서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지원하고 교단을 외호하며, 지역 갈등과 남북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18개 종단 총무원장의 합의아래 호국불교도총연합회로 창설된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3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지하철법우회와 군불교진흥회, 삼보법회 등 65개 불교신행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대원불교교양대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

한국불교대원회 부설 대원불교교양대학은 무선단체 불자들간의 상호교류와 무선망 포교를 위해 아마추어단체무선국(HAM)을 개국한다.

권오성 상임법사의 지도로 원혁재 국장, 김원대·정경애 부국장 등 15명의 핸동호회 회원들은 교양대학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6일 오전 10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식을 갖고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간다. 또 개국식 당일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및 일일찻집, 찬불가발표회(상임지휘자 유이상)도 연다.

동호회는 학교 사진을 담은 교신증명 엽서를 6000장 준비해 교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전국의 햄동호회 불자들에게 예불의식 등 각종 불교교리 안내 및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02)754-1613 김재경 기자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한성대학교

2000학년도 1학기 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 모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불교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을 1999년 3월에 개설 하여 지금까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의 전수, 각종행정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사회의 시사문제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립니다. 이번 신학기 첫 강좌는 **컴퓨터를 통한 경전, 교육사업, 포교, 사찰관리기법**을 강의하는데 컴퓨터 초보부터 인터넷까지 교육합니다.
둘째 강좌는 승려복지, 노인복지 등 불교계의 당면 과제인 **"불교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를 강의합니다.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호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 아 래 · · ·

1. 수업기간 : 불기 2544년(2000년) 3월 둘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2000. 3. 14~ 6. 27)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까지(3시간)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1인당 30만원(한학기)
5. 접수기간 : 99년 12월 14일부터~2000년 1월 14일까지 ※전화접수도 가능함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과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개설과목표 (3기)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모집인원 및 수강료
컴퓨터 교육기초부터 인터넷 활용법까지 (컴퓨터 1인 1대 실기위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까지는 종무행정 수강생 컴퓨터 자체연습시간	매주 화요일 1교시 오후2시~3시 30분	1학기 15주 45시간	40명 30만원
현대사회문제, 복지와 불교와의 연관성 강의, 노인복지, 승려복지,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화요일 2교시 오후3시 30분~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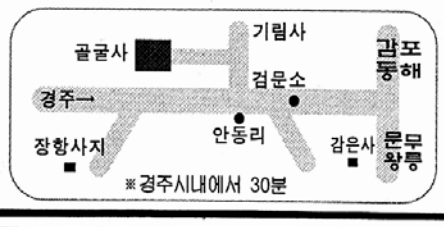
밀레니엄
성지순례

"함월산 골굴사
마애아미타여래불의
미소가
불자 여러분에게
새천년의 지혜를
드립니다."


보물 제581호 마애여래불좌상

골굴사는 1천 5백년전 인도에서 건너온 광유스님이 창건하였으며 암반전산에 동해의 문무대왕릉을 향해 마애불을 조성하고 12처 석굴을 파서 전실을 세워 법당과 요사로 가람을 조성한 전형적인 석굴사원으로서 한국의 돈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여분정도의 거리에 기림사와 감은사지, 문무대왕릉,장항사지를 참배할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당일참배가능)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전화 0561)744-1689



禪武道 (선기공)
겨울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에서는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심신 회복과 선무도 수행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1999년 12월 1일 ~ 2000년 2월 29일
⊙ 장 소 : 경주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총본산)
⊙ 대 상 :
-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으로 병약한 학생 및 일반인
- 성인병, 만성병으로 고통받는 분
- 무도나 기공 수련에 큰 뜻이 있는 분
- 사고와 언행이 불량하여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
- 신행단체, 사회단체 위탁연수 (매회 50명 단위)

⊙ 접수문의 : 전화 (0561)744-1689
FAX (0561)746-0172

포교원 및 지원·지부

서울 포교원 02-763-2980	울산포교원 052-275-1321
강남지원 02-3486-9001	양산연수원 0523-388-0921
부산포교원 051-516-3374	연제지원 051-759-5370
대구포교원 053-621-2626	보림지원 051-524-1600

(협회산하 20여 지원·지부가 국내외에 있음)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주부신행담 시련을 넘어서 ㊦

잘 살고 못 살고가 내탓인 걸 알았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남편은 뜻하지 않던 실직을 해야했고, 결혼 생활은 시작과 함께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비참했다. 살림을 줄이다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일러가 터져 한겨울을 날 수 없게 됐다. 이를 신정연휴는 친정에서 자고, 3일째 되는 날은 시어머님이 옆집 가서 주무시고, 4일째는 겨우 겨우 방 한칸을 구해 같이 잤다. 설상가상이라더니, 이리저리 옮겨다닌지 5일째가 되는 날 전세금 천3백 만원을 빌려준 친구가 찾아와서는 풍기로 내려가게 됐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한 겨울에 더군다나 보일러가 터진 방에 누가 들어올 것이며, 방을 빼 돈을 돌려주고 나면 당장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 지 막막했다.

집이래야 이불장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여서 이사할 걱정은 없었지만 4월말이면 태어날 첫아이는 어떡해야 할 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전세금을 구해오겠다며 나간 남편은 결국 전세금도 구하지 못하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사정이 급해진 나는 벼룩시장에 광고를 냈고, 겨우겨우 방을 뺐다. 방을 뺐지만 가진게 없으니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돈을 구하러 백방으로 쫓아다녀 보았지만 누가 선뜻 1천여만원이나 빌려줄 사람은 없었다.

* 그러나 딱 한사람, 남편과 나를 중매했던 아주머니가 누구한테 사정을 들었다며 그동안 내가 들었던 곗돈과 맞바꾸어 미리 돈을 꿔 주셨다. 그 돈으로 목동에 1천8백만원 짜리 전세방을 얻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번도 계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었던 남편과 나는 다달이 곗돈 1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녔으면 사정이 좀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관계로 50만원씩 3명에게 돈을 빌어 겨우 겨우 한달을 넘겼던 나는 더 이상 지쳐 이 세상을 살아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다. 고통스런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었다.

매일 새벽 부처님을 찾아 뵙고 지극 정성으로 예불하고 기도를 했지만 집안은 조용해질 날이 없었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만 저지르는 남편, 시어머니의 뜻하지 않았던 사고까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남편이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차를 계약했다며 몰고 와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넘어져 손목 뼈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그나마 남편 대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둘째 아이까지 생겨 이만저만 마음고생, 몸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만큼 무능한 남편을 어쩌려고 결혼을 시켰는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시집오기전 겪었던 고통으로 모자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면 너무나 가혹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모두 내업의 소산일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내 업덩어리는 이다지도 큰 것인지 항의라도 하듯 원망의 눈초리로 법당에 좌정하고 계신 부처님을 올려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지금에서야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언의 진리를 주셨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부처님까지도 날 농락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까지 생겨 불상을 내동댕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살림이 조금씩 나아져 가나 싶었더니 IMF가 터져 98년 7~8개월여를 생활비도 없이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봉지 쌀로 겨우겨우 살았고 공과금은 연체에 연체를 거듭했다. 4살, 2살인 아이 과자 한봉지도 제대로 사 먹이지 못하는 비참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 차비가 없어 절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 근처 절에 가 점심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했다. 아이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서 울기도 수없이 울었다. 그러나 살아야 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다시 용기를 내서 한마음선원에 갔다. 한달에 한 번 금요법회에 참석하면서 어느날 대행스님을 친견했는데 그때는 대행스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그런 스님이 계신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참선법회에 참석하면서 스님이 말씀해 주신 '주인공'을 알게 되었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모든 갈등과 문제가 나로 인해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알았다.

길거리 행상을 시작했다. 도매시장에서 물 좋은 생선을 받아와 팔았다. 여름엔 찌는 햇볕에 현기증이 났고, 추운 겨울엔 살을 에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즐거웠다. 나의 노력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경동시장 한 구석에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생선에 야채까지 갖다 팔면서 시장 사람들과 형님 아우하면서 사람사는 정을 나누며 살았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 주었고, 남편도 마음을 잡고 시장에 나와 장사를 도왔다.

대행스님 말씀대로 내 마음 한 번 고쳐 먹은 후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정이 나아져 갔다. 우선 누굴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 좋았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마음선원에서 주인공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내 나이보다는 곱절도 더 먹어 보이는 험한 인상의 사나운 아줌마가 되어있지 않았을까 싶다. 부처님 법은 소리없이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마력을 가지신 것 같다.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며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서 한 생각 돌리고서야 이제 겨우 알게 되었으니 내 어리석음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다른 도반들은 나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부처님 법 가까이에 다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부처님 앞에 앉는다.

김형진(서울시 서대문구 녹번동)



그림 · 문병성

묵은 천년을 보내며, 새천년 새마음을 위한

새천년 맞이 내소사 타종 축제

내소사의 전나무 숲 은은한 향기는 예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데 지구촌 곳곳은 지금 새 천년을 맞이하는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에 내소사는 지혜롭게 묵은 천년을 보내고 복된 새 천년을 맞이하는 행사 준비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묵은 천년동안 지은 우리의 악업은 참회 용서하고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희망이 넘치는 새 천년을 맞이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든다면 이것이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 한 가족이 원만한 화합을 이룰 것이요, 한 국가도 그 민족의 근원을 찾아서 조상의 얼을 잘 받들고 숭배한다면 한민족도 한 마음이 되어 크게 화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 마음만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전 인류를 평화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다 소생하게 해 주시라'는 내소사 창건 스님의 원력처럼 묵은 천년은 참회와 용서로서 악을 소멸시키고 새 천년은 조상을 잘 섬기는 공덕으로 가정, 사회, 민족이 화합하고 [illegible] 인류의 평화가 여기로부터 새롭게 소생되는 아름다운 새 천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새천년 새마음 [illegible] 타종축제]를 베풀겠사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지 진원 합장

사회 : 김형조

식전행사

[illegible] 10시~11시까지

제1부 · 묵은 천년 보내기

199[illegible] 11시~12시까지

참[illegible] 묵은 천년의 악업을 소멸시킨다.

	내 용	비 고
[illegible]	[illegible] 기상	암원식과 Zero Power
상여제	[illegible] 악업을 장사지낸다	서도소리예술단
[illegible]	[illegible] 풀어낸다	발림무용단
[illegible]	[illegible] 소리	서도소리예술단
[illegible]	일기성 명창	국립창극단
[illegible]	[illegible] 타종	각계인사 대표





제2부 · 새천년 맞이하기

2000년 1월 1일 0시~01시까지

조상을 잘 섬기는 공덕으로 가정과 민족 전 인류가 화합한다.

항목	내 용	비 고
타종제 II	범종 21번 타종	각계인사 대표
메시지 낭독	새천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	진원
시낭송	하나가 되어	장애인 시인
초청가수	송악사 外	김태곤
태평무	천년의 태평을 기원한다	발림무용단
대동제	강강술래	참가자 전원
풍등제	풍등을 띄운다	조계종 봉축단

※행사에 이어 월명암으로 이동해서 2000년 새해 해돋이를 보며 회향합니다.

※기원의 만등불 밝히기 「등(개인등, 가족등)」 예약 접수 받습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31일 오후 10시~2000년 1월 1일 새벽까지

● 장소 : 부안 내소사 ☎0683-583-7283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적포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소사

마하몰 ... 새천년 맞이 추천 상품 특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뾰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훼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영남범음범패집 1 재대령(비디오)
영남범음범패집 2 관욕



이 비디오는 인간문화재 어장(魚丈) 문구암(文九菴) 스님의 영남범음범패집의 소리와 그 의문집으로 출판된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을 한데묶은 것이다. 영남범음범패집의 방대한 소리들 중 일차로 천도재(薦度齋)에 널리 쓰이는 대령, 관욕 부분을 먼저 제작하였다.

■가 격 : 1집 25000원/ 2집 25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방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마하몰에서는 천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온 고려불교 예술의 결정(結晶), 고려(高麗)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전 80장 완본(完本)을 순한지인 연담선지(蓮潭鮮紙)와 특수 인쇄기법으로 완벽하게 간행하여 불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규격 : 57.5 (가로) X 23cm (세로))

1.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려 화엄변상도 전80장 완본
2.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 소장본 영인
3.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엄변상도 해설 책자 증정 (前 해인사 講主, 現 해인사 律院長 宗眞스님 해설)
4. 전통한지의 맥을 이은 [illegible]스님이 제작한 최고의 순한지(純韓紙) 연담선지([illegible]蓮潭鮮紙) 사용
5. 본 화엄변상도는 액자난 족자 또는 화엄병풍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화엄경 변상도는 100세트 한정판입니다.

■가 격 : 각 300,000원

불 자 반 야 반 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원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목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懺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총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 량 : 16개 큐빅 / 금 1.5 돈